

석사학위논문

# 자연휴양림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내 자연휴양림 2개소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김 인 정

2008年 8月

# 자연휴양림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내 자연휴양림 2개소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 용 복

김 인 정

이 論文을 觀光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8月

김인정의 觀光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8年 8月

A Study on the Choice Attributes  
of the Recreational Forest

- Focused on 2 sites of Recreational Forest in Jeju -

In Ju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Yong-Bok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ourism Development

2008. 8.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b>제 1 장 서론</b> .....	<b>1</b>
제 1 절 문제제기 .....	1
제 2 절 연구목적 .....	4
제 3 절 연구방법 .....	5
제 4 절 연구범위 .....	6
<b>제 2 장 이론적 고찰</b> .....	<b>8</b>
제 1 절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8
1. 관광지 속성 .....	8
2. 관광지 선택속성 .....	15
제 2 절 자연휴양림의 속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3
1. 자연휴양림의 개념 및 분류 .....	23
2. 자연휴양림의 속성 .....	26
제 3 절 자연휴양림에 관한 선행연구 .....	30
1. 자연휴양림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	30
2. 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32
3. 자연휴양림의 관광자원에 관한 연구 .....	35
<b>제 3 장 연구설계와 분석방법</b> .....	<b>38</b>
제 1 절 측정분석의 틀 .....	38
제 2 절 설문지구성과 측정 .....	39
1. 설문지설계 .....	39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	40
3. 조사단계 .....	42
4. 표본의 추출과 조사방법 .....	43
제 3 절 연구대상지현황 .....	44
1. 절물자연휴양림 현황 .....	45
2. 서귀포자연휴양림 현황 .....	47

제 4 장	실증분석	49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9
1.	인구통계학적 특성	49
2.	조사대상의 관광행태에 관한 특성	51
제 2 절	측정척도의 평가	57
1.	자연휴양림 선택속성별 교차분석	57
2.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86
제 3 절	조사대상자 의견분석	96
제 4 절	실증분석결과 종합	100
제 5 장	결론	104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04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108
참고문헌		109
부 록		114
ABSTRACT		118

## 표 목차

<표 2-1> 관광지 속성의 구조 .....	15
<표 2-2> 관광지 선택속성에 선행연구 .....	20
<표 2-3> 자연휴양림 속성 .....	27
<표 2-4> 자연휴양림의 이용행태에 관한 선행연구 .....	31
<표 2-5> 조성계획과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 .....	34
<표 2-6> 자연휴양림의 관광자원에 관한 선행연구 .....	36
<표 3-1> 설문지 구성내용 .....	39
<표 3-2> 조작적 정의와 측정변수의 참고 .....	40
<표 3-3> 연구대상지 자연휴양림의 개요 .....	44
<표 4-1>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	50
<표 4-2> 관광활동 특성 .....	53
<표 4-3> 방문목적(복수응답) .....	55
<표 4-4> 자연휴양림내의 여가활동(복수응답) .....	56
<표 4-5> 산림경관 .....	57
<표 4-6> 한적한 분위기 .....	58
<표 4-7> 야생 동·식물 다양성 .....	59
<표 4-8> 수공간 .....	60
<표 4-9> 환경의 쾌적 .....	61
<표 4-10> 시설자연과의 조화 .....	62
<표 4-11> 생태환경 .....	63
<표 4-12> 숙박시설 .....	65
<표 4-13> 편의시설 .....	66
<표 4-14> 교육시설 .....	67
<표 4-15> 산책로(등산로) .....	68
<표 4-16> 휴식시설 .....	69

<표 4-17> 체육·놀이시설 .....	70
<표 4-18> 시설물 .....	71
<표 4-19>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	73
<표 4-20> 취미활동 .....	74
<표 4-21> 삼림욕활동 .....	75
<표 4-22> 자연학습 .....	76
<표 4-23> 자연경관감상 .....	77
<표 4-24>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	78
<표 4-25> 교통의 편리성 .....	80
<표 4-26> 인근관광지거리 .....	81
<표 4-27> 정보취득의 용이성 .....	82
<표 4-28> 안내체계 .....	82
<표 4-29> 예약체계 .....	84
<표 4-30> 접근 및 이용체계 .....	85
<표 4-31> 절물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1 .....	87
<표 4-32> 서귀포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1 .....	88
<표 4-33>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2 .....	90
<표 4-34>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2 .....	91
<표 4-35>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3 .....	92
<표 4-36>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3 .....	93
<표 4-37> 절물 자연휴양림의 매력적인 요소 .....	96
<표 4-38> 절물 자연휴양림의 개선요구사항 .....	97
<표 4-39>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매력적인 요소 .....	98
<표 4-40>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개선요구사항 .....	99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7
[그림 2-1] 관광지 속성구조에 대한 기본개념 .....	14
[그림 3-1] 연구의 틀 .....	38
[그림 3-2] 연구기간 및 내용 .....	42
[그림 3-3] 연구대상지 위치 .....	44
[그림 3-4] 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수 .....	46
[그림 3-5]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수 .....	48
[그림 4-1] 산림경관 .....	57
[그림 4-2] 한적한 분위기 .....	58
[그림 4-3]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	59
[그림 4-4] 수공간 .....	60
[그림 4-5] 환경의 쾌적 .....	61
[그림 4-6] 시설자연과의 조화 .....	62
[그림 4-7] 숙박시설 .....	65
[그림 4-8] 편의시설 .....	66
[그림 4-9] 교육시설 .....	67
[그림 4-10] 산책로(등산로) .....	68
[그림 4-11] 휴식시설 .....	69
[그림 4-12] 체육·놀이시설 .....	70
[그림 4-13]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	73
[그림 4-14] 취미활동 .....	74
[그림 4-15] 삼림욕활동 .....	75
[그림 4-16] 자연학습 .....	76
[그림 4-17] 자연경관 감상 .....	77
[그림 4-18] 교통의 편리성 .....	80

[그림 4-19] 인근 관광지와의 거리 .....	81
[그림 4-20] 정보취득의 용이성 .....	82
[그림 4-21] 안내체계 .....	83
[그림 4-22] 예약체계 .....	84
[그림 4-23]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1 .....	87
[그림 4-24]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1 .....	89
[그림 4-25]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2 .....	90
[그림 4-26]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2 .....	91
[그림 4-27]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3 .....	93
[그림 4-28]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3 .....	94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문제제기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삶의 질적 향상과 여가선용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크게 증가하여 여가 및 관광활동은 현대인의 소비문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개인생활의 확산,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등의 사회변화는 관광의 대중화 현상을 확산시켜, 여가 및 관광활동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관광산업은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산업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의 급속한 성장은 무분별한 대규모 관광개발을 야기하기도 하고, 대중 관광객은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을 대량으로 소비하여 환경오염 등의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사회에 사회·문화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환경보전과 관광활동이 상충되면서 기존의 대중관광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져 생태관광, 문화관광, 녹색관광 등의 대안적 형태의 관광들이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중 특히 생태관광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의 한 부분으로 기존 관광형태에 회의적인 관광객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관광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구조 변화는 여가 및 관광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가족단위의 단란한 야외 나들이와 같은 건전한 관광풍토가 조성되고 있으며(양윤정, 2003), 여가형태는 도시생활로부터의 일탈을 위한 자연친화형 및 휴양체제형 여가형태, 자아실현 및 계발추구형 여가형태, 가족동반형 여가형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김문검, 2002).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변화된 여가·관광행태에 부합하는 산림휴양 수요의 절대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하경량, 2003).

산림휴양 수요의 변화양상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된 산림인 자연휴양림의 연간 방문객

수의 급격한 증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연휴양림은 산림생태계를 유지·보전하면서 임산물과 공익재의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국민보건휴양, 정서함양, 산림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대국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야외위락적·지역개발적·임업경영적·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양덕희, 2007).

산림청 임업통계연보에 나타난 자연휴양림의 이용현황을 보면 IMF사태 등으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1997-1998년을 제외하면 1989년 처음으로 개장된 이래, 전국 자연휴양림 방문객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 1999년에는 총 방문객 수가 연간 300만 명을 넘었고 2002년에 400만 명, 2005년에는 500만 명을 돌파하는 급상승세를 보이며 2006년 말 전체 자연휴양림의 연간 방문인원은 5,775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수치이고, 2002년 이후 연간 방문객수 평균 증가율이 약 9%로, 자연휴양림은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대표적인 산림휴양공간으로서 이용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지역 내 조성된 자연휴양림 두 곳(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의 방문객수도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절물휴양림의 2006년 이후 방문객수는 서귀포자연휴양림의 약 7배로 2007년 한해 방문객수가 40만 명에 육박했다.

이러한 자연휴양림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를 아울러 다양하고도 많은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의 자연휴양림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초부터 임업의 한 분야로 산림휴양이 자리 잡기 시작하며 1980년 이후 야외휴양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히 진행되었다(공영호, 2004). 초기에는 이용객이 많은 국립공원, 수도권, 주변 도시림의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지역외의 자연휴양림을 포함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관광지 및 관광자원으로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내연구는 주로 임학과 조경학 등 자연과학 분야로서 하드웨어적 구성에 치우쳐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자연휴양림의 자원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산림과 시설관련 연구에 국한되어 있어 관광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특히 자연휴양림이 하나의 관광지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지의 속성이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제주지역의 자연휴양림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법적제안에

관한 연구<sup>1)</sup>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제주지역 자연휴양림 방문객을 대상으로한 학술적 연구결과는 전무하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절물과 서귀포 자연휴양림 이외에 교래와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2 곳을 추가 조성·개발하고 있는 중이다.<sup>2)</sup> 그러나 제주지역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의 이용행태 및 선택속성 등에 관한 기초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내 자연휴양림이 관광대상지로서 계획·개발 및 관리·운영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로서, 자연휴양림을 활성화시킬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위한 기초분석 자료로서의 제주지역 자연휴양림 방문객에 관한 이용행태, 선택속성 등의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 이진희(1999),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적제안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Vol.13

2)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환경국 녹지환경과의 2007년도 환경녹지 주요사업계획에 따르면 교래와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의 신규조성사업을 적기사업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 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관광지로서 자연휴양림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을 연구하여 자연휴양림의 계획·개발 및 관리·운영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지의 속성 및 선택속성, 자연휴양림의 개념 등 본 연구에 관련된 문헌을 바탕으로 자연휴양림에 대한 이론적 자료를 본 연구에 기초로 삼는다.

둘째, 관광지로서 자연휴양림의 계획·개발 및 관리·운영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방문객 이용행태, 자연휴양림의 관광지로서의 속성이 방문객 선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및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자연휴양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휴양림의 계획·개발 시 정책적 시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휴양림의 선택속성과 우선순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에서는 관광지의 개념정의, 관광지 속성의 개념 및 구조, 관광지 선택속성의 개념 및 선행연구고찰을 하는 한편, 관광행태의 변화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관광지로서의 선택속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실증연구는 문헌연구에서 제시된 선택속성을 바탕으로 2차례에 걸친 예비조사를 통해 도구화된 설문지를 도출하였다. 작성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으로 응답케 하는 설문지법(questionnaire)을 사용하였다.

실증조사의 조사기간은 2008년 4월 16일부터 2008년 5월 15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조사지역은 제주시 절물 및 서귀포 자연휴양림 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절물과 서귀포 자연휴양림을 방문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각각 180부씩, 총 3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자가 직접 방문객과 면담을 한 후에 응답토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사회과학 분야의 통계패키지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SPSS 1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은 표본의 특성과 각 변수의 항목별 특성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별면접을 통해 자연휴양림의 속성 중 생태·환경, 시설물, 체험활동, 접근 및 이용체계 요인이 방문객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정도와 선택속성 간의 상대적 우선순위, 방문객의 의견 등을 조사하였으며, 절물 및 서귀포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우선순위 속성항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제 4 절 연구범위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본 연구를 실시한 2007년 9월~2008년 6월이고 공간적 범위로는 제주도 절물 자연휴양림 및 서귀포 자연휴양림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의 대상은 절물 및 서귀포 자연휴양림을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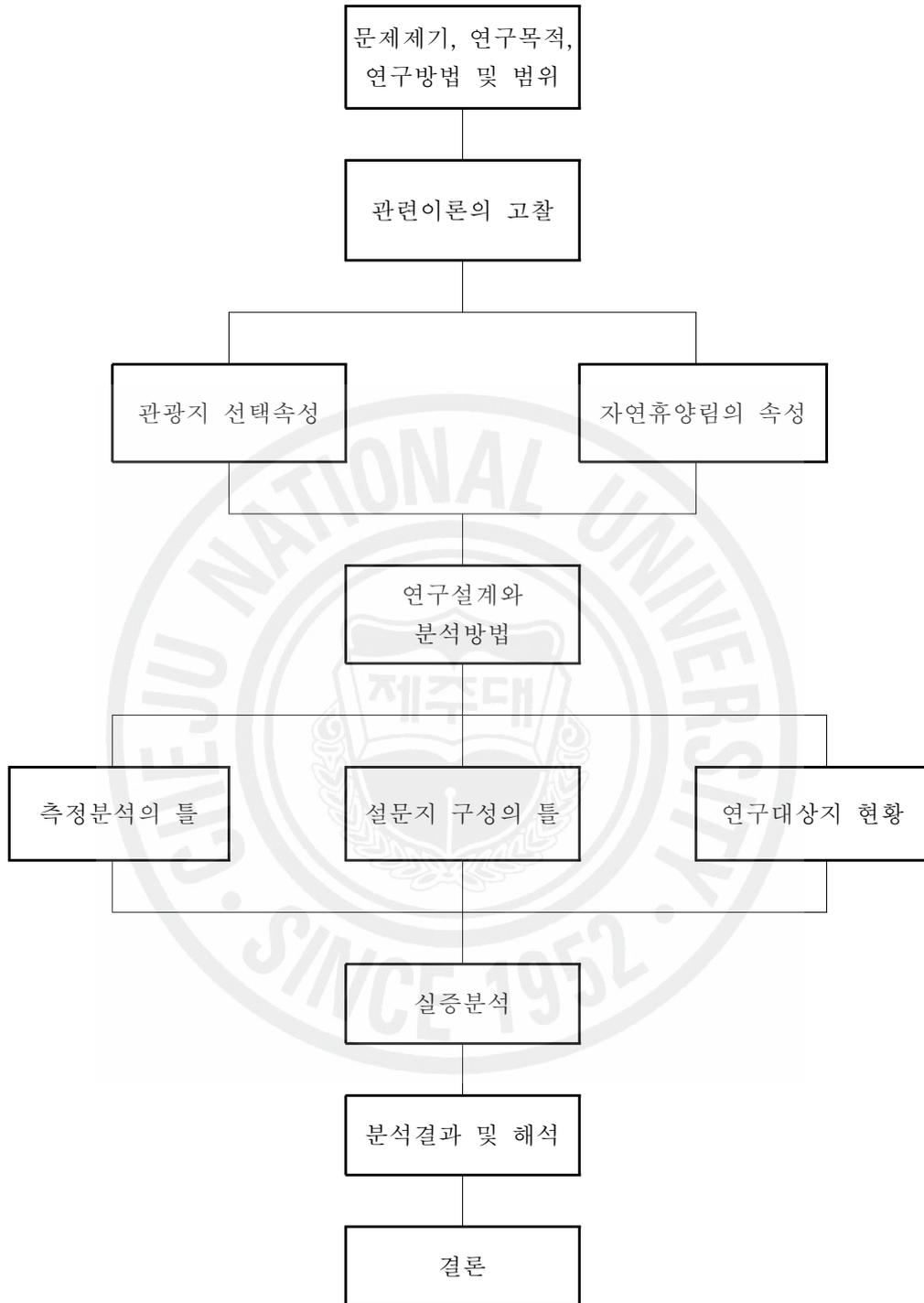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관광지 속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자연휴양림의 개념정립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이를 요약 소결하고 있다.

제3장은 연구설계 부분으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고찰로 얻어진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목적, 설문조사방법, 조작적 정의, 설문지 구성 및 연구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제4장은 실증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의 분석결과 및 종합토의로서 측정모형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내용의 전반적인 요약과 시사점, 연구의 한계성을 기술하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 제 2 장 이론적 고찰

### 제 1 절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관광지 속성

방문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방문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유리화 등,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휴양림의 선택속성을 도출하기 위해 관광지의 속성 및 선택속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관광지의 개념 및 구성요소

관광지란 관광객이 일상 생활공간을 떠나서 자신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일정시간 동안 체재하는 지역으로서, 자연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그리고 관광시설자원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이상 가치 있는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 관광자원의 이용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숙박시설, 식음시설,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이러한 관광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보제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지역공간을 가리킨다. 또한 지역 자체가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관광자원과 동일하나, 모든 관광자원이 일정지역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관광자원과 구분되며, 관광지도 관광자원의 범주에 든다(박석희, 2002).

이장춘(1999)은 관광지를 관광객의 관광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공간으로서, 관광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가능케 할 각종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기반시설, 즉 교통·통신·상하수도, 전력·정보서비스시설 등의 제반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보았다. 또한 관광공간은 장소(place)·지구 또는 영역(area)·지역(region)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관광시설은 관광입지(location)의 기본요건을 갖추며, 관광자원의 성격에 따라서 관광지의 특성이 규명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관광지는 사람들이 관광욕구 충족을 위해 관광자원·시설들이 결합되어 있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여정태, 1993).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광지라고 불리는 용어는 그 정의와 대상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쓰이는 목적에 따라 그 의미가 다소 다르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관광지라는 용어와 전문적 또는 학술적으로 쓰이는 용어와는 그 대상부터가 다르고, 학술적인 사용에서도 분야에 따라 용어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렇게 같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관광지 개발법상의 각 시설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김수경, 2000).

법제적으로 관광지의 개념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김봉·장성수·부창산, 2008)으로 제한되어,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은 법적 개념으로는 관광지가 아니고 단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광지만 관광지인 모순이 있다(박석희, 2002). 이는 국립공원 등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유원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개발·관리하는 등의 관광지 공급제도상의 혼란에서 기인한 것으로, 관광학 분야에서는 관광지의 개념을 정리한 연구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등도 관광지로 보고, 관광지로서 속성, 만족도, 이용행태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관광지의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공간의 구성, 매력물의 유형, 이용상태, 입지, 수명주기의 단계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관광지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매력물(attractions)이라 할 때, 이 매력물의 유형에 따라 관광지의 유형을 산악관광지, 수변관광지, 도시관광지, 도서관광지, 온천관광지, 종교관광지, 역사유적관광지, 특수관광지 등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박석희, 1997).

Inskip(1991)은 관광지 개발의 구성요소로 관광 매력물과 활동, 숙박시설, 기타 편의시설과 서비스, 교통시설, 하부기반시설 등을 제시하였고, 여정태(1993)는 관광유인요소와 지원편익시설을 관광지를 구성하는 주요소로 하여, 관광지의 구성요소를 매력물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레크레이션시설, 기반·편익시설 등의 시설과 서비스 등의 5개 요소군으로 제시하였다.

‘매력물과 볼거리’는 관광객 유인의 기본적인 매력으로서 자연적, 인공적, 역사적, 문화적인 볼거리를 의미한다. 기암괴석, 폭포, 동굴 등의 자연적인 구성요소와 단지의 경관을 구성하는 건축물, 시설물 및 기타 공작물을 비롯한 교양·문화시설 등의 인공적 구성요소, 그리고 문화제, 유적지, 전통민속마을 혹은 지역의 문화행사나 이벤트 등의 역사·문화적

구성요소를 그 예라 할 수 있다. ‘기반·편익시설’은 관광지내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식·음료시설, 휴게시설, 안내시설,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 등의 하부시설 등의 요소를 말하며, 이는 ‘숙박시설’, ‘서비스’와 함께 관광지의 수명주기를 조정해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관광지의 새로운 매력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숙박시설’은 관광지내의 호텔을 비롯하여 콘도, 여관, 민박 및 캠핑장 등의 요소를 말하며, ‘서비스’는 종업원의 친절, 주민의 태도, 청결, 안전 등 주로 인적요소로 구성된 요소들이다.

이렇듯 관광지는 관광지의 구성요소 및 경제적, 공간적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관광객에 의해서 선호, 선택, 여행, 소비 이용 및 회상 등의 객체로서 규정되기도 한다(곽노엽, 1998). 즉 관광지는 관광객에 의해 지각되고 잠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호되고 이용될 때 관광지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관광지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핵심적 매력과 보조적 매력, 보조적 위락활동기회, 접근성, 지역사회, 통합적 특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김수경, 2000).

## 2) 관광지 속성의 개념

소비자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연구하면서 Lancaster(1966)는 ‘소비자는 상품을 상품자체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속성의 덩어리(bundle)를 사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속성’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속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관광지를 하나의 상품으로 파악하여 관광지가 지니고 있는 개별속성을 경험적으로 분류하여 각 요소별로 기대나 선호도, 혹은 만족도 등을 측정함으로써 하나의 관광지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관광지 속성이론이라 할 수 있다(고동우, 1998; 문성중, 2006; 최용복·부창산, 2007).

관광지는 다양한 관광시설들과 서비스들과 서비스들로 구성된 다차원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광객의 거주지와는 다른 모든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뛰어난 경치, 역사적 장소, 위락공원, 시설과 서비스, 각종 이벤트 등 관광지 속성의 유형은 다양하다(한승엽, 1998). 또한 Fumito Yokoyama(1991)은 관광지 속성이란 관광지 내에서 관광객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으로서 관광과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행동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듯 관광지 속성은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요소들을 관광지가 어떻게 얼마나 보유하

고 있는나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관광지가 지니고 있는 특정한 성질, 즉 긍정적인 요소 또는 매력적인 요소로서 관광자원, 관광매력물이라는 용어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광지 속성 이론이 관광체험의 맥락에서 논의되기도 하는데 이는 관광지의 각 속성이 체험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동우, 1998).

관광지 속성에 대한 국내외 기존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관광지가 지니고 있는 대체적인 공통요소들로는 자연환경, 지역주민/사회문화, 관광부대시설, 역사유적 요소 등으로 볼 수 있고, 물가나 쇼핑 관련 요소도 자주 언급되는 속성이다. 이들 속성은 구체적인 관광체험이 유발되는 터전이며 원천이라 할 수 있다(문성중, 2006).

관광목적지의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Var 등(1977)은 관광속성을 자연적 요소, 사회적 요소, 역사적 요소, 오락 및 쇼핑시설, 부대시설 및 숙박시설과 음식의 5개 주요특성과 17개의 하위특성에 대해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자연경관, 부대시설, 음식 및 숙박시설 등을 관광객에게 매력을 주는 속성으로 평가하였다.

Ritchie 등(1978)은 퀘백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개의 일반적 속성(자연경관, 문화·사회적 특성, 관광지의 접근성, 관광객에 대한 태도, 부대시설, 물가수준, 스포츠·오락시설, 쇼핑 및 상업시설)과 12개의 사회문화적 속성(전통, 음식, 역사, 건축양식, 공예품, 오락활동, 예술 및 음악, 언어, 일에 대한 태도, 복장, 교육, 종교 등)을 가지고 관광지의 매력성을 측정하였고, Haahti(1986)는 67개 관광지에 대하여 구분속성을 화폐가치, 접근성, 스포츠시설, 심야유흥 및 위락, 평화롭고 조용한 휴가, 친근하고 친절한 사람들, 자연공원 및 캠핑, 문화적 경험, 아름다운 풍경, 새로운 목적지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Gartner(1989)는 국립공원, 국유림, 주공원, 도시, 역사유적지, 스키, 캠핑, 보트 타기, 사냥, 낚시, 구경거리, 문화, 야간유흥, 주민의 친절함, 음주법 등의 15개의 속성을 제시하여 관광객에게 포지셔닝된 관광지의 속성을 정리하였으며, 이애주(1988)는 5개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지의 속성을 연구하여 크게 자연경관에 의한 속성, 사회 및 문화적 속성, 인위적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신도길은 관광지 만족도 연구에서 관광지 속성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면접 등의 방법으로 국내 관광지의 속성을 수집한 후 패널 토의 등을 통해 15개의 관광지 하위속성을 정리하였고, 여정태(1993)는 사람들의 관광욕구 충족을 위해 관광자원, 시설들이 결합되어 있는 관광지에는 자연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그리고 관광시설자원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공간내의 이들 관광자원의 이용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관광시설,

식음시설, 편의시설, 이러한 관광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정보 서비스 등을 관광지의 속성으로 보았다.

이진희(1996)는 리조트의 속성을 전체분위기의 고급정도, 운동시설의 질, 숙박시설의 질, 흥미 유발의 경험, 여가활동의 선택가능성, 음식의 질, 유흥 활동의 기회, 휴식의 적합성, 건강회복의 기회, 종업원의 친절정도, 시설이용요금의 적정성 등 16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Kim(1998)은 관광목적지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한 지역의 기후, 하부기반시설, 상부구조물, 서비스 자연 및 문화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관광지로서의 국립공원의 속성에 대해 연구한 Goodrich(1978)는 Water sports 시설 (beaches, Sailing, Swimming, Water Skiing 등), 골프·테니스 등의 스포츠 시설, 경관미, 관광지 주민들의 친절함, 휴식시설, 쇼핑시설, 음식, 오락(entertainment)시설, 숙박시설 등을 관광지로서의 국립공원의 속성으로 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모든 국립공원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여서, 이러한 속성의 보완을 위하여 윤길진(1990)은 우리나라 현실에 입각하여 보다 설명력 있는 속성을 도출하려 하였다. 윤길진의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의 매력속성을 역사·문화적 경관(고적, 기념관, 전통문화행사 등), 주변 경치의 아름다움, 관광지의 청결, 관광지 주민태도의 친절함, 휴식공간 및 휴식시설의 정비(공원내에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벤치, 화장실, 음료수 공급시설 등의 휴식시설), 관광지의 쇼핑·서비스 시설, 관광지의 스포츠·여흥·위락시설, 숙박시설, 교통의 편리함, 관광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 관광지의 혼잡한 정도, 소요되는 비용, 관광지의 지명도 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일휘(1997)는 이러한 매력속성들이 국립공원의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공원의 특성에 따라서 각 속성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관광지 속성은 연구목적과 조사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누어지고 용어와 구분이 다를 뿐 대부분의 속성들은 관광지의 공통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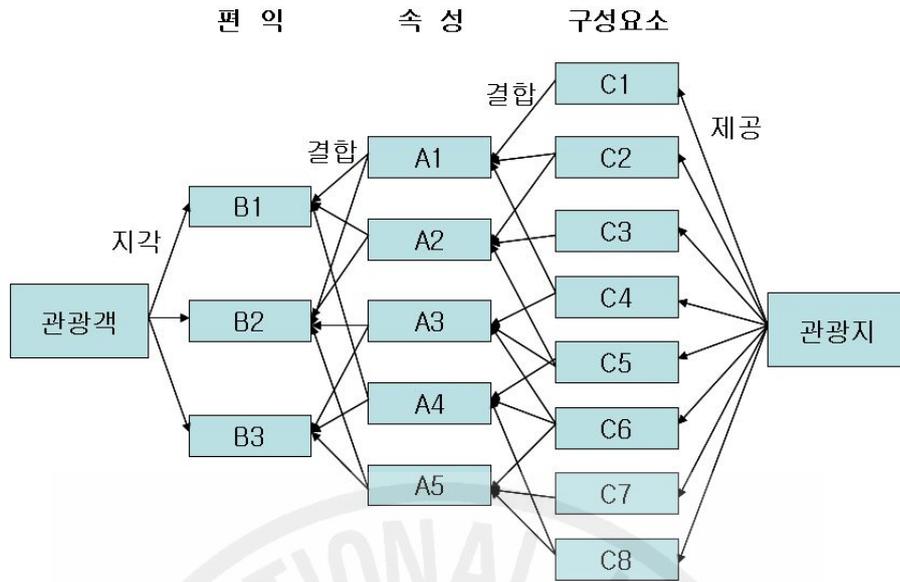
### 3) 관광지 속성의 구조

Lancaster(1966)가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은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속성의 덩어리(bundle)라고 한 것과 같이, 관광객들은 관광지가 보유하고 제공하는 요소들을 그 자체 그대로가 아니라, 그 요소들의 결합으로서 가지는 다속성의 의미로 대상을 인식한다(곽노

업, 1998). 즉, 관광지는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 특징지어지지만 관광객은 주관적인 여과과정인 지각과정을 거쳐 사물을 인식하게 되므로 목적지의 속성은 객관적 속성이 아닌 관광객의 지각된 속성에 의해 평가되고 선택된다는 것이다 (Anderson, 1981).

관광객들은 관광지를 비교·평가하거나 선택할 때 나름대로의 인지구조(cognitive constructs)를 통해 판단하며, 대안관광지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물리적 속성들을 통해 판단된다. 관광객들은 이 구조를 정의하기 위해 속성정보를 통합하고, 또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 이 구조를 사용한다. 즉 관광객들은 목적지 속성의 다발로 이루어진 이 인지구조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효용을 토대로 대안을 평가하게 된다(Louviere and Timmermans, 1990).

곽노엽(1998)은 관광지 속성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관광객의 관광지 속성 인식구조와 속성의 구조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다. 먼저, 관광지 속성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며 관광공급자와 관광객이 속성을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밝혔는데, 관광지의 모든 구성요소를 관광공급자는 객관적 속성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관광객들은 편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관광지는 땅, 물 혹은 역사자원, 문화자원 등과 같은 입지적 특성에 따른 자연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인위적인 요소, 즉 건축물, 시설물, 도로, 수목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 구성요소들은 요소간의 결합에 의해 특정 관광지가 보유하는 관광지의 특성을 규정하는 속성(product attribute)이 된다. 반면, 관광객은 단지전체 분위기, 이용활동시설의 유형과 질, 숙박시설의 질, 볼거리 등등의 속성을 관광객의 주관적인 지각과정을 통해 상기 속성들이 결합된 편익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주변자연경관, 단지전체분위기 등의 속성은 ‘좋은 경치’라는 편익으로,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이벤트 등의 속성은 ‘다양한 볼거리’라는 편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림 2-1] 관광지 속성구조에 대한 기본 개념

자료 : 광노엽(1998). “관광지속성의 선호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1.

결국 관광지 속성의 구조는 [그림 2-1]과 같이 ‘관광객→편의←속성←구성요소←관광지’의 체계를 기본개념으로 하여 구성되며, 이러한 기본개념에 의해 관광지의 속성구조는 <표 2-5>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각 속성들은 이 표에서와 같이 편의와 구성요소에 대해 1:1의 관계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 기본개념과 같이 상호 다면적인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면 ‘좋은 경치’이라는 편의는 ‘주변경관’, ‘단지전체 분위기’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의 형태’ 등의 속성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이는 땅, 물 등을 비롯한 건축물과 공작물 등의 구성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표 2-1> 관광지 속성의 구조

편익 benefit	속성		구성요소 component
	attribute	sub-attribute	
1. 좋은 경치	1. 주변 자연경관		땅, 물, 임상 등
	2. 단지 전체분위기		땅, 물, 임상, 가로, 건축물, 공작물 등
2. 적절한 숙박	3. 숙박시설의 질	· 가격 · 형태/규모 · 서비스/시설수준 · 부대시설	콘도, 호텔, 여관, 민박 등의 건축물과 부대시설
3. 풍부한 볼거리	4. 자연적 볼거리		기암괴석, 폭포, 호수, 동굴 등
	5. 역사/문화적 볼거리		사적,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6. 이벤트		문화행사, 축제 등
4. 다양한 먹거리	7. 먹거리의 질		고급/일반식당, 토속음식점 등
5. 다양한 할거리 /놀거리	8. 휴양활동시설		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 축구장, 골프장, 스키장 등 유흥음식점, 디스코텍, 전자 오락실 등 어뮤즈먼트파크, 놀이동산
	9. 위락활동시설	· 운동 · 유흥, 오락 · 어린이 놀이시설	
	10. 쇼핑활동시설		
6. 용이한 접근	11. 접근성	· 거리 · 시간 · 볼거리/쾌적성	접근도로 주변경관, 휴게소 등
7. 저렴한 비용	12. 비용		숙박시설료, 시설이용료, 입장료 등
8. 친절한 서비스	13. 서비스/태도		종업원의 복장 등 안내, 관리, 조경시설물 등
	14. 관리/안전		

자료 : 광노엽(1998). “관광지속성의 선호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2.

## 2. 관광지 선택속성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택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의사결정과정(목적지 선택행동)과 그 결과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관광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자원의 특성과 사업주체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이들 요소의 결합에 의해 특정 관광객에게 제공하

는 다차원의 많은 속성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관광객들의 목적지에 대한 평가, 선택은 관광객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욕구를 목적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결합에 의해 제공되는 편익을 연결하여 인식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곽노엽, 1998). 특히, 관광지 선택행동과 구매는 관광객의 욕구충족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며(한승엽 등, 1998), 관광지를 선택하는 의사결정과 관광지 선택행동은 관광객의 연구에 중요한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김이향, 2006).

관광객은 관광지의 속성을 지각하게 되면 선호나 의향을 낳게 되어 관광지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관광객은 특정 관광지에 대하여 추구하는 편익의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안적 관광지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한다(김수경, 2000). 이렇듯 관광객은 관광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관광지의 속성 비교와 평가를 통해 관광지를 선호하고 관광행동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광지의 속성을 관광지 선택의 결정인자(determinant)라고 한다(Engel & Miniard, 1986).

관광객의 관광지 선택속성의 연구는 혼잡도, 기후, 정치 등의 요소에 따른 국립공원의 선호도를 조사한 Mayo(1973)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는데, 김창완(2002)은 관광지 선택속성을 관광지가 선택되고 이용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속성, 즉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선택과 관련된 속성들을 공급요인, 관광객의 수요요인, 그리고 관광지 인근의 지역·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이 요인들 중 관광객 이용행태적 측면을 제외한, 관광지 개발 측면에서 계획·조정 가능한 부분은 공급요인과 지역·사회요인으로 보고 이들에 관한 개념 및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공급요인은 관광지가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관광자원 혹은 관광시설, 그리고 서비스들과 관련된 것들을 의미하는데, 관광지의 공급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Gunn(1979)은 관광자원의 독특성·매력성, 관광시설의 구비정도, 관광서비스 수준, 교통, 정보 및 촉진정도, 관광지의 관리 등을 제시하였고, Murphy(1987)도 관광자원의 매력성과 환대수준, 체험수준, 기반시설, 관광지의 접근성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Middleton(1988)은 문화적/사회적/인공적 관광대상, 관광지내의 이용 가능한 시설 및 서비스, 관광지의 접근성, 여행수단, 운영요소(시간/비용)와 제약요소, 관광지의 이미지, 총 여행비용 등을 제시하였고, McIntosh와 Goeldner(1990)도 관광지의 자연적/인공적/문화적 자원, 교통, 숙박시설, 관광서비스 지원시설, 관광지 마케팅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관광지개발은 관광객, 공급자, 정부기관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대상관광지의 지역경제에 직·간접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관광지개발은 지역주민과 행정과의 일치된 견해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이때 주민들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들, 즉 정보제공, 시설장비, 행사개최, 학습기회 제공, 조사연구 등은 관광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가 관광시장의 불완전성, 외부효과, 지역개발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역 관광시장에 개입함으로써, 관광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주어야 함을 의미한다(장성수, 1999). 이렇듯 관광행정에서 조정·계획해야 할 요인들을 김창완(2002)은 지역·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Drake(1991)는 국가의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자연이나 인문관광자원, 관광지까지의 접근성, 관광매력물 등을 새로이 창조하여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방법론적으로는 관광지의 정보만을 위한 정보공유 및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 등을 제시하였고, Pearce(1991)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폭넓은 정보제공과 인프라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Murphy(1987)는 관광지개발이 관광지의 친절성에 크게 의존하면서 관광지개발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성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고, Drake(1991)도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관광지 개발도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보공유, 협의, 의사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광지에는 이러한 공급요인과 지역·사회적 요인이 모두 공존하고, 이러한 요인들은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택함에 있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져 왔다.

Var et al.(1977), 이애주(1998)는 관광객에게 매력을 주는 속성으로 관광지 선택속성을 평가하여 자연적 요소, 사회적 요소, 역사적 요소 등 17개 특성에 대해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여 관광지 선택속성을 제시하였고, Brent(1978)는 관광지의 접근성, 관광객 접객태도, 부대시설, 물가, 스포츠, 오락시설, 쇼핑시설을 관광지 선택속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 문화적 요인에 전통, 음악, 역사, 건축, 공예품, 오락 활동, 예술 및 언어, 일에 대한 태도, 복장, 교육, 종교 등을 제시하여 관광객에게 어떻게 인지될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Pizam et al.(1976)은 메사추세츠의 케이프코드를 여행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친절성, 해변, 비용, 식음료시설, 숙박시설, 캠핑시설, 해변상업지구, 자연경관 등의 8개 속성을 평가해 매력요소, 시설물, 기후 등이 관광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으로 분류하였고, Haathi(1986)는 관광지로서 핀란드의 경쟁우위를 연구하기위해 관광목적지를 선택하는 결

정인자와 관광지 속성에 대한 관광객의 지각과 선호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화폐가치, 접근성, 스포츠시설, 심야유희 및 위락,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하고 친근한 사람들 등 10개 관광지 선택속성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관광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관광지의 유인요소에 대해 Robinson(1976)은 관광자원의 경관, 위락시설, 역사·문화유적, 접근성, 숙박시설 등을 제시하였고, Burkart and Medilke(1981)는 여행목적지의 접근성, 매력성, 이미지, 시설유형 및 산업기반시설 등에 의하여 관광지 선택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Crawford·Godbey(1987), Tian, et al.(1996), Jackson(1983)의 연구에서 제시되는 여행지의 선택유인요인으로 산업기반시설(infrastructure),과 오락성(entertainment),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그리고 자연동식물관찰(wildlife viewing) 등으로 정리·제시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산업기반시설은 여행지의 주차시설, 교통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뿐만 아니라 방문객서비스, 안전성 등과 같은 무형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한다. 오락성은 실내·외의 휴양활동이나 문화적 체험, 먹거리의 즐거움 등을 포함하며, 물리적 환경에는 여행지 지역의 기후조건이나 휴식조건, 그리고 경관 등이 포함된다.

남아프리카 지역관광산업의 미래를 연구한 Ferrario(1986)는 흑인과 백인의 휴일을 연구하면서, 21개 관광지 속성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21개 관광지의 속성을 제시하였는데 연구결과 야생동물 관람, 자연경관, 열대식물, 쇼핑시설, 지역이벤트행사 등이 남아프리카를 찾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광 계획론에서 Inskip(1991)은 관광지의 매력성을 자연 매력성, 문화 매력성 및 특별 매력성으로 구분하고, 자연매력성은 기후, 경관미, 해변과 바다, 동·식물군으로, 문화매력성은 문화적 전통과 관습, 예술과 수공예품, 경제활동 등의 인간의 활동으로, 특별매력성은 주계곡원, 위락공원, 쇼핑, 각종회의, 특별이벤트 카지노 등의 인위적 편의시설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관광객의 선택의사 결정에서 선택 집단(choiceset)의 역할을 연구한 Crompton 등(1993)은 관광객을 욕구만족차원(관광지의 기후, 즐거움, 다양성, 행복감, 특별한 야외오락활동, 사람들과의 만남, 도전성, 후식, 매력적인 자연환경), 사회적 차원, 여행능력차원(금전, 건강, 시간, 안전)으로 구분하여 관광지속성에 대한 선호를 연구하였고, Goodrich(1997)는 국제여행의 혜택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택 할 때 자연경관, 지역주민 친절성, 숙박시설, 편의성, 휴식 및 긴장해소, 문화의 이해, 음식, 수상스포츠, 쇼핑시설, 유형, 골프 및

테니스 등의 속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였다.

곽노엽(1998)은 컨조인트분석 기법을 통하여 개별 관광객의 관광지 주요 속성에 대한 선호도를 실증분석 하였는데, 관광지의 속성으로 도출한 8개 속성의 예비조사 결과 저렴한 비용, 좋은 경치, 용이한 접근, 풍부한 볼거리, 적절한 숙박, 다양한 이용활동시설, 친절한 서비스, 다양한 먹거리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경하·문혜영·김홍범(2002)은 관광지 속성과 관광지 선택과의 관계에서 관광지 선택 행동은 관광지의 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매력성, 시설, 서비스, 접근성 등에 대하여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 여행시간, 여행비용 등의 판단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설매(2003)는 중국인의 관광지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택하는 속성과 만족에 대한 연구를 사전인지와 사후성과의 측정을 통해 분석하여 중국인 관광객의 선택속성에 따른 만족도는 각종 서비스, 자연경관, 국민의 친절성, 편의시설, 교통시설 편리성, 역사적 유물, 유적지, 휴식 및 휴양, 비용 등의 속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을 하나의 관광지로 보고, 자연휴양림의 선택속성을 도출하고 그 영향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연구는 우문호·주현식(2000), 김재준 등(2004)과 한상열 등(2000) 정도로, 자연휴양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우문호·주현식(2000)은 자연휴양림 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자연휴양림의 환경적 속성, 관광객의 속성, 그리고 이들 양자를 연계시켜 촉진 혹은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요인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자연휴양림의 환경적 속성은 관광지의 고유매력도, 관광지의 개발상태와 경영성격, 주변에 대체관광지의 기후, 날씨 등의 특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자연휴양림 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목적지 속성과 관광자 속성(동기 및 태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휴양림 선택결정 영향을 만족과 재방문의 측정으로 연구하였다.

<표 2-2> 관광지 선택속성 선행연구

학 자	관광지 선택속성 요인 및 변수
Mayo(1973)	혼잡도, 정치, 기후
Pizam et al.(1976)	매력요소, 시설물, 기후 등
Robinson(1976)	경관, 위락시설, 역사·문화유적, 접근성, 숙박시설 등
Var et al.(1977)	자연적 요소, 사회적 요소, 역사적 요소, 오락, 쇼핑시설, 부대시설, 시설, 음식
Ritchie, Zins (1978)	접근용이성, 관광객에 대한 태도, 부대시설, 물가수준, 스포츠, 오락시설, 쇼핑시설, 전통, 음악, 역사, 건축양식, 공예품, 오락활동, 예술, 언어, 일에 대한 태도, 복장, 교육, 종교
Gunn(1979)	관광자원의 독특성·매력성, 관광시설의 구비정도, 관광서비스 수준, 교통, 정보 및 촉진정도, 관광지의 관리
Burkart, Medilke (1981)	여행목적지의 접근성, 매력성, 이미지, 시설유형 및 산업기반시설 등
Ferrario(1986)	자연경관, 야생동물관람, 열대식물, 쇼핑시설, 지역이벤트행사
Crawford, Godbey (1987), Tian et al. (1996), Jackson (1983)	산업기반시설(주차시설, 교통, 방문객서비스, 안전성 등), 오락성(실내·외의 휴양활동이나 문화적 체험, 먹거리의 즐거움 등), 물리적 환경(여행지 지역의 기후조건이나 휴식조건, 그리고 경관 등), 자연동식물관찰
Haahti(1986)	화폐가치, 접근성, 스포츠시설, 심야유흥, 위락, 휴가, 지역시민들의 태도, 자연공원, 캠핑, 문화적 경험, 아름다운 풍경, 새로운 목적지
Murphy(1987)	관광자원의 매력성과 환대수준, 체험수준, 기반시설, 관광지의 접근성
Stabler(1988)	기후, 자연자원, 기반시설, 레크레이션 시설, 숙박시설, 레스토랑, 관광안내소, 쇼핑센터, 스포츠시설, 공원, 동물원, 오락시설, 역사적 특색, 극장, 콘서트홀, 화랑, 박물관, 건조물, 전람회, 페스티벌, 정치, 경제, 사회제도
Middleton(1988)	문화적/사회적/인공적 관광대상, 관광지내의 이용 가능한 시설 및 서비스, 관광지의 접근성, 여행수단, 운영요소(시간/비용)와 제약요소, 관광지의 이미지, 총 여행비용
McIntosh, Goeldner (1990)	관광지의 자연적/인공적/문화적 자원, 교통, 숙박시설, 관광서비스 지원시설, 관광지 마케팅 등

<표 계속>

학 자	관광지 선택속성 요인 및 변수
Inskoop(1991)	기후, 경치, 해변과 바다, 동식물군, 문화적 전통과 관습, 예술과 수공예품, 경제적 활동, 주제공원, 위락공원, 쇼핑, 각종 회의, 특별한 이벤트, 카지노
Crompton(1993)	기후, 즐거움, 다양성, 행복감, 특별한 야외 오락활동, 사람들과의 만남, 도전성, 휴식, 매력적인 자연환경, 금전, 건강, 안전
Goodrich(1997)	경치, 지역주민의 태도, 숙박시설, 휴식 및 긴장해소, 문화에 대한 흥미, 음식, 수상스포츠, 쇼핑시설, 유흥, 골프, 테니스
이애주(1988)	스포츠시설, 역사적 문화적 흥미, 경치, 주민의친절함, 휴식과 휴양, 쇼핑시설, 음식, 오락시설, 숙박시설
곽노엽(1998)	저렴한 비용, 좋은 경치, 용이한 접근, 풍부한 볼거리, 적절한 숙박, 다양한 이용활동시설, 친절함 서비스, 다양한 먹거리
서윤원(1999)	숙박시설의 요금, 서비스, 청결도, 식·음료시설의 요금, 맛, 청결도, 지역주민과 안내원의 환대성, 위락시설, 편의 시설, 스포츠, 휴양, 자연경관, 문화자원, 접근 용이성, 비용
권오주(2000)	자연경관, 수상 스포츠, 한국 국민의 친절, 교통시설, 육상 스포츠, 숙박시설, 역사적 유물·유적, 지역 민속행사, 축제, 기후, 쇼핑시설, 비용, 유흥, 오락시설, 한국의 지리적 위치, 휴식, 휴양, 음식
한상열 등(2000)	시설 및 문화재, 자연자원, 접근성 등
우문호·주현식(2000)	자연휴양림의 환경적 속성(관광지의 고유매력도, 관광지의 개발상태와 경영성격, 주변에 대체관광지의 기후, 날씨 등), 관광객의 속성, 그리고 이들 양자를 연계시켜 촉진 혹은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요인
이소환 (2001)	자연환경, 기후, 관광지의 정리정돈, 안전성, 교통수단의 다양성, 교통시설의 편리성과 효율성, 문화와 자연경관을 즐김, 감상과 참여의 공존, 주야간 관광서비스, 오감을 느낌, 쇼핑의 다양성, 고품질 제품구비, 다양한 음식메뉴, 좋은 음식맛, 좋은 호텔서비스, 호텔시설설비의 충분성, 시민들의 친절성, 서비스직원들의 친절성, 신기함, 관광비용 등
이경하·문혜영·김홍범(2002)	경치, 친절함 서비스, 숙박시설, 교통편리성, 관광지의 안전성, 기후, 교통비용, 식당시설, 문화재 및 축제, 쇼핑, 휴양시설, 유적 및 유물, 관광지로의 접근성, 유흥 및 스포츠 시설, 관광지의 유명도
최설매(2003)	서비스, 자연경관, 국민의 친절성, 편의시설, 교통시설 편리성, 역사적 유물, 유적지, 휴식 및 휴양, 비용 등
김재준 등(2004)	문화 및 자연자원, 접근성, 편의시설, 체력단련 및 저비용

자료 :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김재준 등(2004)이 국립공원, 도립·군립공원, 자연휴양림 및 도시림 등 대표적인 산림휴양공간을 중심으로 방문동기요인과 방문유인요인을 분석하여 방문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각각의 산림휴양공간별 방문특성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방문유인요인 즉, 선택속성은 문화 및 자연자원, 접근성, 편의시설, 체력단련 및 저비용으로 구분하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자연휴양림은 숙박 등 편의시설 및 조용함에 대한 유인점수가 매우 높고, 다양한 시설물 조성에 의한 욕구 충족 외에 자연학습 동기유발을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열 등(2000)은 산악형 국립공원의 선택속성을 자연자원, 문화재, 시설, 접근성으로 구분하고, 탐방객들의 동기요인과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이때 자연자원요인은 자연경관, 야생동식물, 자연교육, 휴식장소의 항목들로 구성하였고, 문화재는 문화유적, 시설은 위생시설, 관광정보와 안내판, 주차시설, 적절한 개발, 숙박시설을 세부항목으로 하였으며, 접근성에는 교통 편리성과 여행비용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관광지 속성은 관광객의 관광지 선택의 결정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수요요인,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시설적·정보적 공급요인, 그리고 관광지 주변지역의 지역·사회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이미지 측면, 서비스 측면, 시설 측면, 여행이 주는 혜택 측면, 교통 측면, 가치(가격)측면 등이 관광객이 방문할 관광지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광지 선택속성이란 관광객이 관광지의 편의시설, 환경여건과 비용, 인문자원, 행사, 자연경관, 편리성, 체험활동 등의 관광지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 요소들에 대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선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관광지의 선택속성이 무엇이며, 기대하고 지각하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관광지의 매력성을 높이는 개발계획을 세우고, 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관광지를 차별화 하는데 중요하다.

## 제 2 절 자연휴양림의 속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자연휴양림의 개념 및 분류

#### 1) 자연휴양림의 개념

일반적으로 자연휴양림이란 휴양활동을 할 수 있는 숲 또는 산림을 의미하는데(박봉우 등, 1998), 자원의 성격과 입지장소의 관점에서 볼 때 도시공원이나 유원지, 도시림과 다르게 구별되며, 산림 소유자의 산림경영의 개선과 자연보존 및 자연휴양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도립 공원 등의 자연공원과도 구별된다.

법제상으로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정 2005년 8월 4일, 법률 제 7676호)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을 말하는데, 그 지정 대상으로는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이 수려한 산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30헥타르 이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20헥타르 이상)인 산림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지평가조사결과 자연휴양림 조성의 적지로 평가된 산림이다.

그러므로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도시지역이나 도시근교 등의 이용자의 유치권이나 시간적·공간적 지리에 관계없이 자원이 갖는 휴양가치의 우수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녹지유형이라 할 수 있고, 이용자 지향형의 도시공원이나 유원지와는 대립적인 입지특성으로 이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의 제공을 위한 접근성이 전개됨으로 일반 산림이 갖는 폐쇄성보다는 다소 유연한 개방성을 갖는 중간형태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휴양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산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양덕희, 2007).

박봉우 등(1998)은 자연휴양림을 “신체적 혹은 정신적 안녕과 즐거움을 기본 목적으로 하여 자연적 배경을 특징으로 한 상대적으로 비도시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야외에서의 여가 활동 가운데 특히 즐거움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산림 환경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가시간 활동(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 1962)으로 정의되는 산림

휴양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휴양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변우혁 등(1991)은 자연휴양림을 구성하는 자연, 휴양, 산림의 세 부분 중, 자연과 산림은 기존의 거의 모든 공원과도 관계되는 것이지만 ‘휴양’이란 어휘는 자연휴양림만의 특징이라 하였다.

산림휴양이란 용어는 영어권(앵글로-아메리칸)에서 사용하는 ‘Forest Recreation’을 번역한 것으로, ‘숲에서 행해지는 경관 중심적인 야외 휴양의 형태’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는 산책, 등산, 심신의 휴식, 자연체험과 관찰 그리고 놀이와 소풍이며 Jacsmann(1990)는 여기에 스포츠를 첨가하였다.

산림이 휴양으로서 매력을 갖는 이유로, Crowe(1973)는 첫째,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고, 둘째, 경관적 다양성과 아름다움, 셋째, 혼잡함을 흡수할 수 있는 산림의 특성 등을 들고 있다. 즉, 산림휴양이란 숲에 머물면서 심신에 유익한 숲의 여러 가지 혜택으로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행위를 뜻한다(박종성, 2001).

이상의 정의를 종합하면, 자연휴양림은 산림의 생태계를 유지·보존하면서 임산물과 공익재의 생산기능을 수행하고 동시에 질서 있는 개발을 통하여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 그리고 산림소유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림이라고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양덕희, 2007)

이상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의를 분석하여 자연휴양림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요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이란 산림의 특성상 자연 지향적이고, 산림 기능적 측면에서 복합적 공공 휴양공간임과 동시에 자연관찰 및 자연교육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산림 생산 기능과 산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관광지로서의 자연휴양림의 개념 및 분류

관광지로서의 자연휴양림의 개념정립에 앞서, 자연휴양림은 관광자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관광자원이란 관광자의 관광동기나 관광행동을 유발하게끔 매력과 유인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유형·무형의 소재와 관광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요소인데, 보전·보호가 필요하고, 관광자원이 지닌 가치는 관광객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비소모성과 비이동성을 가진 자원이다(박석희, 2002).

자연휴양림은 매력성과 유인성을 가진 산림과 계곡 등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관광

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유·무형의 소재와 관광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의 시설, 숙박시설 등의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여가·관광행태의 변화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가치도 재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전·보호가 필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자연휴양림은 관광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장춘(1974)의 관광자원의 분류기준으로는 유형 관광자원이자 자연관광자원으로, Clawson(1960)의 관광자원 분류기준(이용자중심지역, 중간형지역, 자원중심형지역)으로 보았을 때 자원중심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하경량, 2003).

앞에서 관광지의 개념을 살펴보았듯이, 관광지란 관광객이 일상생활 공간을 떠나서 자신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일정시간동안 체류하는 지역으로서, 자연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그리고 관광시설자원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이상이 있는 곳이다(박석희, 2002). 또한 이들 관광자원의 이용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인공적 이용시설 즉, 관련 편의 시설, 숙박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야 할 지역이며(권용우 등, 1995), 관광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지역공간이다.

하경량(2003)은 이러한 관광지의 성격과 자연휴양림을 비교하여 관광지로서의 자연휴양림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광지의 유형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은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휴양공간임과 동시에 일상을 떠나서 체재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자연자원과 인공시설물이 설치된 일정 공간으로서 관광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관광지 분류의 측면에서 보면 자연휴양림은 자원의 구성형태 측면에서 자원의존형 관광지라고 할 수 있으며, 관광자원의 특성 측면에서는 자연관광지이다(정석중 등, 1999). 그리고 질적 분류의 측면에서는 도시 근교의 일반 레크레이션 지역임과 동시에 자연환경지역에 해당된다.

Clawson 등(1966)은 야외휴양지역을 이용자 중심지역(user oriented area), 중간형 지역(intermediates area), 자원중심지역(resource based area)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따라 일반적인 위치, 주요활동, 이용시기, 지역의 크기 및 관리 등에 차이가 있음을 구별하고 이들 지역에 따라 휴양수요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Clawson의 분류기준으로 공간 입지적 특성에 입각하여 분류할 때, 대도시 근교 휴양림은 이용자 중심형에 가깝고 도시원교 휴양림은 관광과 위락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간형이나 관광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자원 중심형에 가깝다.

또한, 자연지리적 입지 유형의 측면에서는 내륙·산악형 관광지에 해당되는데, 접근시간과 이용시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접근시간은 일반적으로 3시간 이내 관광지에 해당되며, 이

용시간은 대개 연휴 범위 내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용객의 활동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휴양형에 가깝고 활동특성 측면에서는 체재형에 해당되며 활동기간의 관점에서는 1계절형에서 4계절형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여가시간 측면에서는 공휴일형 혹은 연휴형에 해당되고 소비요소 측면에서는 시간소비형에 가까우며 활동단위 관점에서는 개인형임과 동시에 그룹형에도 해당된다(하경량, 2003).

이렇듯 자연휴양림은 방문객들이 자연적이고 비도시적인 환경에서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고 건강증진과 치유 등의 심신단련 활동을 꾀하며 생태환경 속에서의 교육적 기능을 포함하는 창조적 활동과 심리적 만족 및 즐거움을 목적으로 옥외 레크레이션을 행할 수 있도록 일반에 개방되는 산림이다.

어의적으로 분석하면, 쉬면서 정서를 함양하는 숲을 의미하는데, 이는 관광객들에게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일체의 육체적, 정신적 휴식과 건강의 유지, 향상, 치유 및 문화적 교양, 그리고 행락활동을 통한 여가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 숲을 의미하는 관광지인 것이다(고재용, 1994).

## 2. 자연휴양림의 속성

고동우(1998)와 문성중(2006)은 관광지 속성이론이란 관광지를 하나의 상품으로 파악하여 관광지가 지니고 있는 개별속성을 경험적으로 분류하여 각 요소별로 기대나 선호도, 혹은 만족도 등을 측정함으로써 하나의 관광지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휴양림에 관한 수많은 연구 중 만족도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들이 도출한 자연휴양림의 속성을 살펴볼 수 있다.

자연휴양림 관광객의 만족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산림·생태환경, 시설 이용성, 운영관리, 목적지까지의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만족도를 고찰하고 있다.

생태환경요소는 산림, 물·계곡, 야생 환경, 기후 등의 생태적 요소이고, 시설여건은 숙박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설여건은 자연휴양림의 이용객의 만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설관련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진향선·강건우(1996)는 국공유자연휴양림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의 초점을 이용객 방문동기에 맞추어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시설물 21개(산림욕장, 통나무집, 야영장, 벤치·야외탁자, 놀이시설, 산책로, 교육자료관, 물놀이장 잔디광장, 임관학교, 자연관찰원, 약수터, 휴양림내 도로, 안내시설, 주차장, 체력단련장, 급배수시설, 취사장, 쓰레기처리장, 화장실, 수종표시팻말, 캠프화이어장 등)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와 이용행태(교통수단, 교통비, 식비, 숙박비, 동반자 유형, 체재기간, 이용횟수, 재방문의사, 이용계절, 주로 이루어진 휴양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를 조사하였고, 조주형(1995)은 유명산과 중미산, 만인산 휴양림을 대상으로 접근성, 산림상태, 시설(편익·체육·위생·교육), 운영관리 등의 측면에서 도시근교형 자연휴양림의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철우 등(1998)은 통고산 휴양림을 대상으로 이용객 속성과 행태적 특성을 동기, 참여형태, 접근형태, 휴양활동 및 시설이용형태, 체재형태 등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만족도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2-3> 자연휴양림 속성

학 자	자연휴양림 속성
조주형(1995)	접근성, 산림상태, 시설(편익·체육·위생·교육), 운영관리 등
진향선·강건우(1996)	이용객의 시설물 21개(산림욕장, 통나무집, 야영장, 벤치·야외탁자, 놀이시설, 산책로, 교육자료관, 물놀이장 잔디광장, 임관학교, 자연관찰원, 약수터, 휴양림내 도로, 안내시설, 주차장, 체력단련장, 급배수시설, 취사장, 쓰레기처리장, 화장실, 수종표시팻말, 캠프화이어장 등)
이철우 등(1998)	용객 속성과 행태적 특성(동기, 참여형태, 접근형태, 휴양활동 및 시설 이용형태, 체재형태 등)
장병문(2000)	자연휴양림의 물리적 자원(폭포, 바위, 산봉우리, 계곡, 절벽, 지형의 다양성과 동굴, 물의 양, 수질, 유속, 하천의 깊이, 하천 바닥의 폭, 수변이용가능 면적 등), 생물적 자원(동물·식물의 종류, 상태, 원시성, 희귀성 등), 사회·문화적 자원(사찰, 명승, 사적,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각종 트산품 등), 이용자 흥미자원(독특한 전망, 부조화, 지형과 지세의 조화, 기상요소, 인공적인 소음과 자연적인 소리, 향기 등)
박종성(2001)	개발여건(면적, 토지이용현황, 주변 역사자원 및 관광자원과의 접근성,

	특산물 유무 등)과 물리적 환경(지형 및 기후조건, 수(水)자원현황, 야생 동·식물 등), 이용체계(접근성, 대중교통편의성, 홍보, 안내체계, 프로그램의 다양성, 서비스, 안정성, 주차장 등)
서주환·최현상· 진형석(2003)	시설물, 관리 및 이용체계, 자연환경
하경량(2003), 서철현 등(2003)	자연 및 사회적여건(물과 계곡, 한적한 분위기, 위생시설, 잘 보전된 생태환경, 시설물 관리상태, 산림의 아름다움, 산림의 울창함, 수려한 풍광, 숙박시설, 시설물과 자연의 조화, 편의시설, 방문을 위한 접근성, 안내시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정보취득의 용이성, 체육놀이시설, 프로그램 운용실태, 산악활동 적합성, 교육시설)

자료 :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이 외에도 자연휴양림의 이용객 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장병문(2000)은 자연휴양림의 물리적 자원(폭포, 바위, 산봉우리, 계곡, 절벽, 지형의 다양성과 동굴, 물의 양, 수질, 유속, 하천의 깊이, 하천 바닥의 폭, 수변이용가능 면적 등), 생물적 자원(동·식물의 종류, 상태, 원시성, 희귀성 등), 사회·문화적 자원(사찰, 명승, 사적,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각종 트산품 등), 이용자 흥미자원(독특한 전망, 부조화, 지형과 지세의 조화, 기상요소, 인공적인 소음과 자연적인 소리, 향기 등) 등의 휴양자원이 이용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만족도의 증대를 위해서는 휴양림 조성에 있어서 시설물의 설치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서주환 등(2003)은 도시근교형 자연휴양림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 연구에서 전체이용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시설물, 관리 및 이용체계, 자연환경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자연휴양림을 유형화시키고 휴양림 유형에 따라 만족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이용자 평가에 기초하여 분석한 연구에서 박종성(2001)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발여건(면적, 토지이용현황, 주변 역사자원 및 관광자원과의 접근성, 특산물 유무 등)과 물리적 환경(지형 및 기후조건, 수(水)자원현황, 야생 동·식물 등), 이용체계(접근성, 대중교통편의성, 홍보, 안내체계, 프로그램의 다양성, 서비스, 안정성, 주차장 등)의 속성에 대해 중요도를 조사한 후 같은 속성에 대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하경량(2003)의 자연휴양림의 이용행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휴양림 이용객들의

재방문의사가 전체의 80% 정도로 높고, 자연휴양림의 산림, 물, 계곡 등 생태적 요소와 숙박 및 위생시설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서철현 등(2003)은 하경량(2003)이 도출한 속성을 활용하여 중요도-성취도 기법을 중심으로 자연 및 사회적 여건에 따른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1사분면-4사분면까지의 이용별 특징을 기술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연휴양림은 매력성과 유인성을 가진 산림과 계곡 등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유·무형의 소재와 관광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의시설, 숙박시설 등의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유·무형자원과 방문객을 연결시켜주는 이용체계 등의 사회적 여건이 뒷받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요소를 자연휴양림의 속성으로 볼 수 있다.



### 제 3 절 자연휴양림에 관한 선행연구

자연휴양림에 관한 국내연구는 1970년대 초부터 임업의 한 분야로 산림휴양이 자리 잡기 시작하며 1980년 이후 야외휴양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히 진행되었다(공영호, 2004). 초기에는 이용객이 많은 국립공원, 수도권, 주변 도시림의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지역외의 자연휴양림을 포함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을 주제별로 구분해보면 이용객의 선호도와 행태특성 및 만족도, 산림의 가치와 기능, 조성과 계획방안, 운영관리, 유형구분, 휴양자원 및 관광자원, 수요예측, 시설개발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과 방향에 맞추어 자연휴양림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와 조성방안 및 운영, 관광자원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자연휴양림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행태에 관한 연구는 수요자 측면에 관한 연구로서 자연휴양림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철우 등(1998)은 통고산 휴양림을 대상으로 이용객 속성과 행태적 특성을 동기, 참여형태, 접근형태, 휴양활동 및 시설이용형태, 체재형태 등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만족도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개발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종락·김상윤(2001)은 수도권의 도시근교형 휴양림(유명산, 중미산, 축령산)에 대한 이용특성과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인식을 분석, 검토하여 자연휴양림의 입지적 특성 및 이용특성, 이용객의 산림체험 요구도 등을 기초로 산림분야 프로그램 및 운영체계의 개발이 필요함을 연구하였다.

주현식·여호근(2000)은 부산, 경남지역 휴양림 8곳의 설문을 토대로 자연휴양림 방문동기가 관광지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상생활의 변화추구, 자연감상 및 일탈성에 대한 가설검증을 하여 53.2%의 설명력을 얻었고, 연평식·신원섭(2001)은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의 방문동기에 대한 차이점을 요인분석하여 방문동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하경량(2003)의 연구에서 자연휴양림의 이용형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휴양림 이용객들의 재방문의사가 전체의 80% 정도로 높고, 자연휴양림의 산림, 물, 계곡 등 생

태적 요소와 숙박 및 위생시설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서주환 등(2003)은 도시근교형 자연휴양림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 연구에서 전체이용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시설물, 관리 및 이용체계, 자연환경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박문수 등(2002)은 자연휴양림의 이용실태분석을 통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시기의 편중으로 인한 이용객의 분산대책이 필요함을 고찰하였고, 숲 해설 프로그램도입 등으로 이용 효율성을 증진해야함을 주장하였다.

<표 2-4> 자연휴양림의 이용행태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이철우 등(1998)	통고산 휴양림을 대상으로 이용객 속성과 행태적 특성을 동기, 참여형태, 접근형태, 휴양활동 및 시설이용형태, 체재형태 등의 측면을 고찰함.
우문호 · 주현식 (2000)	자연휴양림 선택행동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변화추구, 자연탐구, 긴장과 피로해소, 조용한 시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방문동기와 태도를 통한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연구함.
주현식, 여호근 (2000)	부산, 경남지역 휴양림 8곳을 토대로 일상생활의 변화추구, 자연감상 및 일탈성 등의 방문동기가 관광지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이종락 · 김상윤 (2001)	수도권의 도시근교형 휴양림에 대한 이용특성과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인식을 분석, 검토하여 자연휴양림의 입지적 특성 및 이용특성, 이용객의 산림 체험 요구도 등을 도출함.
연평식 · 신원섭 (2001)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의 방문동기에 대한 차이점을 요인분석하여 방문동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보고함.
하경량(2003)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자연휴양림의 산림, 물, 계곡 등 생태적 요소와 숙박 및 위생시설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힘.
서주환 등(2003)	도시근교형 자연휴양림의 전체이용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시설물, 관리 및 이용체계, 자연환경의 순으로 정리함.
박문수 · 안기완 · 전경수 · 박종민 (2002)	자연휴양림의 이용실태분석을 통하여 이용객 이용시기의 분산대책이 필요함을 고찰하였고, 숲 해설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이용 효율성을 증진해야함을 주장함.

자료 :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 2. 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운영을 둘러싼 문제는 자연휴양림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이다.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연구는 먼저 입지특성과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하드웨어적인 연구와, 운영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김의경·박명규(1990)는 용추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휴양시설의 조성실태, 일반개황, 휴양림내 소유구조 및 이용실태, 휴양림개발에 따른 외부효과 등을 분석하여 자연휴양림은 국공유림이나 사유림 등의 소유구분에 관계없이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주진순(1991)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조성관리 방안을 위해 조성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면서, 산림행정기구의 대폭저건 개편, 휴양시설물 종류의 다양화, 휴양림 조성예산의 증액 및 지역완결주의로 휴양림 조성방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사유림 소유자가 휴양림 조성사업에 적극 가담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자금의 조달을 위한 장기적인 조건의 융자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최관(1991)은 우리나라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제도와 사유림의 상태를 고찰하고 사유림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자연휴양림의 확대조성을 꾀하였다.

변우혁(1992)은 자연휴양림 조성 및 이용현황을 고찰하고, 자연휴양림의 성격과 목적에 근거하여 다목적 산림경영의 수행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개념에 충실한 조성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자연휴양림 개발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자연휴양림 개발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김주미(1992)는 당시 자연휴양림 지정지역인 안면도를 대상으로 기존 자연휴양림이 갖는 휴양시설과 다양한 해안지역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설계하였고, 그 동안 국유 자연휴양림 대부분이 지역특성과 관계없이 설치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조성되었음을 고찰하였고, 김세천(1993)은 자연휴양림의 수요·공급전망과 이용현황을 검토하여 자연휴양림의 관리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선형(1993)은 사유휴양림의 개발여건을 입지적·경제적·사회심리적·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기존 국·공유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개선책으로서의 사유림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았는데, 류돈상(1993)은 자연휴양림이 초기단계에서 미흡한 법률제도와 비체

계적인 조성계획으로 일관되면서 휴양림 이용률이 미흡한 것을 제시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계획의 토대가 되는 휴양림 조성방안, 시설과 이용현황의 문제점을 통계자료와 문헌조사를 이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휴양림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고재용(1994)은 자연휴양림이 관광지로서 성립되기 위한 지표로 매력성과 쾌적성, 지역사회적 여건, 시장성, 교통요인, 외부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형민(1994)은 청태산·대관령·유명산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하여 이용객 속성과 이용행태, 희망하는 휴양림 개발방향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기초성되어 운영중인 자연휴양림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봉주(1994)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한 연구에서 동국대학교 윤길산 연습림을 대상지역으로 정하여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이용실태 및 타당성 등의 조사를 통하여 자연휴양림으로의 개발가능성이 있는가를 고찰하였고, 박시영(1995)은 자연휴양림 조성시 환경파괴와 오염문제, 관리운영상의 프로그램미비와 법적 제약에 의한 도입시설의 한계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특히 개선방안으로 휴양림 입지특성 및 이용의 대소에 따라 개발유형을 구분, 특성 있는 자연휴양림을 개발하고 이용계정, 계층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다계층, 다계절 이용을 모색하는 방향을 주장하였으며, 유리화(1996)는 자연휴양림의 소유주체 중 사유휴양림을 대상으로 개념과 역할, 사유휴양림 조성자의 의식과 조성에 관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함. 이 연구에서 사유휴양림이 국·공유 휴양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것을 대비한 사유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선희(1997)는 일본을 사례로 자연휴양림의 개발현황과 우리나라의 개발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대안적인 합리적 개발육성방안을 제안하였고, 2000년에는 죽령산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개념을 휴양림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관광객과 환경관리, 지역사회의 발전 측면에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박봉우·이주희(1999) 또한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의 생태교육장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을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생태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 둘째, 야생동물을 포함한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유지와 배양을 위한 시설과 관리방안, 셋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특성에 관한 검토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표 2-5> 조성계획과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김의경·박명규 (1990)	용추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휴양시설의 조성실태, 일반개황, 휴양림내 소유구조 및 이용실태, 휴양림개발에 따른 외부효과 등을 분석함.
주진순(1991)	산림행정기구의 대폭적인 개편, 휴양시설물 종류의 다양화, 휴양림 조성예산의 증액 및 지역완결주의로 휴양림 조성방침, 사유림 소유자가 휴양림 조성사업에 적극 가담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자금의 조달을 위한 장기적인 조건의 용자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최 관(1991)	우리나라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제도와 사유림의 상태를 고찰하고 사유림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변우혁(1992)	자연휴양림의 성격과 목적에 근거하여 자연휴양림 개념에 충실한 조성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자연휴양림 개발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자연휴양림 개발방향을 제시함.
김주미(1992)	안면도를 대상으로 기존 자연휴양림이 갖는 휴양시설과 다양한 해안 지역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휴양림 기본계획을 설계하였음.
김세천(1993)	자연휴양림의 수요·공급전망과 이용현황을 검토하여 자연휴양림의 관리개선방향을 제시함.
주선형(1993)	사유휴양림의 개발여건을 입지적·경제적·사회심리적·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기존 국·공유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개선책으로서의 사유림의 발전방향을 모색함.
류돈상(1993)	자연휴양림이 초기단계에서 미흡한 법률제도와 비체계적인 조성계획으로 일관되면서 휴양림 이용률이 미흡한 것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김봉주(1994)	동국대학교 운길산 연습림을 대상지역으로 정하여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이용실태 및 타당성 등의 조사를 통하여 자연휴양림으로의 개발가능성이 있는가를 고찰함.
이형민(1994)	기조성되어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할 방안을 제시함.
고재용(1994)	휴양림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자연휴양림이 관광지로서 성립되기 위한 지표로 매력성과 쾌적성, 지역사회적 여건, 시장성, 교통요인, 외부정책을 제시함.

<표계속>

연구자	연구내용
박시영(1995)	자연휴양림 조성시 환경파괴와 오염문제, 관리운영상의 프로그램미비와 법적 제약에 의한 도입시설의 한계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특성 있는 자연휴양림을 개발하고 이용계정, 계층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다계층, 다계절 이용을 모색하는 방향을 주장함.
유리화(1996)	사유휴양림을 대상으로 개념과 역할, 사유휴양림 조성자의 의식과 조성에 관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함.
박선희(1997)	일본을 사례로 자연휴양림의 개발현황과 우리나라의 개발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대안적인 합리적 개발육성방안을 제안함.
박선희(2000)	죽령산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개념을 휴양림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관광객과 환경관리, 지역사회의 발전 측면에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제시함.
박봉우 · 이주희(1999)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의 생태교육장 활용방안으로 야생동물을 포함한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유지와 배양을 위한 시설과 관리방안,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특성에 관한 검토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함.

자료 :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 3. 자연휴양림의 관광자원에 관한 연구

관광자원으로서 자연휴양림을 규명해본 바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은 그 자체로 관광자원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휴양림의 관광자원에 대한 연구는 공급자 측면의 연구로 볼 수 있다(하경량, 2003).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중은·양덕희(2000)는 자연휴양림의 유형에 따라 관광자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장병문 등(2002)은 공공 휴양림과 민간 휴양림 측면에서 휴양 자원의 차이를 분석하여 휴양림의 조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정희(2000)는 개발주체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과정과 시설물 조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효율적으로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정윤수(1997)는 조령산 휴양림 지역을 대상지로 하여 산림식생 분포를 분석하는 등 자연휴양림의 자원 특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표 2-6> 자연휴양림의 관광자원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정윤수(1997)	조령산 휴양림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산림식생 분포를 분석
김종은·양덕희 (2000)	자연휴양림의 유형에 따라 관광자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함.
서정희(2000)	개발주체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과정과 시설물 조성의 차이를 분석
장병문·배민기 (2002)	공공 휴양림과 민간 휴양림 측면에서 휴양 자원의 차이를 분석하여 휴양림의 조성 방향을 제시함.
이창현(2001)	와룡자연휴양림과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이용객의 휴양만족도를 이용객의 이용전 기대도와 이용 후 성취도의 관계로 비교하였음.
윤지환·김수진 (2003)	유명산, 청태산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e-mail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시설의 청결성과 관리자의 친절성이 중요함을 밝힘.
이창현 등(2004)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경험자들의 숙박시설 건축 재료의 다양화에 대한 전, 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양화 전과 후의 비율변화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건강과 추억의 회소성으로 인한 선택의 변화로 보고함.

자료 :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자연휴양림의 대표적인 관광시설자원인 숙박시설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자의 휴양만족도에 관하여 연구한 이창현(2001), 유명산, 청태산의 숙박시설 이용객의 행태를 분석한 윤지환·김수진(2003), 이용객이 선호하는 숙박시설의 행태를 연구한 이창현 등(2004)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렇듯 지금까지 연구된 자연휴양림의 관광자원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산림과 시설관련 연구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는 문제점이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선택속성요인과 자연휴양림의 속성과 자원요소, 자연휴양림 및 산림휴양공간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자연휴양림의 선택속성을 도출해보면, 공급요인으로서의 문화 및 자연자원, 시설물, 체험활동, 접근성, 편리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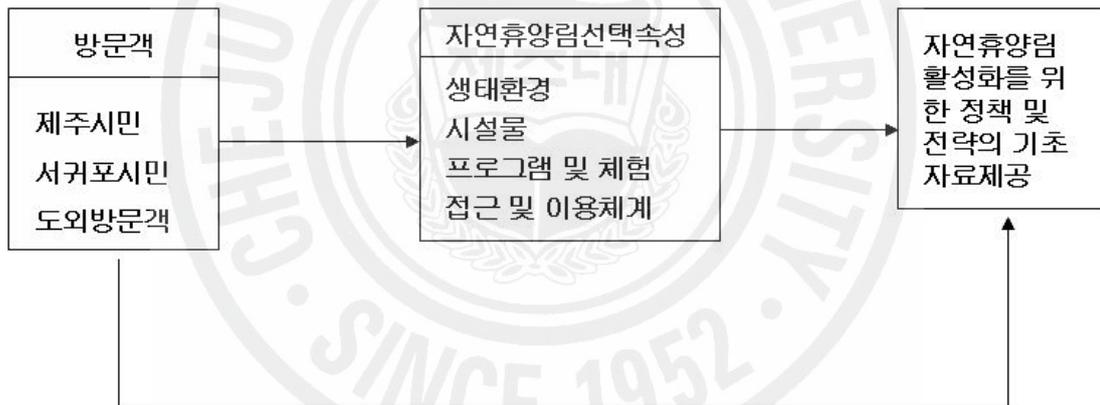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도출된 자연휴양림의 공급요인으로서의 선택속성요인들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 3 장 연구설계와 분석방법

#### 제 1 절 측정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전개된 연구의 이론적 개념모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방문 시 영향을 미치는 선택속성과 관련된다고 간주되는 일단의 변수 및 그들 사이의 관계경로를 단순화 및 도식화 한 분석체계이다.



[그림 3-1] 조사의 틀

## 제 2 절 설문지 구성과 측정

### 1. 설문지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응답자의 관광활동특성 8개 문항, 자연휴양림 관련 선택속성 항목 22개 문항,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우선순위 관련 3개 문항, 자연휴양림 방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매력적요소와 개선방안과 관련된 주관식 2개 문항,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1개 문항으로 작성되어졌으며,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지의 주요 항목별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지 구성내용

내 용		문항수	척 도
선택속성	생태·환경 시설물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접근 및 이용체계	22	서열 척도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3	서열 척도
자연휴양림 방문에서 가장 매력적인 요소		2	서술식
자연휴양림 개선방안			
관광활동특성		8	명목 척도
인구통계학적특성		6	명목 척도

설문지는 관광분야 전문가집단(교수, 관광학 박사과정 수료자 및 박사과정) 6인과 자연휴양림 관련 담당자에게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와의 적합성, 조사대상지 및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지설계와 설문항목, 내용구성이 적합한지에 대한 2차례의 의견수렴 과정과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최초 설문구성에서 중복되고 내용상 이해가 어렵거나 혼란이 예상되는 문항을 삭제 및 수정 보완하였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구화된 설문지를 완성하고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연구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변수를 참고한 문헌에 대하여 <표 3-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3-2> 조작적 정의와 측정변수의 참고

측정항목 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생태·환경(6)	산림경관	하경량(2003), 한상열 등(2000)
	한적한 분위기	하경량(2003)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김재준 등(2004), 한상열 등(2000)
	수공간(연못, 약수터)	김재준 등(2004)
	환경의 쾌적	우문호·주현식(2000)
	시설자연과의 조화	하경량(2003)
시설물(6)	숙박시설	김재준 등(2004), 광노엽(1998), 한상열 등(2000), 하경량(2003)
	편의시설	김재준 등(2004), 하경량(2003)
	교육시설	하경량(2003)
	산책로(등산로)	김재준 등(2004)
	휴식시설	한상열 등(2000)
	체육·놀이시설	하경량(2003)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5)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하경량(2003), 우문호·주현식(2000)
	취미활동	하경량(2003)
	삼림욕활동	하경량(2003)
	자연학습	우문호·주현식(2000), 한상열 등(2000), 김재준(2004)
	자연경관감상	우문호·주현식(2000), 김재준(2004)
접근 및 이용체계(5)	교통의 편리성	하경량(2003), 한상열 등(2000), 김재준 등(2004)
	인근 관광지거리	박종성(2001)
	정보취득의 용이성	하경량(2003), 한상열 등(2000), 김재준 등(2004)
	안내체계	하경량(2003), 한상열 등(2000), 김재준 등(2004)
	숙박 등의 예약체계	서주환 등(2003)

### 1) 생태·환경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생태·환경이란 야생상태, 자연환경상태와 관광지의 쾌적성, 수려한 산림공간, 맑은 물, 쾌적한 환경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자연휴양림 경관 및 자연환경에 대해 방문객이 느끼는 정도라 정의하였고, 하경량(2003), 한상열 등(2000), 김재준 등(2004), 우문호·주현식(2000)의 연구에서 내용을 참고하였다.

### 2) 시설물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자연휴양림 시설은 자연휴양림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통나무집, 야영장, 오토캠핑장 등을 숙박시설로 정의하고,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을 편의시설로 정의하였으며, 자연학습장, 전시관등을 교육시설이라 하였으며, 벤치, 야외평상등을 휴식시설이라 정의하였고, 체력 단련장, 소규모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체육·놀이시설이라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곽노엽(1998), 한상열 등(2000), 하경량(2003), 김재준 등(2004)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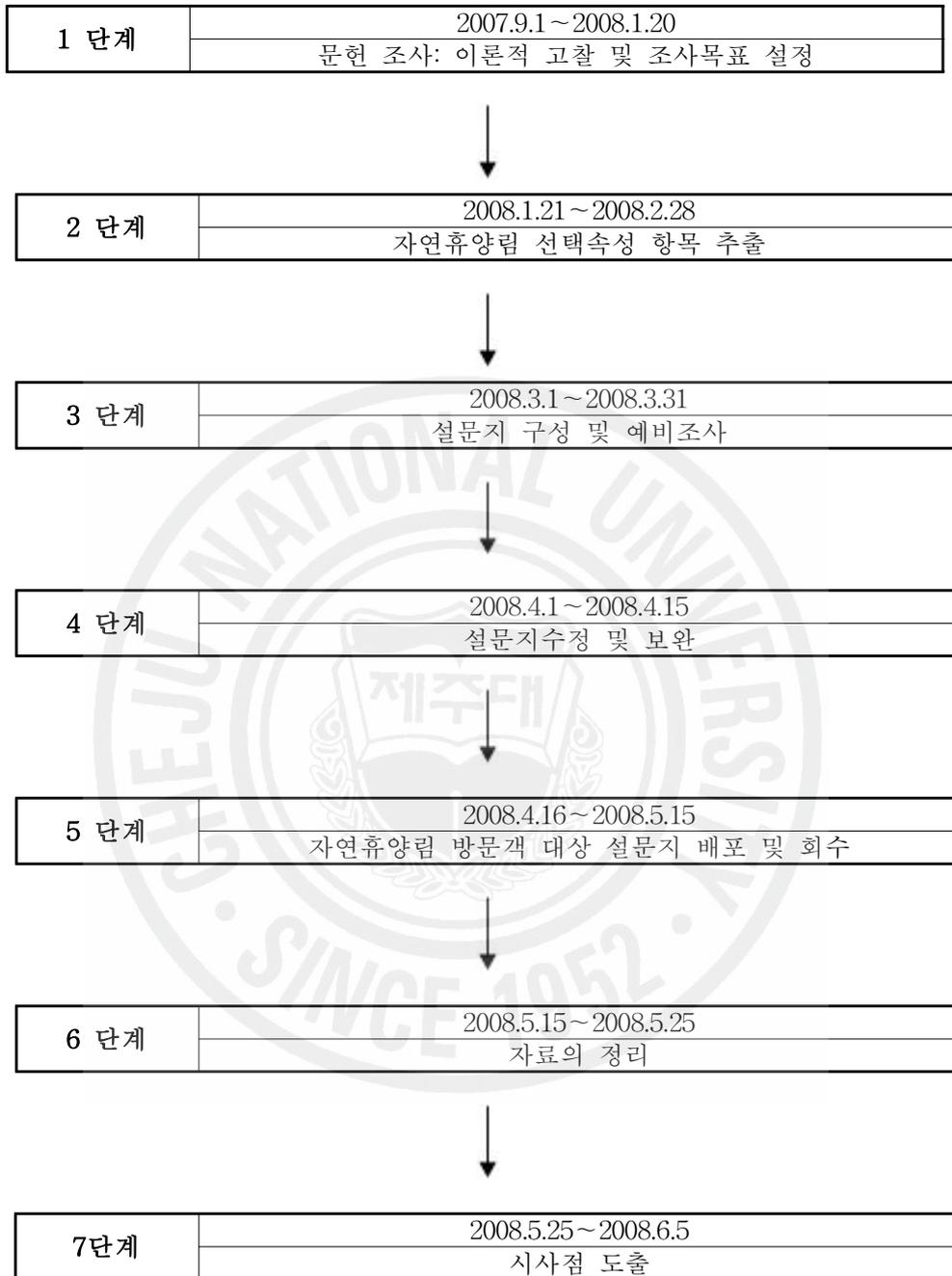
### 3)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자하는 자연휴양림 관련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은 자연휴양림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레저·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하여 학습·탐방·감상 등 주로 체험위주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선행연구로는 하경량(2003), 한상열 등(2000), 김재준 등(2004), 우문호·주현식(2000)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 4) 접근 및 이용체계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자하는 자연휴양림 관련 접근 및 이용체계에 대하여 접근성은 관광객의 출발지에서 관광지입구까지, 관광지와 관광지의 이동·접근과 관련된 요소로서 교통, 안내판(이정표)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편리성으로 정의하였고, 이용체계는 관광지에서 이용하는 요소와 관련된 것으로 관광지 내부의 편리성이나 내부 안내판의 유용성 및 예약의 편리성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선행연구로는 하경량(2003), 한상열 등(2000), 김재준 등(2004), 박종성(2001), 서주환 등(2003)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 3. 조사단계



[그림 3-2] 연구기간 및 내용

조사단계는 크게 7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단계는 2007년 9월 1일부터 2008년 1월 20일까지 문헌조사를 통하여 자연휴양림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조사목표를 설정 하였으며, 2단계는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연휴양림 선택속성항목을 추출하였다.

3단계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설문지구성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용어선택의 적정성, 응답의 범주구성, 질문 문항의 배열 등 설문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4단계는 예비조사의 자료 검토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본 조사에 사용한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5단계는 2008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절물 및 서귀포 자연휴양림에서 시행되었으며, 요일에 따른 이용계층의 편의(bias)를 방지하기 위해 주중, 주말에 걸쳐 조사되었다.

6단계는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자료의 정리를 하고 7단계는 2006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분석결과를 가지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4. 표본의 추출과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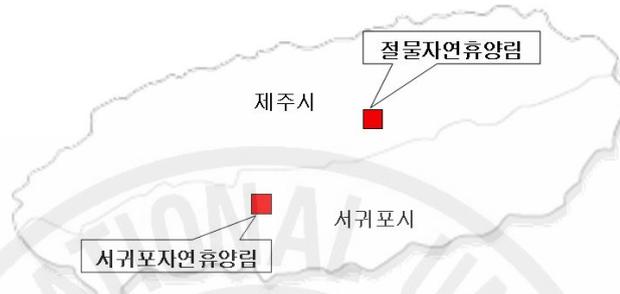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과학적 조사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자료는 다음과 같은 조사설계에 의해서 수집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모집단은 자연휴양림을 방문하고 자신의 본 거주지로 돌아가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설문조사에 임하는 조사원은 설문지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조사 시점은 2008년 4월 16일부터 5월 15까지 총 30일간 절물자연휴양림 및 서귀포자연휴양림 출구에서 자연휴양림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하여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60부 중 342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부실하거나 편향성을 보이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15부를 제외한 최종 327부를 확정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 제 3 절 연구대상지 현황



[그림 3-3] 연구대상지 위치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 조성되어 운영 중인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으로 하였다. 이 2개소 대상지의 위치, 면적, 수용인원, 개장연도, 관리주체, 주요시설과 연계관광자원 등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3-3>와 같다.

<표 3-3> 연구대상 자연휴양림의 개요

구 분	절물 자연휴양림	서귀포 자연휴양림
위 치	제주시 봉개동	서귀포시 대포동
면적(ha)	300ha(천연림100ha, 인공림200ha)	255ha(765천평)
고도(m)	해발 600~800m	해발 650m
수용인원	1,500명/일	2,000명/일
개장연도	1997. 7. 23	1995. 3. 21

<표 계속>

구 분	절물 자연휴양림	서귀포 자연휴양림
관리주체	제주시 환경교통국 절물휴양생태관리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주요시설	숲속의집(20,15,10,8,5평형) 16실, 숲속수련장50인용(25/실) 1개소(2실), 야영테크, 야영장, 약수터, 주차장, 매점, 편의시설, 등산로(2km), 산책로(3km), 전망대(12평형 1개소), 취사장(12평형 4개소), 민속놀이시설, 운동시설, 놀이터, 연못, 수련장, 숲속의 문고 등	산책로(생태탐방로, 건강산책로), 등산로(법정악전망대), 순환도로(3.8km), 숲속의 집 4동(7실), 산림휴양관 2동(15실), 가족야영장, 매점, 음식점, 전망대, 탐방객센터, 산림욕장, 잔디광장, 족구장, 옹달샘, 배구장,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2곳), 정자, 체력 단련시설, 캠프파이어장, 취사장, 오토캠프장 등
연계관광자원	산굼부리, 코끼리랜드, 제주 미니미니랜드 테마공원, 교래마을 [농촌체험], 도깨비공원 테마공원, 돌문화공원, 명도암관광휴양목장 등	고근산, 한라산 영실 (국립공원), 영도폭포 등
연간 방문객수 (2007년)	396,506 명	54,478 명

### 1. 절물 자연휴양림 현황

제주 절물 자연휴양림은 제주시 봉개동 명림로 55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7년 7월 23일 개장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절물 자연휴양림은 제주시에서 20~30분 거리 내에 위치하므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편이며, 총면적은 300ha, 수용인원은 일 최대 2,000명, 관리주체는 제주시 환경교통국 절물휴양생태관리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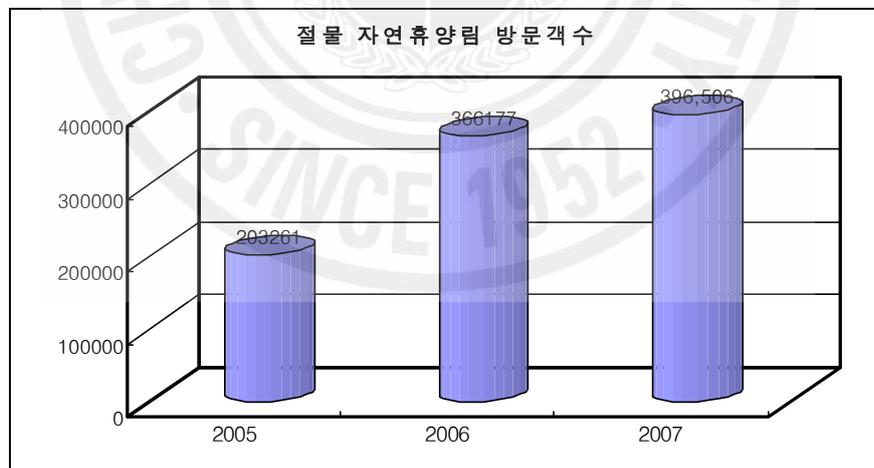
절물 자연휴양림은 해발 600~800m 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휴양림 내에는 주종인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0~45년 된 삼나무 이외에 소나무, 다래, 산뽕나무 등의 나무와 더덕, 드릅 등의 나물종류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고, 까마귀도 서식하고 있으며 밤에는 노루가 우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일정하게 높이 곧게 뻗은 삼나무 사이 중간 중간에는 나무 평상이 위치해 있어 마련해온 도시락을 먹거나 누워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절물’은 절 옆에 물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휴양림 안에는 작은 암자와 제주도가 지정한 제1호 약수터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휴양림내의 산책로는 비교적 완만하고 경사도가 낮아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에게도 무난하며, 절물오름은 해발 650m의 기생화산으로서 고지까지 오르는 등산로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왕복이 가능하다. 정상에 오르면 말발굽형 분화구가 형성되어있고 전망대에 오르면 동으로는 성산 일출봉, 서로는 태평양 바다, 그리고 남서로는 한라산 정상이 눈앞에 있어 경관이 아름답다.

휴양림 내에는 산책로, 약수터, 폭포, 연못, 잔디광장, 민속놀이시설,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야영장, 야영데크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숙박시설로는 숲속의집(20,15,10,8,5평형) 16실과 숲속수련장 1개소를 구비하고 있으며, 오전에는 산림욕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체조와 요가강습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절물 자연휴양림 인근에 위치한 관광자원으로는 산굼부리, 코끼리랜드, 제주 미니미니랜드 테마공원, 교래마을 [농촌체험], 도깨비공원 테마공원, 돌문화공원, 명도암관광휴양목장 등이 있어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다.

2007년 집계된 절물 자연휴양림의 방문객수는 396,506명으로, 전국 타 자연휴양림들과 비교해도 최상위권에 속한다<sup>3)</sup>.



[그림 3-4]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수

3)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2007 임업통계연보(제37호)에 따르면, 2006년 전국 자연휴양림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은 자연휴양림은 안면도 자연휴양림으로 472,235명으로 집계되었고, 그 다음이 절물자연휴양림으로 366,177명, 3위가 311,089명의 방문객이 찾은 조령산 자연휴양림이었다.

## 2. 서귀포 자연휴양림 현황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 산 1-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 3월 21일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총면적은 255ha(765천평), 수용인원은 하루 최대 2,000명, 관리주체는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이다.

서귀포 시내에서 자동차를 타고 대략 30분, 제주시에서 약 40여분 정도가 소요되는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법정악을 중심으로 해발 600~800m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이 빼어나며, 휴양림 내의 온도와 서귀포시내의 온도가 10°C 정도의 차이가 있어 여름에도 쾌적한 기분을 들게 한다.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영산인 한라산과 오백라한의 웅장한 기상을 이어받은 법정악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영주십경의 하나인 백록담(녹담만설)과 영실기암, 남쪽으로는 아름다운 서귀포시가지와 바다 풍경을 볼 수 있으며, 우마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뛰어노는 넓은 목장의 모습도 감상 할 수 있다.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인공조림의 요소를 가능한 한 줄이고 제주도 산과 숲 그대로의 특징을 살려 쾌적한 휴양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최남단의 자연 휴양림이다. 초피나무, 비자나무, 주목, 소나무, 곰솔 등이 저마다 생긴 모양 그대로 자라고 있으며, 삼나무, 편백나무 정도만 따로 조성되었을 뿐이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마저도 그대로 방치되어 그 자체로 자생할 수 있게 했다. 온대, 난대, 한대의 식물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또한 각종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숲길을 걷다 보면 종종 노루, 다람쥐 등과 마주치기도 하고 크낙새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각종 희귀화종(花種)들이 가득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휴양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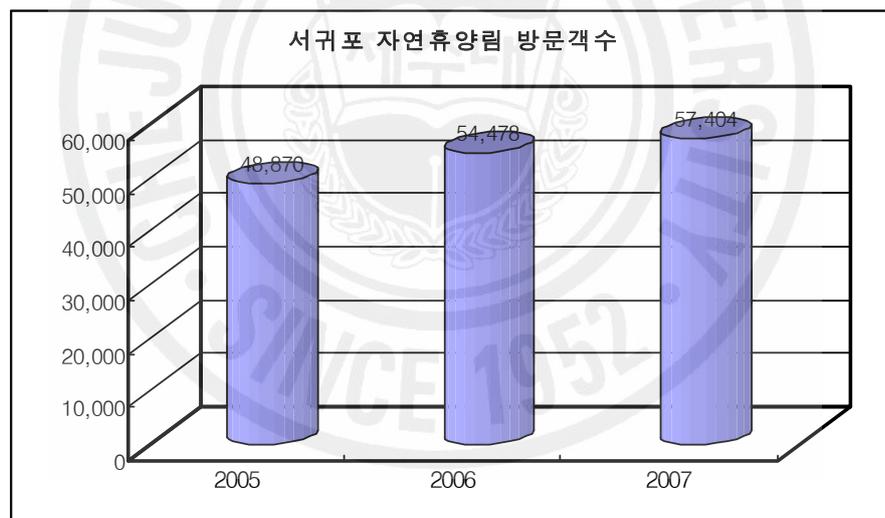
서귀포 휴양림을 둘러보는 방법은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 순환도로를 이용해 전체를 둘러보는 방법과 산책코스로 나눌 수 있다. 정문에서 후문까지 3.8km 정도의 순환도로는 정문 부근의 숙박시설, 옹달샘, 건강지압보도 등을 지나 나무 마루가 놓여 있는 넓은 부지의 쉼터로 이어지고, 야영시설이 갖춰져 있는 가족야영장을 지나 편백림이 뿅뿅이 들어선 편백숲 동산까지 다다를 수 있다. 산책코스는 크게 생태탐방코스과 건강산책코스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유형별 산책코스는 주변 주요생태자원, 경관자원, 주변 시설 등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산악등반, 계곡탐방, 산림욕 산책, 조깅, 마라톤 등

이용 목적에 따라 나뉘고, 맨발, 자전거, 등산화 등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세분화된다.

넓은 규모에 비해 숙박 시설은 적다. ‘숲속의 집’은 독립된 주택 4동 7실 건물로 9평, 15평으로 나뉘어 있으며, ‘산림휴양관’은 콘도형시설로 2동 15실로 8평, 10평, 12평, 15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숲의 곳곳에는 산막, 산림욕장, 캠프파이어장, 취사장, 오토캠프장 등의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는데, 모든 시설물은 단순한 편이며, 시설의 전력은 자연광으로 처리하였다. 여름에 인기 있는 두 곳의 물놀이장은 영실의 물을 인공적으로 끌어내 천연 계곡과 같이 조성했다.

서귀포 자연휴양림 인근에 위치한 관광자원으로는 고근산, 한라산 영실 (국립공원), 영포폭포 등이 있는데, 영실 등반로 입구까지 주위에서 가장 빠른 5km,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라산 등반의 베이스캠프로서 한라산 등반과 연계해서 이용하면 좋다.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방문객 수는 절물 자연휴양림의 14.5% 정도로, 절물 자연휴양림에 비교하면 방문객 현황은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림 3-5]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수

##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와 종합토의

### 제 1 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조사는 제주지역 절물 및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자가 응답자와의 개별면담 방식으로 설문하게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08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30일 동안 참가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조사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배포된 설문지수는 총 360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342부였으나 그 중에 설문항목을 전부 응답하지 않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15부를 제외하여, 총 327부의 유효 표본을 얻을 수 있었다. 이용 통계기법으로는 크게 기술적 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방법을 활용하였다. 기술적 통계는 단순빈도(simple frequency), 백분율(%),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검증 등을 적용하였다.

본 조사에 의한 방문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대상지인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우선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83명으로 50.9%, 여성은 80명으로 49.1%로 나타났고,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80명으로 48.8%로 나타났고, 여성은 84명으로 51.2%로 나타났다.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연령은 30대가 66명으로 40.5%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0대가 48명으로 29.4%, 20대가 44명으로 27.0%, 50대 이상이 5명으로 3.1%로 나타났다.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연령은 30대가 56명으로 34.1%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51명으로 31.1%, 20대가 19명으로 11.6%, 50대 이상이 38명으로 23.2%로 나타났다. 이렇듯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연령은 절물 자연휴양림 방

문객의 연령별 순위와 같이 조사되었으나, 50대 이상의 노년층의 방문비율이 절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구분	항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	83	50.9	80	48.8
	여	80	49.1	84	51.2
	소계	163	100.0	164	100.0
연령	20-29세	44	27.0	19	11.6
	30-39세	66	40.5	56	34.1
	40-49세	48	29.4	51	31.1
	50세 이상	5	3.1	38	23.2
	소계	163	100.0	164	100.0
학력	고졸이하	20	12.3	36	22.0
	대재/대졸	127	77.9	116	70.7
	대학원이상	16	9.8	12	7.3
	소계	163	100.0	164	100.0
소득	150만원미만	22	13.5	14	8.5
	150-200만원	34	20.9	36	22.0
	200-250만원	20	12.3	42	25.6
	250-300만원	26	16.0	21	12.8
	300-400만원	23	14.1	17	10.4
	400만원 이상	38	23.3	34	20.7
	소계	163	100.0	164	100.0
거주지	제주시	110	67.5	62	37.8
	서귀포시	10	6.1	55	33.5
	도외	43	26.4	47	28.7
	소계	163	100.0	164	100.0
직업	학생	5	3.1	3	1.8
	자영업	12	7.4	32	19.5
	주부	27	16.6	41	25.0
	사무직	52	31.9	38	23.2
	전문기술직	33	20.2	28	17.1
	공무원	30	18.4	18	11.0
	기타	4	2.5	4	2.4
	소계	163	100.0	164	100.0

절물 자연휴양림과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학력은 각각 대재/대졸(전문대포함)이 127명(77.9%)과 116명(70.7%)으로 집계되어 자연휴양림 방문객은 주로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학력은 고졸이하는 20명으로 12.3%, 대학원 이상이 16명으로 9.8%로 나타났고,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36명으로 22.0%, 대학원 이상이 12명으로 7.3%로 나타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38명(23.3%)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150-200만원은 34명으로 20.9%, 250-300만원은 26명으로 16.0%, 300-400만원은 23명으로 14.1%, 150만원 미만이 22명으로 13.5%, 200-250만원은 20명으로 12.3%로 나타났다.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소득은 200-250만원은 42명으로 25.6%, 150-200만원은 36명으로 22%, 400만원 이상은 34명으로 20.7%, 250-300만원은 21명으로 12.8%, 300-400만원은 17명으로 10.4%, 150만원 미만이 14명으로 8.5%로 나타났다.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거주지는 제주시민이 110명으로 6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귀포시민이 10명으로 6.1%, 관광객이 43명으로 26.4%로 나타나 제주시민들이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거주지는 제주시민이 62명으로 37.8%, 서귀포시민이 55명으로 33.5%, 관광객이 47명으로 28.7%의 비율을 보여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방문객의 거주지역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직업은 사무직이 52명(31.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기술직이 33명으로 20.2%, 공무원이 30명으로 18.4%, 주부가 27명으로 16.6%, 자영업이 12명으로 7.4%, 학생이 5명으로 3.1%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4명으로 2.5%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주부(41명, 25.0%), 사무직(38명, 23.2%), 자영업(32명, 19.5%), 전문기술직(28명, 17.1%), 공무원(18명, 11.0%), 학생(3명, 1.8%), 기타(4명, 2.4%)의 순위로 나타나, 개인적 시간유용이 자유로운 방문객들이 서귀포자연휴양림을 더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대상의 관광행태에 관한 특성

조사대상자의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관광행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

(Frequency)을 한 결과 다음 <표 4-2>와 같다.

우선 절물자연휴양림 방문객의 방문행태는 가족동반과 친구(연인)동반이 각각 63명(38.7%)으로 조사되어 방문객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구(연인)와 함께 소그룹으로 방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체모임으로 방문하는 이용객이 21명으로 12.9%이고, 기타 방문형태는 15명으로 9.2%이며, 혼자 방문하는 이용객은 단 1명(0.6%)으로 나타났다.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경우 절물과는 조금 다른 비율의 방문행태를 보였는데, 가족동반이 96명(58.5%)로 단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친구(연인)동반이 43명으로 26.2%, 기타가 11명으로 6.7%, 혼자가 9명으로 5.5%, 단체방문이 5명으로 3.0% 등으로 나타났다.

타 자연휴양림을 포함한 자연휴양림 방문횟수를 두 자연휴양림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물과 서귀포 각각 2-3회 방문이 56명(34.4%)과 48명(29.3%)으로 가장 많았으며, 4회 이상 방문한 방문객도 각각 80명(49.0%)과 75명(45.7%)으로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에 자연휴양림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었다.

조사가 이루어진 자연휴양림을 최근 5년간 방문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절물자연휴양림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60명(36.8%)이 최근 5년간 절물 자연휴양림을 2-3회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45명(27.6%)의 응답자가 처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회 이상 방문한 이용객도 58명(35.6%)으로 나타나, 재방문객의 비율이 전체 중 118명(62.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67명(40.9%)의 응답자가 서귀포 자연휴양림을 최근 5년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고, 50명(30.4%)이 2-3회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4회 이상 방문한 이용객도 47명(28.2%)로 나타나, 재방문객의 비율이 전체 중 97명(59.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물자연휴양림 방문객의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95명으로 58.3%를 차지하였으며, 관광/전세(미니)버스가 29명으로 17.8%, 렌트카가 29명으로 17.8%, 대중교통이 4명으로 2.5%, 기타가 6명으로 3.7%를 차지하였다. 서귀포자연휴양림 방문객의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114명으로 69.5%를 차지하였으며, 렌트카가 42명으로 25.6%, 기타가 5명으로 3.0%, 관광/전세(미니)버스가 2명으로 1.2%, 대중교통이 1명으로 0.6%를 차지하여, 서귀포 자연휴양림 보다 절물 자연휴양림에 단체의 방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2> 관광활동 특성

구분	항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방문형태	혼자	1	0.6	9	5.5
	가족동반	63	38.7	96	58.5
	친구(연인)관광	63	38.7	43	26.2
	단체관광	21	12.9	5	3.0
	기타	15	9.2	11	6.7
	소계	163	100.0	164	100.0
방문횟수 (타 자연 휴양림 포함)	1회	27	16.6	41	25.0
	2-3회	56	34.4	48	29.3
	4-5회	32	19.6	19	11.6
	6회 이상	48	29.4	56	34.1
	소계	163	100.0	164	100.0
방문횟수 (방문한 자연 휴양림에 한하여)	1회	45	27.6	67	40.9
	2-3회	60	36.8	50	30.5
	4-5회	27	16.6	9	5.5
	6회 이상	31	19.0	38	23.2
	소계	163	100.0	164	100.0
교통 수단	자가용	95	58.3	114	69.5
	대중교통	4	2.5	1	0.6
	관광/전세(미니)버스	29	17.8	2	1.2
	렌트카	29	17.8	42	25.6
	기타	6	3.7	5	3.0
	소계	163	100.0	164	100.0
체류시간	2시간 이내	77	47.2	71	43.3
	2-4시간	66	40.5	38	23.2
	당일	14	8.6	34	20.7
	1박2일 이상	6	3.7	21	12.8
	소계	163	100.0	164	100.0
정보원천	주변사람의 소개	97	59.5	84	51.2
	언론매체	16	9.8	6	3.7
	휴양림 홍보책자	11	6.7	36	22.0
	인터넷	12	7.4	7	4.3
	기타	27	16.6	31	18.9
	소계	163	100.0	164	100.0

절물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가 77명으로 47.2%, 2-4시간이 66명으로

40.5%였으며, 절물자연휴양림에서 숙박을 하여 1박2일 이상을 체류하는 방문객은 응답자 중 6명으로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가 71명으로 43.3%, 2-4시간이 38명으로 23.2%, 숙박은 하지 않고 당일을 머무르는 방문객이 34명으로 20.0%였고,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숙박을 하여 1박2일 이상을 체류하는 방문객은 응답자 중 21명으로 1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조사에서 나타난 1박2일 이상의 체류방문객을 전체 방문객 중 숙박객의 비율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조사가 이루어진 주말 오후 시간동안 숙박시설 이용자들이 인근의 다른 관광지를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숙박객의 비율은 대략 총 입장객의 약 20% 수준이다.<sup>4)</sup>

절물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정보원천은 주변사람의 소개가 97명(59.5%)으로 단연 높게 나타났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16명으로 9.8%, 휴양림 홍보책자 11명으로 6.7%, 인터넷 12명으로 7.4%, 기타 27명으로 16.6% 등으로 나타났다.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주변사람의 소개로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방문객이 84명으로 51.2%, 휴양림 홍보책자 36명으로 22.0%, 언론매체는 6명으로 3.7%, 인터넷 7명으로 4.3%, 기타 31명으로 18.9% 등으로 나타났다. 두 자연휴양림 모두 기타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은 두 지역의 방문객들 중 제주도민의 비율이 절물자연휴양림 73.6%, 서귀포자연휴양림 71.3%이고, 이들 중 대부분이 최근 5년간 절물자연휴양림 및 서귀포자연휴양림을 방문한 경험이 있어, 이미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4) 서귀포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7년 5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의 총 입장 인원은 63,275명이고, 이 중 12,499명이 숙박시설 이용객으로 집계되어, 총 이용인원의 약 20% 정도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1박 2일 이상의 체류관광객임.

<표 4-3> 방문목적(복수응답)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응답자(명)	순위	응답자(명)	순위
가족(친구)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82	1	41	3
혼잡함에서 벗어나 긴장과 피로를 풀기위해	76	2	83	1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58	3	69	2
야외활동(등산, 야영 등)에 참여하기 위해	27	4	23	4
야생 동·식물관찰 등 자연에 대한 지식함양	7	5	11	5
기타	1	6	6	6

절물자연휴양림 방문객의 방문목적은 ‘가족(친구)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가 82명으로 1순위로 나타났고, ‘혼잡함에서 벗어나 긴장과 피로를 풀기위해’가 76명으로 2순위,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가 58명으로 3순위, ‘야외활동에 참여하기 위해’는 27명으로 4순위, ‘야생 동·식물관찰 등 자연에 대한 지식함양’이 7명으로 5순위, 기타가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귀포자연휴양림 방문객의 1순위 방문목적은 ‘혼잡함에서 벗어나 긴장과 피로를 풀기위해’(83명)로 나타났고,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가 69명으로 2순위, ‘가족(친구)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가 42명으로 3순위, ‘야외활동에 참여하기 위해’는 23명으로 4순위, ‘야생 동·식물관찰 등 자연에 대한 지식함양’이 11명으로 5순위, 마지막으로 기타가 6명으로 조사되었다.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여가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절물 자연휴양림의 경우 전체 163명의 응답자 중 산책(117명), 휴식(119명), 동행자와 대화(93명), 등산(53명), 자연관찰 및 자연학습(3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경우 전체 164명의 응답자 중 산책(151명), 휴식(118명), 동행자와의 대화(106명), 자연관찰 및 자연학습(65명), 취미활동(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자연휴양림내의 여가활동(복수응답)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응답자(수)	순위	응답자(수)	순위
산책	147	1	151	1
휴식(명상)	119	2	118	2
동행자와 대화	93	3	106	3
등산	53	4	27	8
자연관찰 및 자연학습	37	5	65	4
단체모임	32	6	38	6
피크닉(야외취사)	22	7	30	7
취미활동(사진, 그림 등)	20	8	44	5
체육·놀이시설	19	9	12	10
야영	10	10	22	9
교육프로그램	4	11	6	11
기타	1	12	3	12

즉 제주지역 내 자연휴양림의 경우들은 정적인 활동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관광지에서 나타났던 먹고 즐기기 위주의 이용행태에서 정신적인 휴식과 안정을 도모하는 이용행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여가에 대한 방문객들의 인식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제 2 절 측정척도의 평가

### 1. 자연휴양림 선택속성별 교차분석

#### 1) 생태·환경

생태·환경 속성에 대한 자연휴양림별 교차분석을 하면 아래와 같다. 본 연구의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선택속성과 관련된 항목으로서 산림경관이 수려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절물자연휴양림인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의 82.8%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인 답변은 1.2%에 불과하였다.

<표 4-5> 산림경관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29.4	긍정: 82.8%	48.8	긍정: 84.2%
그렇다	53.4		35.4	
보통	16.0	-	12.2	-
그렇지 않다	0.6	부정: 1.2%	3.0	부정: 3.6%
전혀 그렇지 않다	0.6		0.6	

$P \leq 0.05$ , 카이제곱 : 17.246, 유의확률 : 0.002

서귀포자연휴양림인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의 84.4를 차지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3.6%로 나타났다. 즉 절물 및 서귀포자연휴양림을 선택하는데 수려한 산림경관항목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산림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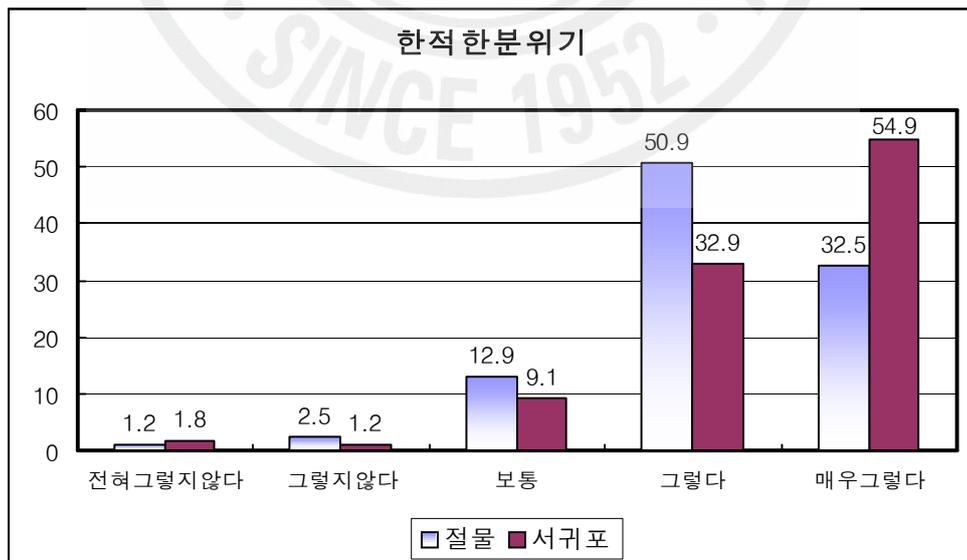
생태환경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휴양림 방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선택속성 항목 중 분위기가 한적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질문에 절물자연휴양림인 경우 전체의 83.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3.7%를 나타냈다.

<표 4-6> 한적한 분위기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32.5	긍정: 83.4%	54.9	긍정: 87.8%
그렇다	50.9		32.9	
보통	12.9	-	9.1	-
그렇지 않다	2.5	부정: 3.7%	1.2	부정: 3.0%
전혀 그렇지 않다	1.2		1.8	

$P \leq 0.05$ , 카이제곱 : 17.576, 유의확률 : 0.001

서귀포자연휴양림인 경우는 전체의 87.8%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3.0%에 불과하여, 서귀포자연휴양림이 절물자연휴양림보다 약 4.4%정도 높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타났다. 즉, 절물 및 서귀포자연휴양림을 선택하는데 분위기가 한적하다는 항목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2] 한적한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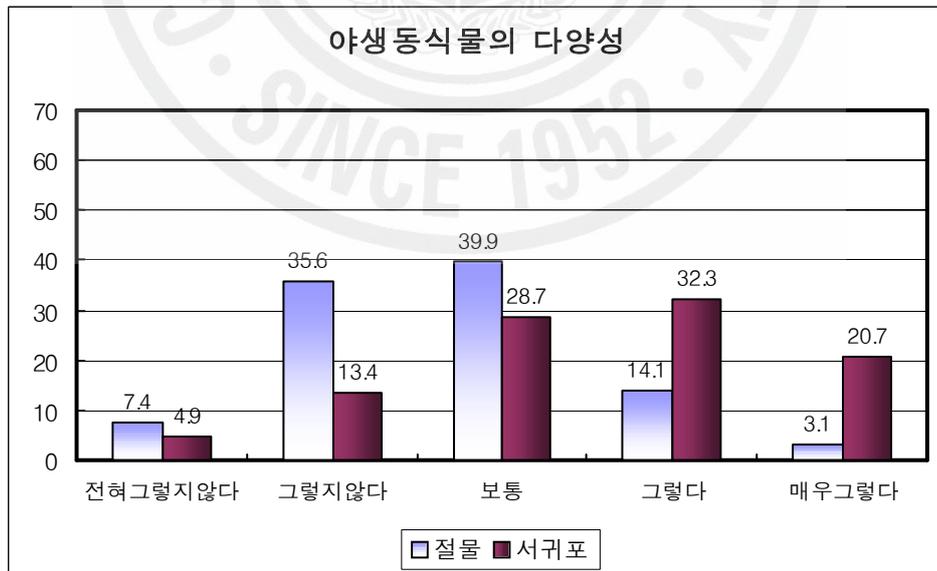
절물 또는 서귀포자연휴양림을 방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선택속성항목 중 다양한 야생 동식물을 볼 수 있으므로 질문에 절물자연휴양림인 경우 전체의 43.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은 17.2%에 불과하였다.

<표 4-7>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3.1	긍정: 17.2%	20.7	긍정: 53.0%
그렇다	14.1		32.3	
보통	39.9	-	28.7	-
그렇지 않다	35.6	부정: 43.0%	13.4	부정: 18.3%
전혀 그렇지 않다	7.4		4.9	

P ≤ 0.05, 카이제곱 : 53.297, 유의확률 : 0.000

이에 반해 서귀포자연휴양림인 경우 전체의 53.0%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18.3%로 나타났다. 즉 서귀포자연휴양림이 절물자연휴양림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약 3.1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4-3]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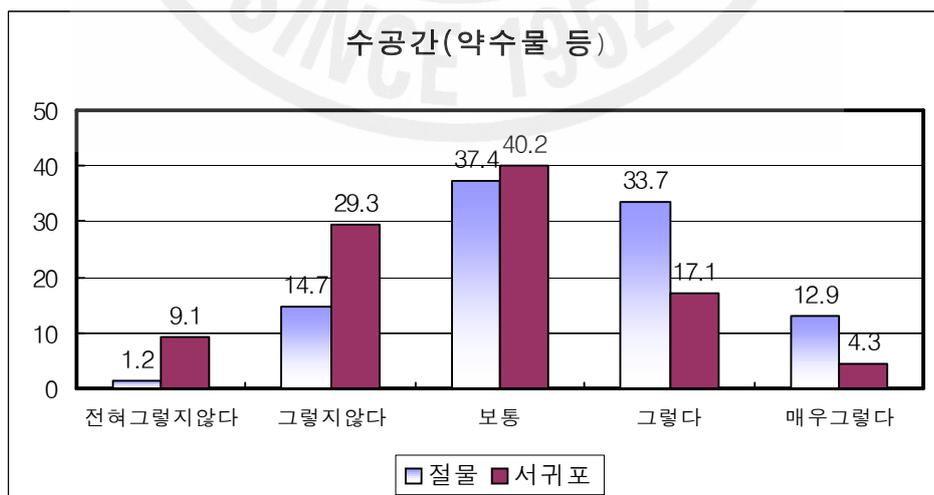
수공간(연못, 약수물)등이 자연휴양림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정도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절물자연휴양림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전체의 46.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전체의 15.9%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표 4-8> 수공간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12.9	긍정: 46.6%	4.3	긍정: 21.4%
그렇다	33.7		17.1	
보통	37.4	-	40.2	-
그렇지 않다	14.7	부정: 15.9%	29.3	부정: 38.4%
전혀 그렇지 않다	1.2		9.1	

P ≤ 0.05, 카이제곱 : 33.918, 유의확률 : 0.000

이에 반해 서귀포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부정적인 답변이 전체의 38.4%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답변은 21.4%로 나타났다. 즉 절물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수공간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서귀포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자연휴양림인 경우 수공간(연못, 약수터 등)이 방문객의 선택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4] 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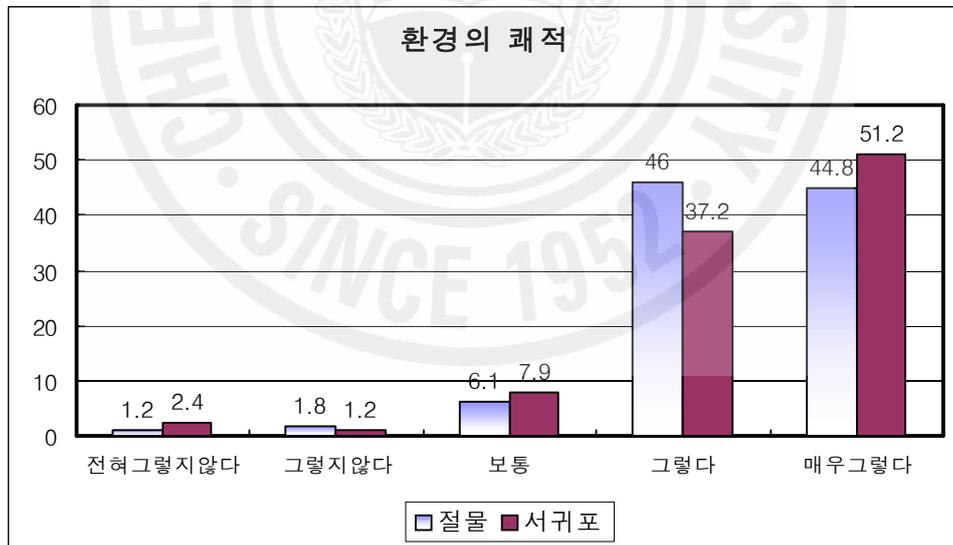
생태환경이 쾌적함에 관련한 질문에서 절물자연휴양림인 경우 전체의 90.8%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3.0%에 불과하였다.

<표 4-9> 환경의 쾌적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44.8	긍정: 90.8%	51.2	긍정: 88.4%
그렇다	46.0		37.2	
보통	6.1	-	7.9	-
그렇지 않다	1.8	부정: 3.0%	1.2	부정: 3.6%
전혀 그렇지 않다	1.2		2.4	

$P \leq 0.05$ , 카이제곱 : 3.467, 유의확률 : 0.483

서귀포자연휴양림인 경우 전체의 88.4%가 긍정적인 답변을, 전체 중 3.6%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림4-5] 환경의 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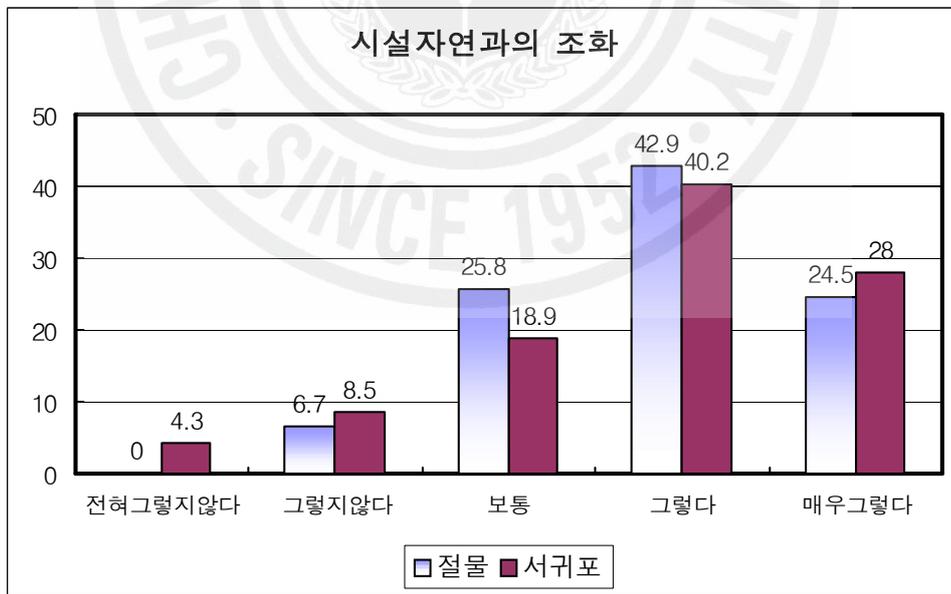
시설물과 자연이 잘 조화된 곳이기 때문이라는 질문에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인 경우 각각 67.4%, 68.2%로 서로 유사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표 4-10> 시설물과 자연의 조화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24.5	긍정: 67.4%	28.0	긍정: 68.2%
그렇다	42.9		40.2	
보통	25.8	-	18.9	-
그렇지 않다	6.7	부정: 6.7%	8.5	부정: 12.8%
전혀 그렇지 않다	0.0		4.3	

$P \leq 0.05$ , 카이제곱 : 9.551, 유의확률 : 0.049

그러나 부정적인 답변은 서귀포자연휴양림이 12.8%로 절물자연휴양림 6.7%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절물 및 서귀포자연휴양림의 방문을 결정하는데 시설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속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6] 시설물과 자연의 조화

<표 4-11> 생태환경

내용	항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산림경관이 수려한 곳이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29.4	긍정: 82.8%	48.8	긍정: 84.2%
	그렇다	53.4		35.4	
	보통	16.0	-	12.2	-
	그렇지 않다	0.6	부정: 1.2%	3.0	부정: 3.6%
	전혀 그렇지 않다	0.6		0.6	
분위기가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32.5	긍정: 83.4%	54.9	긍정: 87.8%
	그렇다	50.9		32.9	
	보통	12.9	-	9.1	-
	그렇지 않다	2.5	부정: 3.7%	1.2	부정: 3.0%
	전혀 그렇지 않다	1.2		1.8	
다양한 야생동식물 을 볼 수 있기 때 문에	매우 그렇다	3.1	긍정: 17.2%	20.7	긍정: 53.0%
	그렇다	14.1		32.3	
	보통	39.9	-	28.7	-
	그렇지 않다	35.6	부정: 43.0%	13.4	부정: 18.3%
	전혀 그렇지 않다	7.4		4.9	
수공간(연못, 약수 터)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12.9	긍정: 46.6%	4.3	긍정: 21.4%
	그렇다	33.7		17.1	
	보통	37.4	-	40.2	-
	그렇지 않다	14.7	부정: 15.9%	29.3	부정: 38.4%
	전혀 그렇지 않다	1.2		9.1	
생태환경이 쾌적한 곳이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44.8	긍정: 90.8%	51.2	긍정: 88.4%
	그렇다	46.0		37.2	
	보통	6.1	-	7.9	-
	그렇지 않다	1.8	부정: 3.0%	1.2	부정: 3.6%
	전혀 그렇지 않다	1.2		2.4	
시설물과 자연이 잘 조화된 곳이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24.5	긍정: 67.4%	28.0	긍정: 68.2%
	그렇다	42.9		40.2	
	보통	25.8	-	18.9	-
	그렇지 않다	6.7	부정: 6.7%	8.5	부정: 12.8%
	전혀 그렇지 않다	0.0		4.3	

위의 분석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표 4-11>) 절물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은 생태환경 측면에서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43.0%)을 제외한 모든 선택속성 항목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하였으며, 생태환경의 쾌적함(90.8%), 한적한 분위기(83.4%), 수려한 산림경관(82.8%), 시설물과 자연의 조화(67.4%), 수공간(46.6%)의 순으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쾌적한 생태환경(90.8%) 속성이 절물자연휴양림을 선택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귀포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은 생태환경의 쾌적함(88.4%), 한적한 분위기(87.8%), 수려한 산림경관(84.2%), 시설물과 자연의 조화(68.2%) 야생동식물의 다양성(53.0%)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수공간(연못, 약수터 등)에서는 부정적인 답변(38.4%)이 긍정적인 답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생태·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속성들 대부분이 방문객의 자연휴양림 방문 결정에 선택속성으로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선택속성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2)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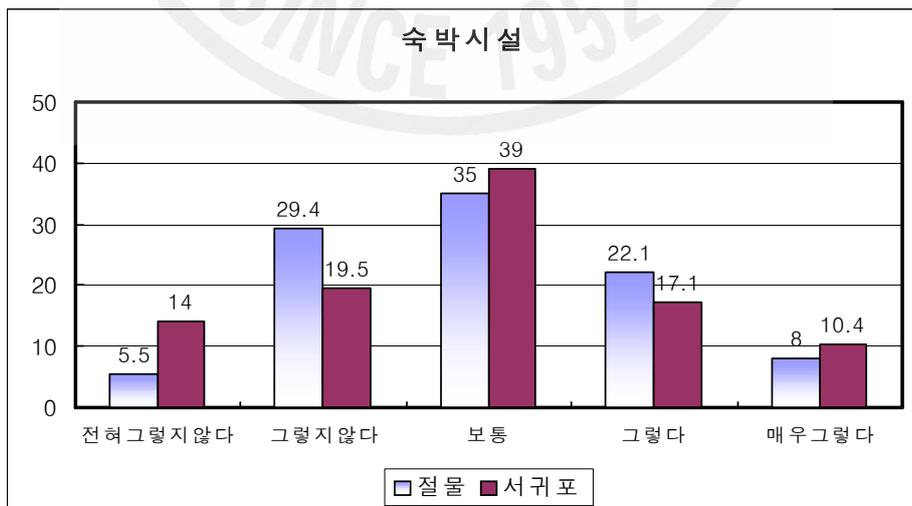
시설물속성 관련 자연휴양림별 선택속성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휴양림을 선택 하는데 숙박시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절물자연휴양림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전체의 34.9%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의견은 20.1%로 나타났다.

<표 4-12> 숙박시설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8.0	긍정: 20.1%	10.4	긍정: 27.5%
그렇다	22.1		17.1	
보통	35.0	-	39.0	-
그렇지 않다	29.4	부정: 34.9%	19.5	부정: 33.5%
전혀 그렇지 않다	5.5		14.0	

$P \leq 0.05$ , 카이제곱 : 11.260, 유의확률 : 0.024

또한 서귀포자연휴양림 역시 부정적인 답변이 전체의 33.5%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답변은 27.5%로 나타났다.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숙박시설 이용객이 아닌 대부분의 단순 방문객에게는 숙박시설이 선택속성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7] 숙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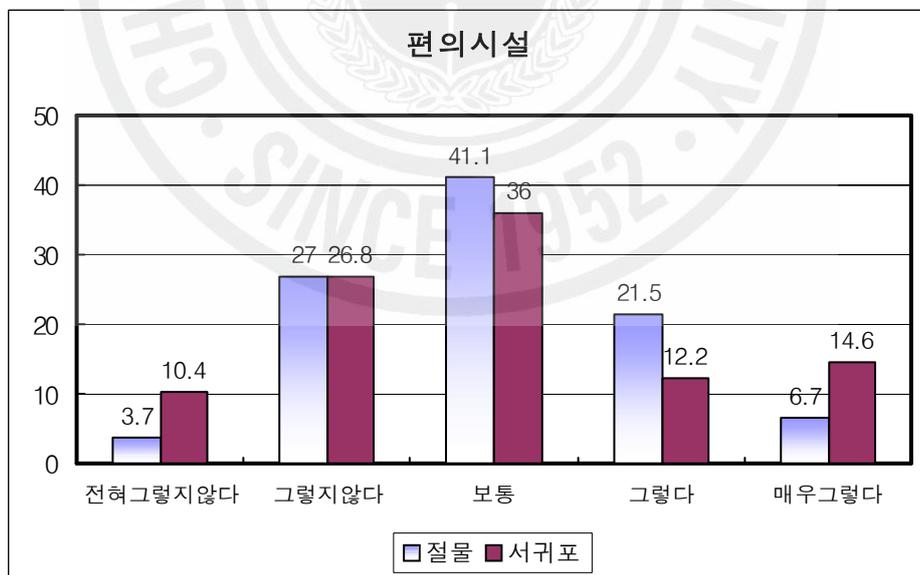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매점 등)이 잘 되어 있어서라는 질문에 절물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전체의 30.7%가 부정적인 답변을, 전체의 28.2%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표 4-13> 편의시설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6.7	긍정: 28.2%	14.6	긍정: 26.8%
그렇다	21.5		12.2	
보통	41.1	-	36.0	-
그렇지 않다	27.0	부정: 30.7%	26.8	부정: 37.2%
전혀 그렇지 않다	3.7		10.4	

$P \leq 0.05$ , 카이제곱 : 14.685, 유의확률 : 0.005

서귀포자연휴양림인 경우 전체의 부정적인 의견이 37.2%, 긍정적인 의견이 전체의 26.8%로 나타났다. 즉 절물 및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편의시설이 자연휴양림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8] 편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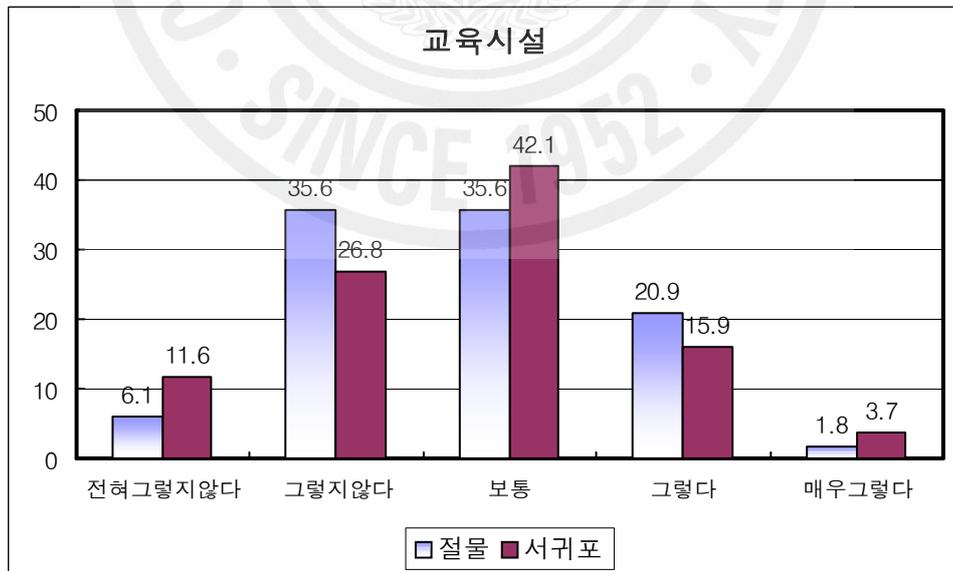
교육시설(자연학습장, 전시관 등)이 자연휴양림을 선택하는데 영향유무에 관한 질문에 절물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전체의 41.7%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측면은 22.7%로 약 2배정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4> 교육시설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1.8	긍정: 22.7%	3.7	긍정: 19.6%
그렇다	20.9		15.9	
보통	35.6	-	42.1	-
그렇지 않다	35.6	부정: 41.7%	26.8	부정: 38.4%
전혀 그렇지 않다	6.1		11.6	

$P \leq 0.05$ , 카이제곱 : 7.731, 유의확률 : 0.102

서귀포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교육시설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데 영향유무와 관련하여 전체 중 부정적인 의견이 38.4%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의견은 19.6%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4-9] 교육시설

산책로와 등산로 등이 잘 되어 있어서 방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절물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전체의 74.8%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5.5%에 불과해 절물자연휴양림을 선택하는데 산책로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5> 산책로(등산로)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20.2	긍정: 74.8%	20.1	긍정: 40.2%
그렇다	54.6		20.1	
보통	19.6	-	35.4	-
그렇지 않다	4.3	부정: 5.5%	18.3	부정: 24.4%
전혀 그렇지 않다	1.2		6.1	

P ≤ 0.05, 카이제곱 : 52.844, 유의확률 : 0.000

이와 반면 서귀포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전체의 40.2%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24.4%로 나타났다. 즉, 절물자연휴양림 방문객의 긍정적인 답변이 서귀포자연휴양림보다 약 1.9배정도 높아, 절물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잘 정비되어 있는 산책로 및 등산로가 이곳을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속성임을 알 수 있다.



[그림4-10] 산책로(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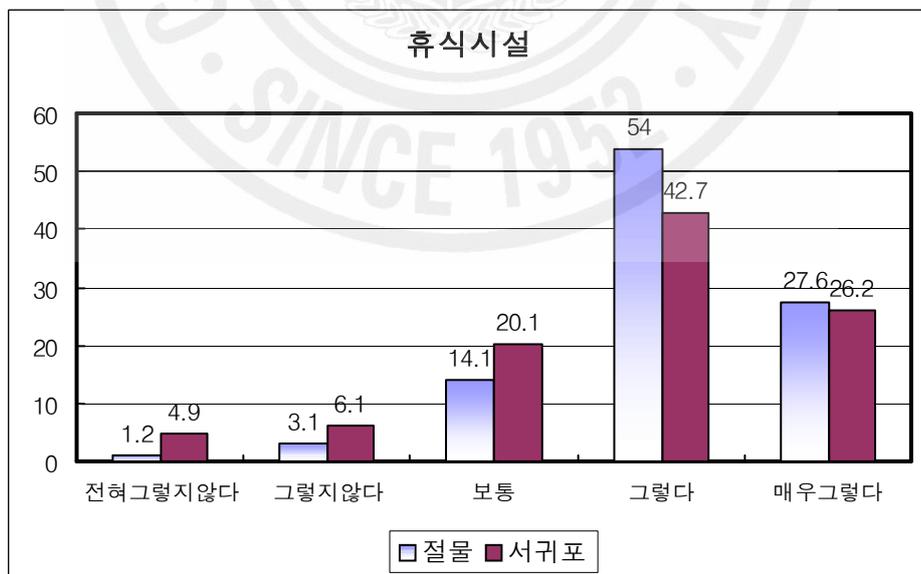
휴식시설(벤치, 야외평상 등)이 잘 되어 있어서 자연휴양림 방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절물자연휴양림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전체의 81.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4.3%에 불과하였다.

<표 4-16> 휴식시설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27.6	긍정: 81.6%	26.2	긍정: 68.9%
그렇다	54.0		42.7	
보통	14.1	-	20.1	-
그렇지 않다	3.1	부정: 4.3%	6.1	부정: 11.0%
전혀 그렇지 않다	1.2		4.9	

$P \leq 0.05$ , 카이제곱 : 9.145, 유의확률 : 0.058

서귀포자연휴양림인 경우 전체의 68.9%가 긍정적인 답변을, 11.0%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즉, 절물자연휴양림을 선택하는데 휴식시설항목이 더욱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4-11] 휴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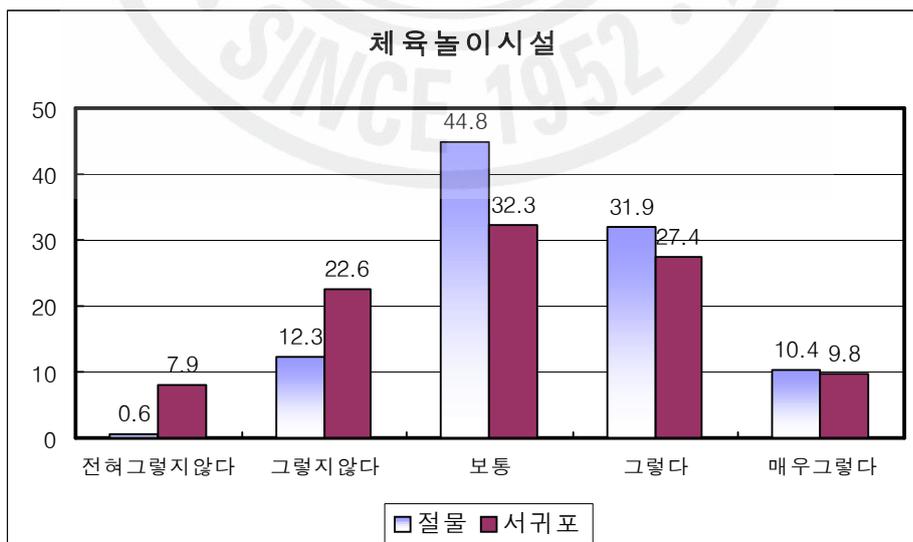
자연휴양림 방문 시 체육·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질물자연휴양림인 경우 전체의 42.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전체의 12.9%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표 4-17> 체육·놀이시설

내용	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10.4	긍정: 42.3%	9.8	긍정: 37.2%
그렇다	31.9		27.4	
보통	44.8	-	32.3	-
그렇지 않다	12.3	부정: 12.9%	22.6	부정: 30.5%
전혀 그렇지 않다	0.6		7.9	

$P \leq 0.05$ , 카이제곱 : 19.063, 유의확률 : 0.001

서귀포자연휴양림인 경우 전체의 37.2%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전체의 30.5%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즉 서귀포 자연휴양림인 경우가 약 2.4배 정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따라서 체육놀이시설이 방문객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놀이시설을 좀 더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12] 체육·놀이시설

<표 4-18> 시설물

내용	항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8.0	긍정: 20.1%	10.4	긍정: 27.5%
	그렇다	22.1		17.1	
	보통	35.0	-	39.0	-
	그렇지 않다	29.4	부정: 34.9%	19.5	부정: 33.5%
	전혀 그렇지 않다	5.5		14.0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이 잘 되어 있으므로	매우 그렇다	6.7	긍정: 28.2%	14.6	긍정: 26.8%
	그렇다	21.5		12.2	
	보통	41.1	-	36.0	-
	그렇지 않다	27.0	부정: 30.7%	26.8	부정: 37.2%
	전혀 그렇지 않다	3.7		10.4	
교육시설(자연학 습장, 전시관 등)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1.8	긍정: 22.7%	3.7	긍정: 19.6%
	그렇다	20.9		15.9	
	보통	35.6	-	42.1	-
	그렇지 않다	35.6	부정: 41.7%	26.8	부정: 38.4%
	전혀 그렇지 않다	6.1		11.6	
산책로(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므로	매우 그렇다	20.2	긍정: 74.8%	20.1	긍정: 40.2%
	그렇다	54.6		20.1	
	보통	19.6	-	35.4	-
	그렇지 않다	4.3	부정: 5.5%	18.3	부정: 24.4%
	전혀 그렇지 않다	1.2		6.1	
휴식시설(벤치, 야외평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27.6	긍정: 81.6%	26.2	긍정: 68.9%
	그렇다	54.0		42.7	
	보통	14.1	-	20.1	-
	그렇지 않다	3.1	부정: 4.3%	6.1	부정: 11.0%
	전혀 그렇지 않다	1.2		4.9	
체육·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10.4	긍정: 42.3	9.8	긍정: 37.2
	그렇다	31.9		27.4	
	보통	44.8	-	32.3	-
	그렇지 않다	12.3	부정: 12.9	22.6	부정: 30.5
	전혀 그렇지 않다	0.6		7.9	

위의 분석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표 4-18>) 절물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은 시설물 측면에서 휴식시설(81.6%), 산책로(74.8%) 항목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을, 교육시설(41.7%), 숙박시설(34.9%), 편의시설(30.7%) 항목에서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시설(자연학습장, 전시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교육시설이 절물자연휴양림 방문 시 선택속성항목으로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귀포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은 휴식시설(68.9%)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설물 항목은 자연휴양림을 방문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객들에게 시설물요소는 자연휴양림 방문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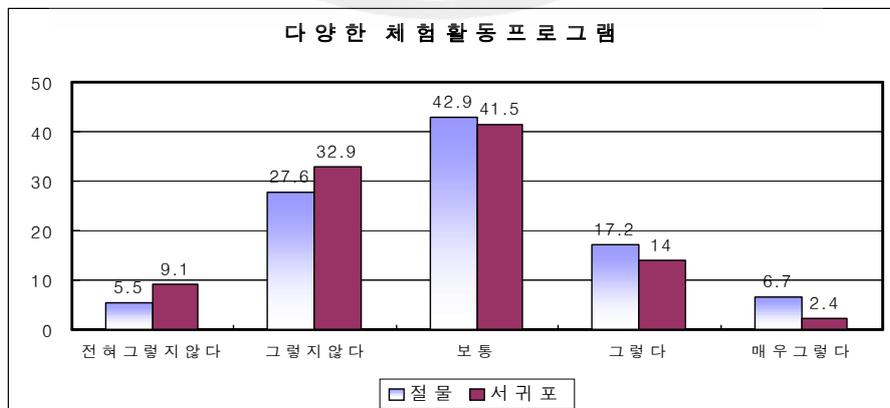
자연휴양림 방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선택속성 중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항목은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므로’, ‘취미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산림욕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자연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로 구성하였다.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경우,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므로’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전체의 23.9%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33.1%로 나타났다.

<표 4-19>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6.7	긍정: 23.9%	2.4	긍정: 16.4%
그렇다	17.2		14.0	
보통	42.9	-	41.5	-
그렇지 않다	27.6	부정: 33.1%	32.9	부정: 42.0%
전혀 그렇지 않다	5.5		9.1	

$P \leq 0.05$ , 카이제곱 : 6.101, 유의확률 : 0.192

서귀포자연휴양림인 경우는 전체의 16.4%가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유무가 이번 방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42.0%가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유의확률이 0.192로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그림 4-13]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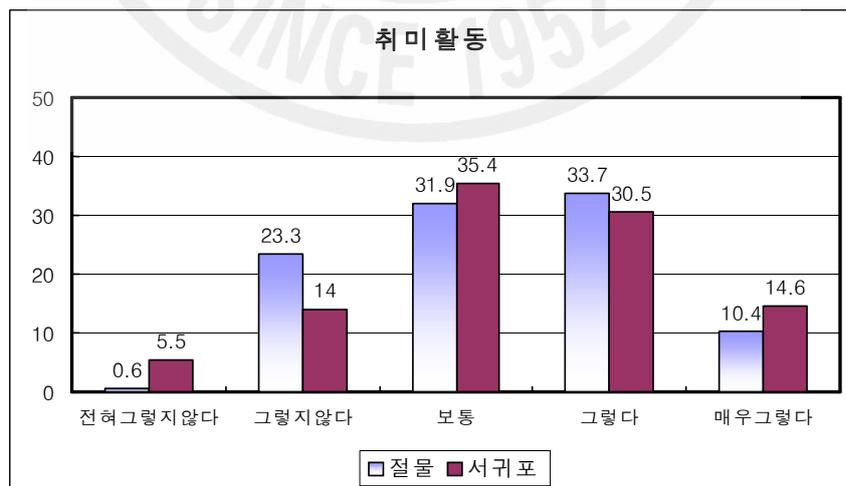
절물 또는 서귀포자연휴양림을 방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선택속성 중 ‘취미활동(사진촬영, 그림그리기 등)을 할 수 있으므로’의 항목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절물자연휴양림인 경우 전체의 44.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23.9%로 나타났다.

<표 4-20> 취미활동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10.4	긍정: 44.1%	14.6	긍정: 45.1%
그렇다	33.7		30.5	
보통	31.9	-	35.4	-
그렇지 않다	23.3	부정: 23.9%	14.0	부정: 19.5%
전혀 그렇지 않다	0.6		5.5	

$P \leq 0.05$ , 카이제곱 : 11.846, 유의확률 : 0.019

서귀포자연휴양림의 방문객들은 전체의 45.1%가 취미활동 항목이 휴양림 방문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19.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 답변의 비율은 두 대상지가 비슷하나, 약 4% 정도의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이 더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14] 취미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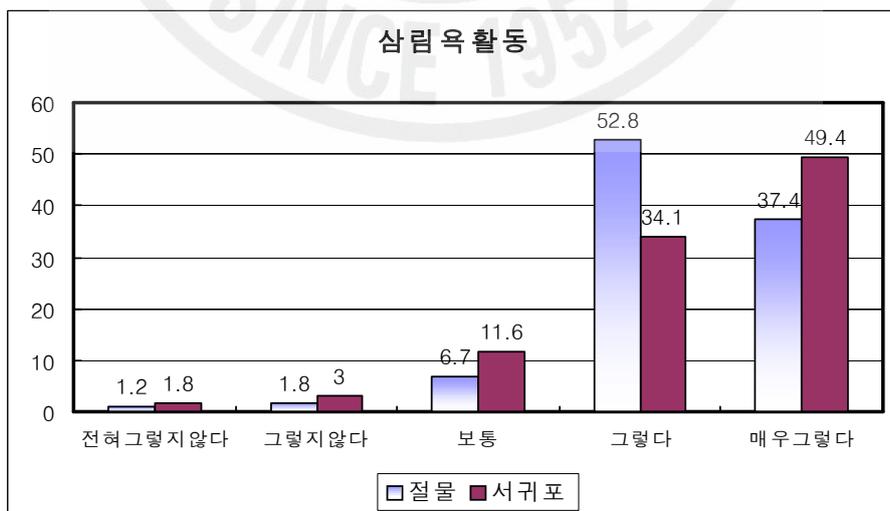
‘삼림욕활동’ 항목이 절물 또는 서귀포 자연휴양림을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속성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응답한 절물자연휴양림 전체 방문객의 90.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3.0%에 불과하였다.

<표 4-21> 삼림욕활동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37.4	긍정: 90.2%	49.4	긍정: 83.5%
그렇다	52.8		34.1	
보통	6.7	-	11.6	-
그렇지 않다	1.8	부정: 3.0%	3.0	부정: 4.8%
전혀 그렇지 않다	1.2		1.8	

$P \leq 0.05$ , 카이제곱 : 11.985, 유의확률 : 0.017

또한, 설문에 응답한 서귀포자연휴양림 방문객의 경우에도 전체의 83.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삼림욕활동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서귀포 자연휴양림 보다 절물 자연휴양림에서 6.7%의 방문객들이 더 삼림욕활동을 선택속성으로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15] 삼림욕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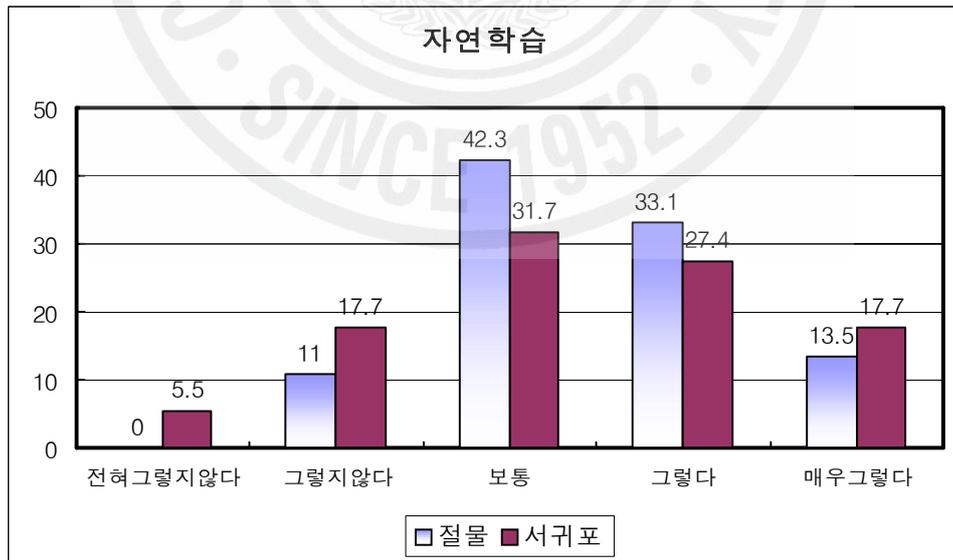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을 ‘자연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였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은 전체의 45.6%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11.0%로 나타났다.

<표 4-22> 자연학습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13.5	긍정: 46.6%	17.7	긍정: 45.1%
그렇다	33.1		27.4	
보통	42.3	-	31.7	-
그렇지 않다	11.0	부정: 11.0%	17.7	부정: 23.2%
전혀 그렇지 않다	0.0		5.5	

$P \leq 0.05$ , 카이제곱 : 15.739, 유의확률 : 0.003

서귀포자연휴양림인 경우 ‘자연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을 결정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전체의 45.1%를 차지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23.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두 자연휴양림 방문객 모두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수가 ‘자연학습’ 항목을 자연휴양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으로 ‘자연학습’ 항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6] 자연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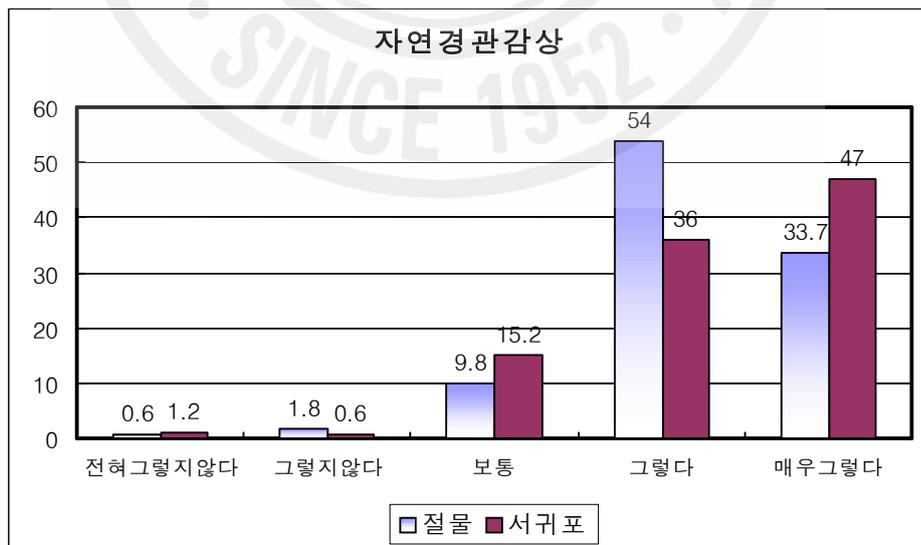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휴양림 방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선택속성 항목 중 ‘자연경관감상’ 항목에 절물자연휴양림의 경우 전체 방문객의 87.7%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2.4%로 나타났다.

<표 4-23> 자연경관감상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33.7	긍정: 87.7%	47.0	긍정: 83.0%
그렇다	54.0		36.0	
보통	9.8	-	15.2	-
그렇지 않다	1.8	부정: 2.4%	0.6	부정: 1.8%
전혀 그렇지 않다	0.6		1.2	

$P \leq 0.05$ , 카이제곱 : 12.694, 유의확률 : 0.013

서귀포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방문객 전체의 83.0%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1.8%에 불과하였다. 절물 자연휴양림이 서귀포 자연휴양림보다 약 3.7%정도 높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경관감상’은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에게 중요한 선택속성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7] 자연경관 감상

<표 4-24>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내용	항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그렇다	6.7	긍정: 23.9%	2.4	긍정: 16.4%
	그렇다	17.2		14.0	
	보통	42.9	-	41.5	-
	그렇지 않다	27.6	부정: 33.1%	32.9	부정: 42.0%
	전혀 그렇지 않다	5.5		9.1	
취미활동(사진촬영, 그림그리기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그렇다	10.4	긍정: 44.1%	14.6	긍정: 45.1%
	그렇다	33.7		30.5	
	보통	31.9	-	35.4	-
	그렇지 않다	23.3	부정: 23.9%	14.0	부정: 19.5%
	전혀 그렇지 않다	0.6		5.5	
삼림욕활동(도보, 등산)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그렇다	37.4	긍정: 90.2%	49.4	긍정: 83.5%
	그렇다	52.8		34.1	
	보통	6.7	-	11.6	-
	그렇지 않다	1.8	부정: 3.0%	3.0	부정: 4.8%
	전혀 그렇지 않다	1.2		1.8	
자연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13.5	긍정: 46.6%	17.7	긍정: 45.1%
	그렇다	33.1		27.4	
	보통	42.3	-	31.7	-
	그렇지 않다	11.0	부정: 11.0%	17.7	부정: 23.2%
	전혀 그렇지 않다	0.0		5.5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33.7	긍정: 87.7%	47.0	긍정: 83.0%
	그렇다	54.0		36.0	
	보통	9.8	-	15.2	-
	그렇지 않다	1.8	부정: 2.4%	0.6	부정: 1.8%
	전혀 그렇지 않다	0.6		1.2	

위의 분석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표 4-24>) 절물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은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속성에서 삼림욕활동(90.2%), 자연경관감상(87.7%), 자연학습(46.6%), 취미활동(44.1%) 항목의 순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타났고, 유일하게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항목만 부정적 의견이 33.1%로 긍정적 의견보다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림욕활동(90.2%) 항목과 자연경관감상(87.7%)이 방문객 대부분으로부터 자연휴양림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연에서의 활동이 자연휴양림을 찾는 요인임을 재확인시켜줬다.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속성에서의 서귀포자연휴양림 방문객 답변에서도 절물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삼림욕활동(83.5%), 자연경관감상(83.0%), 자연학습(45.1%), 취미활동(45.1%) 항목의 순서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타났고, 유일하게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항목만 부정적 의견이 42.0%로 긍정적 의견(16.4%)보다 약 2.6배 정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삼림욕활동, 자연경관감상, 자연학습 등의 자연휴양림에서의 체험활동이 자연휴양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임을 알 수 있다.

#### 4) 접근 및 이용체계

자연휴양림 방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선택속성 중 접근 및 이용체계에 관한 세부항목은 교통의 편리성, 인근 관광지와의 거리, 정보취득의 용이성, 안내체계, 예약체계의 내용으로 총 5개 항목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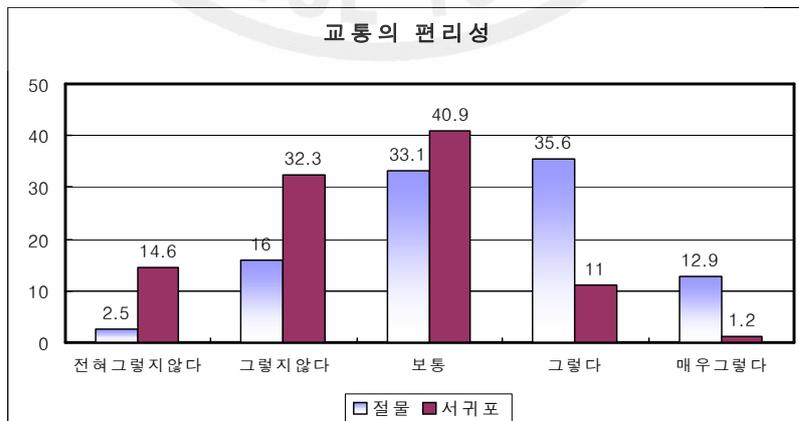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경우,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전체의 48.5%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18.5%로 나타나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30% 더 많았다.

<표 4-25> 교통의 편리성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12.9	긍정: 48.5%	1.2	긍정: 33.5%
그렇다	35.6		32.3	
보통	33.1	-	40.9	-
그렇지 않다	16.0	부정: 18.5%	32.3	부정: 46.9%
전혀 그렇지 않다	2.5		14.6	

$P \leq 0.05$ , 카이제곱 : 61.656, 유의확률 : 0.000

서귀포자연휴양림인 경우는 전체의 33.5%가 교통의 편리성이 이번 방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46.9%가 부정적으로 답변하여 부정응답이 11.4% 더 많았다.



[그림 4-18] 교통의 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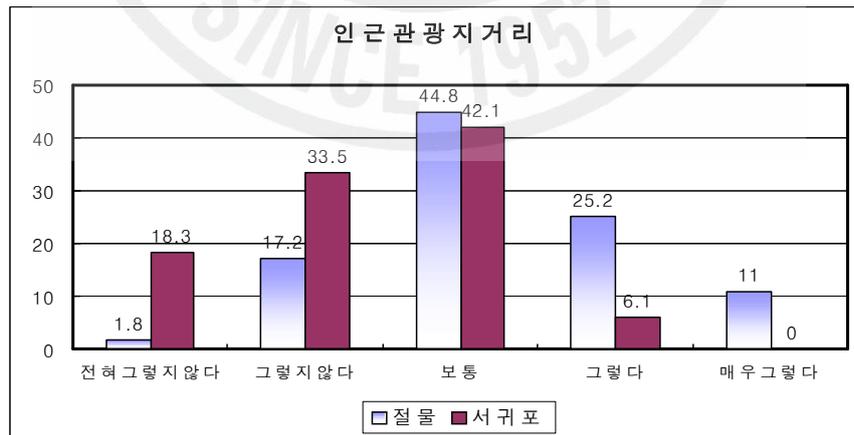
절물 자연휴양림 선택속성으로서 ‘주변 인근 관광지와의 가깝기 때문에’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방문객은 전체의 36.2%로, 부정적으로 답변한 19.0%의 방문객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표 4-26> 인근관광지거리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11.0	긍정: 36.2%	0.0	긍정: 6.1%
그렇다	25.2		6.1	
보통	44.8	-	42.1	-
그렇지 않다	17.2	부정: 19.0%	33.5	부정: 51.8%
전혀 그렇지 않다	1.8		18.3	

P ≤ 0.05, 카이제곱 : 52.844, 유의확률 : 0.000

서귀포 자연휴양림 선택속성으로서 ‘주변 인근 관광지와의 가깝기 때문에’ 항목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방문객은 전체의 51.8%, 긍정적으로 답변한 방문객은 전체의 6.1%이고, 부정적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보다 약 8.6배 많았다. 즉,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은 인근관광지와 함께 자연휴양림을 방문하지만, 서귀포의 경우 자연휴양림만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sup>5)</sup>



[그림 4-19] 인근관광지와의 거리

5) 방문객의 관광활동 특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경우 당일 및 1박 2일 이상 체류하는 방문객이 전체의 33.5%인데 반해, 절물의 경우 12.3%로 4시간 이하로 머무르는 방문객의 비율이 절물이 훨씬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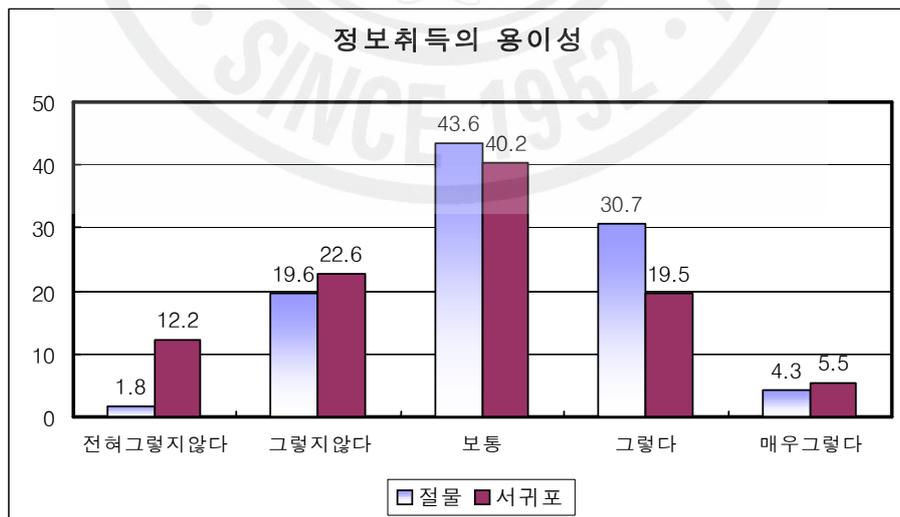
절물 자연휴양림의 경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항목을 자연휴양림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방문객은 전체의 35.0%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방문객은 21.4%로 긍정이 부정보다 1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정보취득의 용이성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4.3	긍정: 35.0%	5.5	긍정: 25.0%
그렇다	30.7		19.5	
보통	43.6	-	40.2	-
그렇지 않다	19.6	부정: 21.4%	19.5	부정: 31.7%
전혀 그렇지 않다	1.8		12.2	

$P \leq 0.05$ , 카이제곱 : 17.308, 유의확률 : 0.002

반면,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경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항목을 자연휴양림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방문객이 전체의 31.7%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방문객이 25.0%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6.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자연휴양림 방문객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0] 정보취득의 용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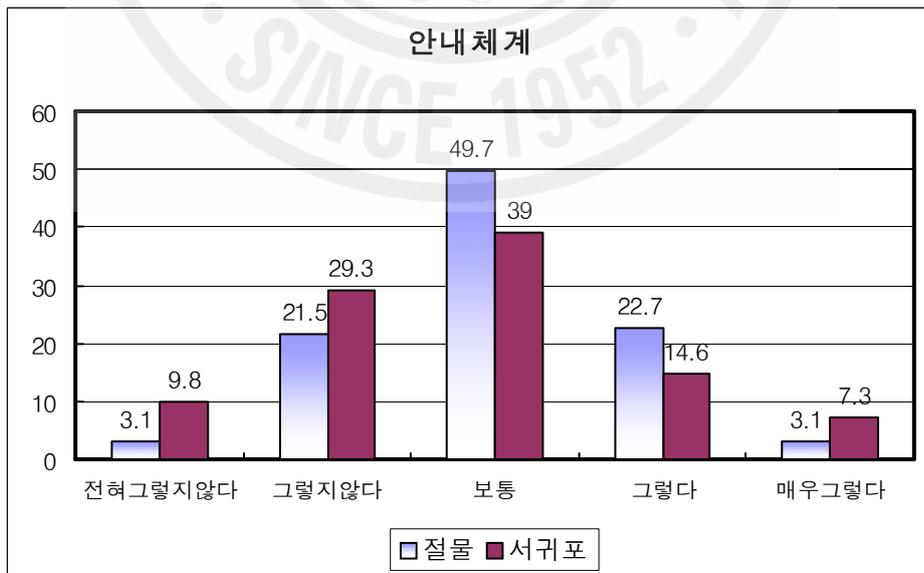
절물 자연휴양림 선택속성으로서 ‘안내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항목에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방문객이 전체의 25.8%, 부정적으로 답변한 방문객이 전체의 24.6%로 나타나, 긍정과 부정의 답변이 대략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표 4-28> 안내체계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3.1	긍정: 25.8%	7.3	긍정: 21.9%
그렇다	22.7		14.6	
보통	49.7	-	39.0	-
그렇지 않다	21.5	부정: 24.6%	29.3	부정: 39.1%
전혀 그렇지 않다	3.1		9.8	

$P \leq 0.05$ , 카이제곱 : 15.441, 유의확률 : 0.004

그러나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서 ‘안내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방문객이 전체의 39.1%, 긍정적으로 답변한 방문객이 전체의 21.9%로 나타나,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보다 17.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1] 안내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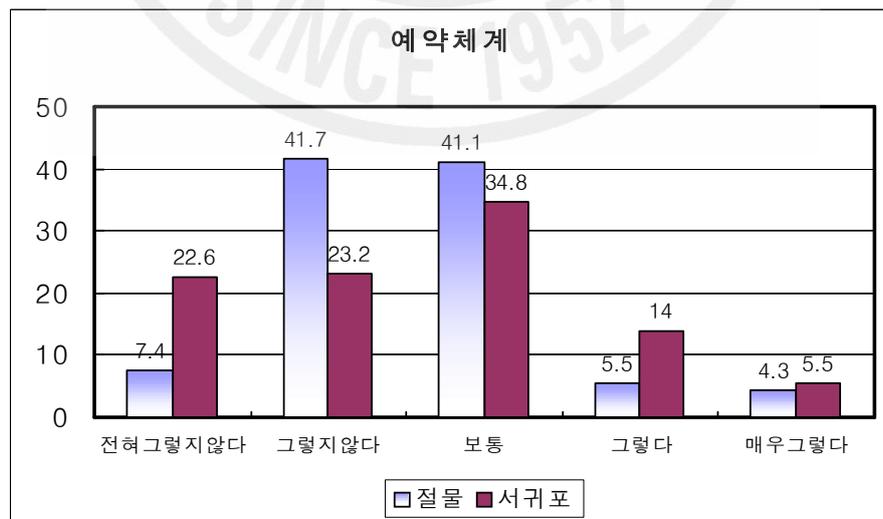
절물 또는 서귀포자연휴양림을 방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선택속성 중 ‘숙박 등의 예약체계가 용이하므로’의 항목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절물자연휴양림인 경우 전체의 49.1%가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은 9.8%로 부정적 답변이 긍정적 답변보다 약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예약체계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매우 그렇다	4.3	긍정: 9.8%	5.5	긍정: 19.5%
그렇다	5.5		14.0	
보통	41.1	-	34.8	-
그렇지 않다	41.7	부정: 49.1%	23.2	부정: 45.8%
전혀 그렇지 않다	7.4		22.6	

P ≤ 0.05, 카이제곱 : 28.424, 유의확률 : 0.000

서귀포자연휴양림의 방문객들은 전체의 45.8%가 취미활동 항목이 휴양림 방문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은 19.5%로 나타나, 부정적 답변이 긍정적 답변보다 약 2.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숙박 등의 예약체계는 두 자연휴양림의 방문객의 선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속성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22] 예약체계

<표 4-30> 접근 및 이용체계

내용	항목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유효퍼센트	비고	유효퍼센트	비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12.9	긍정: 48.5%	1.2	긍정: 33.5%
	그렇다	35.6		32.3	
	보통	33.1	-	40.9	-
	그렇지 않다	16.0	부정: 18.5%	32.3	부정: 46.9%
	전혀 그렇지 않다	2.5		14.6	
주변 인근 관광지와 가깝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11.0	긍정: 36.2%	0.0	긍정: 6.1%
	그렇다	25.2		6.1	
	보통	44.8	-	42.1	-
	그렇지 않다	17.2	부정: 19.0%	33.5	부정: 51.8%
	전혀 그렇지 않다	1.8		18.3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쉬웠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4.3	긍정: 35.0%	5.5	긍정: 25.0%
	그렇다	30.7		19.5	
	보통	43.6	-	40.2	-
	그렇지 않다	19.6	부정: 21.4%	19.5	부정: 31.7%
	전혀 그렇지 않다	1.8		12.2	
안내체계(안내표시판, 이정표, 안내판)가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3.1	긍정: 25.8%	7.3	긍정: 21.9%
	그렇다	22.7		14.6	
	보통	49.7	-	39.0	-
	그렇지 않다	21.5	부정: 24.6%	29.3	부정: 39.1%
	전혀 그렇지 않다	3.1		9.8	
숙박 등의 예약체계가 용이하므로	매우 그렇다	4.3	긍정: 9.8%	5.5	긍정: 19.5%
	그렇다	5.5		14.0	
	보통	41.1	-	34.8	-
	그렇지 않다	41.7	부정: 49.1%	23.2	부정: 45.8%
	전혀 그렇지 않다	7.4		22.6	

위의 분석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표 4-30>) 절물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은 접근 및 이용 체계 속성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많은 항목은 교통의 편리성(48.5%), 인근관광지와의 거리(36.2%), 정보취득의 용이성(35.0%)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모두 전체 50%를 밑도는 비교적 낮은 선택수준을 보였다.

숙박 등의 예약체계 항목은 부정적인 답변(49.1%)의 비율이 긍정적인 답변(9.8%)보다 약 5배 정도 크게 나타나 예약체계 항목은 선택속성으로서 영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며, 안내표시판이나 이정표 등의 안내체계는 긍정과 부정의 응답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접근 및 이용체계 속성에서의 서귀포자연휴양림 방문객 답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긍정적인 응답의 그것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인근관광지와의 거리(51.8%), 교통의 편리성(46.9%), 숙박 등의 예약체계(45.8%), 정보취득의 용이성(31.7%), 안내체계(39.1%) 항목의 순서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나타났는데, 특히 주변인근 관광지와의 거리 항목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약 8.5배 정도 많았고, 숙박 등의 예약 체계 항목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약 2.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절물 자연휴양림에서는 접근 및 이용체계 속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로나마 휴양림 방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이러한 속성들이 방문객의 방문선택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자연휴양림의 선택속성으로 도출한 항목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속성별로 각각 하나의 항목을 추출하여 항목들 간의 우선순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택속성요인으로 도출한 생태·환경, 시설물, 프로그램 및 시설물, 접근 및 이용체계 속성 간의 상대적 중요도도 우선순위 측정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생태·환경 속성요인에서 추출한 ‘수려한 산림경관’ 항목과 시설물 요인에서 추출한 ‘숙박시설’ 항목,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요인에서 추출한 ‘다양한 체험활동’ 항목, 접근 및 이용체계 요인에서 추출한 ‘교통의 편리함’ 항목 간의 우선순위 빈도 및 유효퍼센트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31>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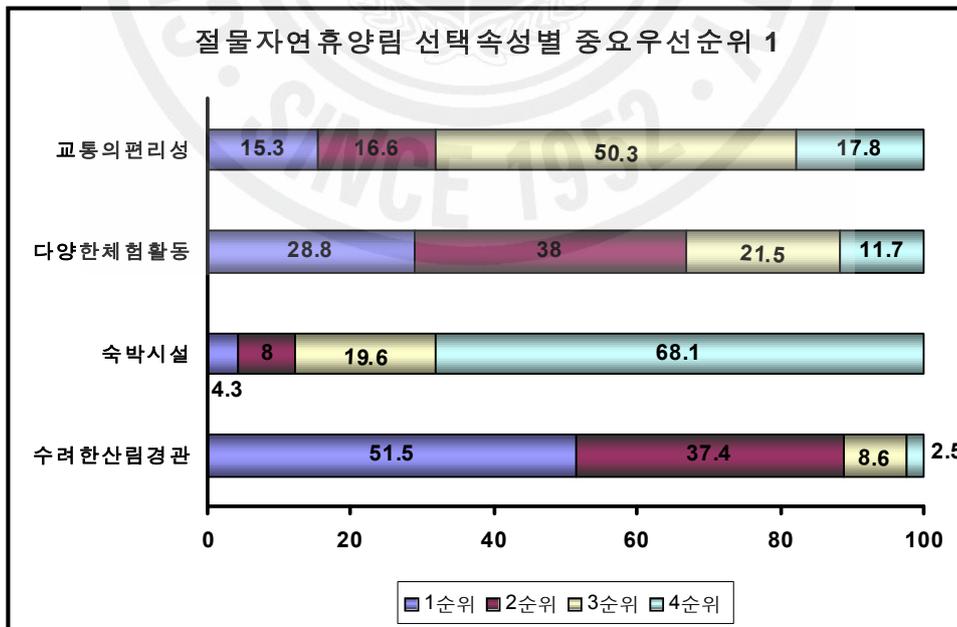
<표 4-31>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1

단위 : 빈도 및 유효퍼센트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1순위 빈도(%)	2순위 빈도(%)	3순위 빈도(%)	4순위 빈도(%)
수려한 산림경관	84(명) 51.5	61(명) 37.4	14(명) 8.6	4(명) 2.5
숙박시설	7(명) 4.3	13(명) 8.0	32(명) 19.6	111(명) 68.1
다양한 체험활동	47(명) 28.8	62(명) 38.0	35(명) 21.5	19(명) 11.7
교통의 편리함	25(명) 15.3	27(명) 16.6	82(명) 50.3	29(명) 17.8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 중 수려한 산림경관 항목을 1순위로 중요한 속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5%이었고, 2순위가 37.4%, 3순위가 8.6%, 4순위가 2.5%로 나타났고, 숙박시설 항목에 대해서는 4순위가 68.1%, 3순위가 19.6%, 2순위가 8.0%, 1순위가 4.3%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체험활동 항목은 2순위가 38.0%, 1순위가 28.8%, 3순위가 21.5%, 4순위가 11.7%, 교통의 편리함 항목은 3순위가 50.3%, 4순위가 17.8%, 2순위가 16.6%, 1순위가 15.3%로 나타났다.

단위 : (%)



[그림 4-23]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1

[그림 4-23]를 통해 속성별 유효퍼센트 분포를 살펴보면, 수려한 산림경관 항목은 1순위에 유효퍼센트가 집중분포하고 있고, 숙박시설은 4순위, 다양한 체험활동은 2순위, 교통의 편리성은 3순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즉,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은 상대적으로 수려한 산림경관, 다양한 체험활동, 교통의 편리성, 숙박시설 항목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문항에 대해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표 4-32>의 내용과 같다.

<표 4-32>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1

단위 : 빈도 및 유효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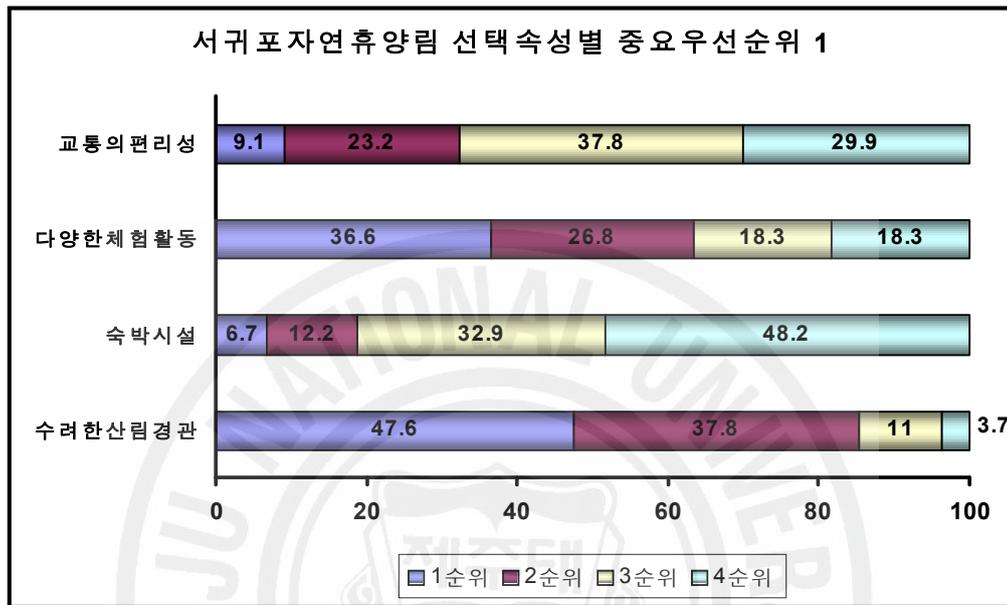
내용	서귀포자연휴양림			
	1순위 빈도(%)	2순위 빈도(%)	3순위 빈도(%)	4순위 빈도(%)
수려한 산림경관	78(명)	62(명)	18(명)	6(명)
	47.6	37.8	11.0	3.7
숙박시설	11(명)	20(명)	54(명)	79(명)
	6.7	12.2	32.9	48.2
다양한 체험활동	60(명)	44(명)	30(명)	30(명)
	36.6	26.8	18.3	18.3
교통의 편리함	15(명)	38(명)	62(명)	49(명)
	9.1	23.2	37.8	29.9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 중 수려한 산림경관 항목을 1순위로 중요한 속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6%였고, 2순위가 37.8%, 3순위가 11.0%, 4순위가 3.7%로 나타났고, 숙박시설 항목에 대해서는 1순위가 6.7%, 2순위가 12.2%, 3순위가 32.9%, 4순위가 48.2%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체험활동 항목은 1순위가 36.6%, 2순위가 26.8%, 3순위가 18.3%, 4순위가 18.3%, 교통의 편리함 항목은 1순위가 9.1%, 2순위가 23.2%, 3순위가 37.8%, 4순위가 29.9%로 나타났다.

자연휴양림의 방문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그림 4-24]와 같이 그래프를 통해 속성별 유효퍼센트 분포를 살펴보면, 수려한 산림경관 항목은 1순위와 2순위에 유효퍼센트가 집중분포하고 있고, 숙박시설은 4순위, 다양한 체험활동은 수려한 산림경관과 같이 1순위와 2순위에 집중분포하고 있으나 그 분포정도가 산림경관보다 1·2순위 모두 각각 11%씩 낮고, 교통의 편리성은 3순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즉, 서

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들 또한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수려한 산림경관, 다양한 체험활동, 교통의 편리성, 숙박시설 항목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



[그림 4-24]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1

중요 우선순위 2번째 문항에서는 생태·환경 속성요인에서 추출한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항목과 시설물 요인에서 추출한 ‘체육·놀이시설’ 항목,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요인에서 추출한 ‘산림욕활동(산책, 등산 등)’ 항목, 접근 및 이용체계 요인에서 추출한 ‘숙박 등의 예약체계’ 항목 간의 우선순위 빈도 및 유효퍼센트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33>과 같다.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 중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항목을 2순위로 중요한 속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8%이었고, 1순위가 22.1%, 3순위가 18.4%, 4순위가 6.7%로 나타났고, 체육·놀이시설 항목에 대해서는 3순위가 60.7%, 2순위가 22.7%, 4순위가 13.5%, 1순위가 3.1%로 나타났으며, 산림욕활동(산책, 등산 등) 항목은 1순위가 72.4%, 2순위가 17.8%, 3순위가 8.0%, 4순위가 1.8%, 숙박 등의 예약체계 항목은 4순위가 77.9%, 3순위가 12.8%, 2순위가 6.7%, 1순위가 2.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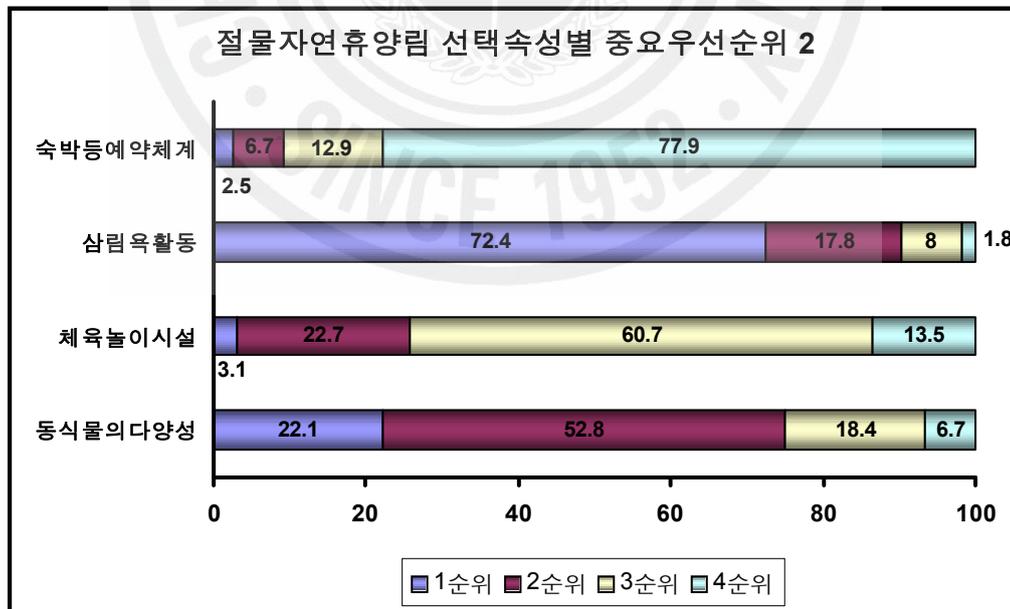
<표 4-33>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2

단위 : 빈도 및 유효퍼센트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1순위 빈도(%)	2순위 빈도(%)	3순위 빈도(%)	4순위 빈도(%)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36(명) 22.1	86(명) 52.8	30(명) 18.4	11(명) 6.7
체육·놀이시설	5(명) 3.1	37(명) 22.7	99(명) 60.7	22(명) 13.5
산림욕활동(산책, 등산 등)	118(명) 72.4	29(명) 17.8	13(명) 8.0	3(명) 1.8
숙박 등의 예약체계	4(명) 2.5	11(명) 6.7	21(명) 12.9	127(명) 77.9

[그림 4-25]의 그래프를 통해 속성별 유효퍼센트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등의 예약체계 항목은 4순위에 유효퍼센트가 집중분포하고 있고, 산림욕활동은 1순위, 체육·놀이시설은 3순위, 동·식물의 다양성은 2순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즉,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은 산림욕활동, 동·식물의 다양성, 체육·놀이시설, 숙박 등의 예약체계 항목의 순서로 속성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



[그림 4-25]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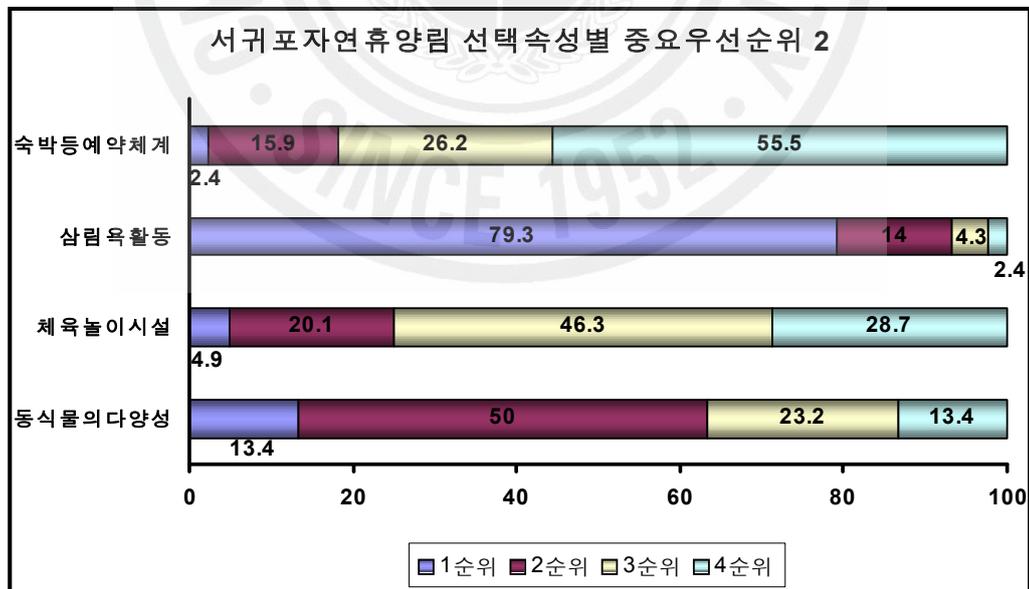
<표 4-34>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2

단위 : 빈도 및 유효퍼센트

내용	서귀포자연휴양림			
	1순위 빈도(%)	2순위 빈도(%)	3순위 빈도(%)	4순위 빈도(%)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22(명) 13.4	82(명) 50.0	38(명) 23.2	22(명) 13.4
체육·놀이시설	8(명) 4.9	33(명) 20.1	76(명) 46.3	47(명) 28.7
삼림욕활동(산책, 등산 등)	130(명) 79.3	23(명) 14.0	7(명) 4.3	4(명) 2.4
숙박 등의 예약체계	4(명) 2.4	26(명) 15.9	43(명) 26.2	91(명) 55.5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경우 전체응답 중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항목을 2순위로 중요한 속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0%이었고, 3순위가 23.2%, 1순위가 13.4%, 4순위가 13.4%로 나타났고, 체육·놀이시설 항목에 대해서는 3순위가 46.3%, 2순위가 20.1%, 4순위가 28.7%, 1순위가 4.9%로 나타났으며, 산림욕활동(산책, 등산 등) 항목은 1순위가 79.3%, 2순위가 14.0%, 3순위가 4.3%, 4순위가 2.4%, 숙박 등의 예약체계 항목은 4순위가 55.5%, 3순위가 26.2%, 2순위가 15.9%, 1순위가 2.4%로 나타났다.

단위 : (%)



[그림 4-26]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2

[그림 4-26]의 그래프를 통해 속성별 유효퍼센트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등의 예약체계 항목은 4순위에 집중분포하고 있고, 산림욕활동은 1순위, 체육·놀이시설은 3순위, 동·식물의 다양성은 2순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즉,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들 또한 절물 자연휴양림과 마찬가지로 산림욕활동, 동·식물의 다양성, 체육·놀이시설, 숙박 등의 예약체계 항목의 순서로 속성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택속성요인으로 도출한 생태·환경, 시설물, 프로그램 및 시설물, 접근 및 이용체계 속성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우선순위로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4-35>와 같다.

<표 4-35>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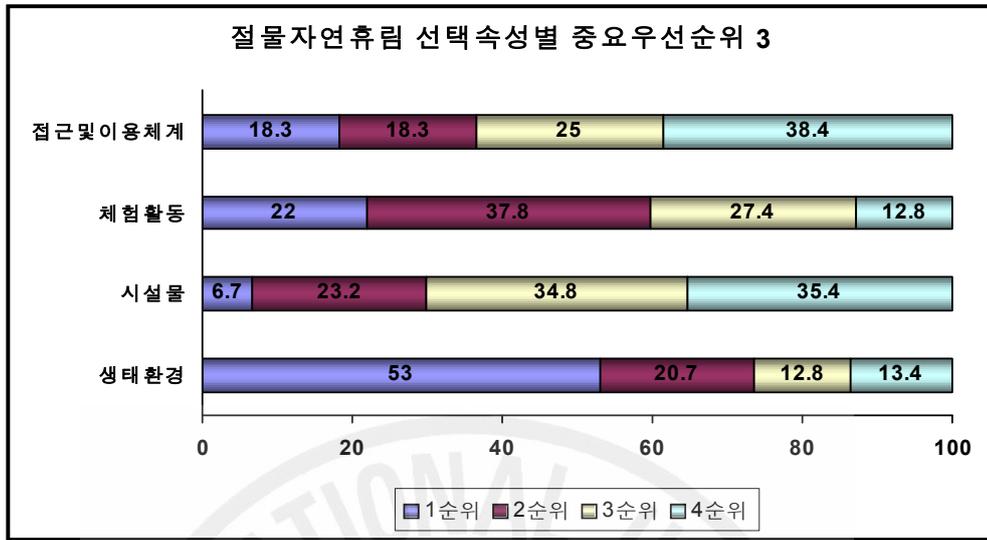
단위 : 빈도 및 유효퍼센트

내용	절물자연휴양림			
	1순위 빈도(%)	2순위 빈도(%)	3순위 빈도(%)	4순위 빈도(%)
생태·환경	92(명)	28(명)	28(명)	15(명)
	56.4	17.2	17.2	9.2
시설물	12(명)	44(명)	58(명)	49(명)
	7.4	27.0	35.6	30.1
체험활동	32(명)	61(명)	40(명)	30(명)
	19.6	37.4	24.5	18.4
접근 및 이용체계	27(명)	30(명)	37(명)	69(명)
	16.6	18.4	22.7	42.3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 중 생태·환경 요인을 1순위로 중요한 속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4%이었고, 2순위가 17.2%, 3순위가 17.2%, 4순위가 9.2%로 나타났고, 시설물 요인에 대해서는 3순위가 35.6%, 4순위가 30.1%, 2순위가 27.0%, 1순위가 7.4%로 나타났으며, 체험활동 요인은 2순위가 37.4%, 3순위가 24.5%, 1순위가 19.6%, 4순위가 18.4%, 접근 및 이용체계 요인은 4순위가 42.3%, 3순위가 22.7%, 2순위가 18.4%, 1순위가 16.6%로 나타났다.

[그림 4-27]을 통해 속성요인별 유효퍼센트 분포를 살펴보면, 접근 및 이용체계 요인은 4순위에 유효퍼센트가 집중분포하고 있고, 체험활동은 2순위, 시설물은 3순위와 4순위, 생태·환경은 1순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즉,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은 상대적으로 생태·환경, 체험활동, 시설물, 접근 및 이용체계 요인의 순서로 속성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



[그림 4-27]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3

동일한 문항에 대해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속성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표 4-36>의 내용과 같다.

<표 4-36>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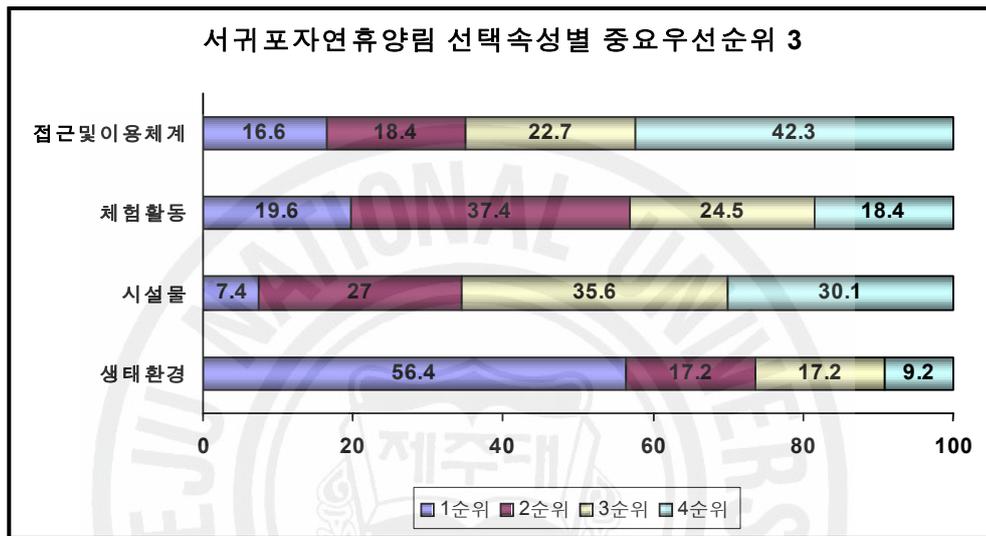
단위 : 빈도 및 유효퍼센트

내용	서귀포자연휴양림			
	1순위 빈도(%)	2순위 빈도(%)	3순위 빈도(%)	4순위 빈도(%)
생태·환경	87(명) 53.0	34(명) 20.7	21(명) 12.8	22(명) 13.4
시설물	11(명) 22.0	38(명) 23.2	57(명) 34.8	58(명) 35.4
체험활동	36(명) 19.6	62(명) 37.8	45(명) 27.4	21(명) 12.8
접근 및 이용체계	30(명) 18.3	30(명) 18.3	41(명) 25.0	63(명) 38.4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경우 전체응답 중 생태·환경 요인을 1순위로 중요한 속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0%이었고, 2순위가 20.7%, 4순위가 13.4%, 3순위가 12.8%로 나타났고, 시

절물 요인에 대해서는 4순위가 35.4%, 3순위가 34.8%, 2순위가 23.2%, 1순위가 22.0%로 나타났으며, 체험활동 요인은 2순위가 37.8%, 3순위가 27.4%, 1순위가 19.6%, 4순위가 12.8%, 접근 및 이용체계 요인은 4순위가 38.4%, 3순위가 25.0%, 1순위가 18.3%, 2순위가 18.3%로 나타났다.

단위 : (%)



[그림 4-28]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중요 우선순위 3

[그림 4-28]을 통해 속성요인별 유효퍼센트 분포를 살펴보면, 접근 및 이용체계 요인은 4순위에 집중분포하고 있고, 체험활동은 2순위, 시설물은 3순위, 생태·환경은 1순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즉,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들도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생태·환경, 체험활동, 시설물, 접근 및 이용체계 요인의 순서로 속성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우선순위 분석을 종합해보면, 두 대상지의 응답자의 항목별 우선순위 평가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속성요인별 세부항목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절물과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 모두 수려한 산림경관, 다양한 체험활동, 교통의 편리성, 숙박시설 항목의 순서로 중요도를 평가하였고, 산림욕활동, 동·식물의 다양성, 체육·놀이시설, 숙박 등의 예약 체계 항목의 순서로 속성의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선택속성요인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생

태·환경, 체험활동, 시설물, 접근 및 이용체계 요인의 순서로 평가하고 있다. 즉, 추출된 항목에 따라 요인별 우선순위는 문항별로 조금씩 달라졌으나, 세 문항 공통으로 생태·환경, 체험활동 요인과 그 세부항목이 자연휴양림의 선택속성으로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고, 접근 및 이용체계와 시설물 요인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 3 절 조사대상자 의견분석

절물 자연휴양림과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방문객들이 가장 만족한 매력적인 요소와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매력적인 요소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울창한 삼나무가 빼곡한 삼림욕장과 그 삼나무 삼림 사이로 조성된 산책로가 삼림욕을 즐기며 산책하기에 좋다는 것이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하다는 답변도 많았으며, 오름 등반 코스와 전망대에서의 경관이 좋다는 응답도 많았다. 또한 바람이 상쾌하고 시원하며, 계절마다 특색 있고, 약수가 좋다 등의 답변들이 있었다. 이는 방문객들이 자연휴양림에서 생태·환경적 요소에 크게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4-37> 절물 자연휴양림의 매력적인 요소

	절물 자연휴양림	응답비율
매 력 적 인 요 소	울창한 삼림(삼나무 숲 삼림욕장)	★★★★★★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삼림욕을 즐기며 산책하기에 좋음.	★★★★★★
	공기가 맑고 깨끗함.	★★★★★★
	휴식공간(평상, 벤치 등)이 잘 되어 있음.	★★★★★☆
	오름 등반 코스가 좋고, 전망대에서의 경관이 좋음.	★★★★☆
	여유로운 분위기(한적하고 조용함)	★★★★
	다양한 아이들 놀이시설	★★★☆☆
	가족·지인들과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
	바람이 상쾌하고 시원함.	★★★
	시설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약수물이 좋음.	★☆
	예쁘게 꾸며진 숙박시설	★
계절마다 특색 있음.	☆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의 휴식공간(평상, 벤치 등)이 잘 되어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많았다는 의견, 시설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뤄 보기 좋았다는 의견, 등 시설물에 대해 만족한 의견들도 많았다.

그 외에 자연과 함께하는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가족·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유익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답변도 많았다.

기타 소수 의견으로는 제주시에서의 접근성이 좋다는 의견과 안내원(휴양림 종사자)이 친절해서 좋았다는 의견, 사색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4-38> 절물 자연휴양림의 개선요구사항

	절물 자연휴양림	응답비율
개 선 요 구 사 항	교통 편의성 개선 필요함(버스노선 필요).	★★★★☆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시설(동물학습장 등)이 필요함.	★★★★★
	주차료 및 입장료 인하 또는 면제.	★★★★☆
	이정표, 안내표지판 정비되어야 함.	★★★★
	다양한 식물(야생화 등)을 관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생태환경 해설 안내(안내시설 및 해설사)	★★★★☆
	체계적이고 다양한 생태학습활동(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	★★★★☆
	식수시설·수도시설 곳곳에 보충이 필요함.	★★★
	놀이시설의 안전성 점검 및 관리에 개선이 필요함.	★★★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	★★☆
	산책로 및 시설물(평상, 벤치 등)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관리가 필요함.	★★
	취객 및 고성방가 방문객 관리가 필요함.	★
	생태환경 보전	★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이 요구한 개선사항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버스노선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한 교통의 편리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개선요구사항은 생태환경과 체험에 관한 의견으로,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시설(동물학습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고, 야생화 등의 다양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생태환경 학습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전문 생태환경 해설사가 있어서 교육적 기능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주차료와 입장료를 할인하거나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으며, 이정표나 안내 표시판 등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찾아오기가 어려웠다는 불만사항도 많았다.

<표 4-39>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매력적인 요소

	서귀포 자연휴양림	응답비율
매 력 적 인 요 소	산책로가 아름답고 코스가 좋아 산책하기 좋음.	★★★★★★
	대화하기 좋은 분위기(산책하며 대화하기 좋음.)	★★★★★
	공기가 맑고 깨끗함.	★★★★
	삼림욕을 즐기기 좋음.	★★★★☆
	가족(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
	한적하고 조용함.	★★☆
	법정악 전망대(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경관)	★★☆
	수려한 산림	★★
	아름다운 자연경관	★★
	훼손되지 않은 환경	★☆
	다양한 수목과 식물을 볼 수 있었음.	★☆
	환경이 깨끗함.	★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매력적인 요소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잘 정비된 산책로가 아름답고 코스가 좋아 삼림욕을 즐기며 산책하기에 좋다는 것이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하며,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훼손되지 않은 환경과 산림이 아름답다는 의견들도 많았다.

또한 한적하고 조용하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좋았다는 답변과 가족·지인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답변도 매우 많았다.

<표 4-40>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개선요구사항

	서귀포 자연휴양림	응답비율
개 선 요 구 사 항	자세한 내부 안내시설(안내판, 현재위치 표시, 내부 안내지도 등)이 있어야 함.	★★★★★★
	산책로 중간에 식수시설 및 수공간이 필요함.	★★★★★☆
	홍보가 필요함.	★★★★★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음.	★★★★☆
	휴양림 내부에 차량을 통제해야함.(도로순환로 폐지)	★★★★
	다양한 야생 동·식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음.	★★★★☆
	휴지통(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음.	★★★
	이정표, 안내시설 등의 외부 안내판이 있어야 함.	★★☆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음.	★★☆
	안내가이드(해설사)가 있었으면 좋겠음.	★★
	체육시설이 많았으면 좋겠음.	★
	산책로를 더 길게, 다양하게 조성했으면 함.	★
자연학습을 위한 야생 동·식물 관찰시설이 필요함.	☆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이 요구한 개선사항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안내판, 내부 안내지도, 현재위치 표시판 등의 자세한 휴양림 내부 안내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개선요구사항은 산책로 중간 중간에 식수시설 및 수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고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이었다.

절물 자연휴양림과 마찬가지로 생태환경과 체험에 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제안되었는데,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자연학습을 위하여 다양한 야생 동·식물을 관찰시설,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휴양림 안내가이드(해설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 제 4 절 실증분석결과 종합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관광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방문객의 행태를 조사·분석하고 자연휴양림의 선택속성과 우선순위를 알아봄으로써, 이를 토대로 자연휴양림 방문선택에 대한 함의 및 조성 계획·개발 및 관리·운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다.

우선 방문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광활동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해보면, 두 조사대상지 방문객의 성별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 2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나, 50대 이상의 노년층의 방문비율이 서귀포 자연휴양림이 절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물 자연휴양림과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학력은 각각 대재/대졸(전문대포함)과 대학원 이상이 143명(87.7%)과 128명(78.0%)으로 집계되어 자연휴양림 방문객은 주로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소득은 400만 원 이상이 38명(23.3%)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경우에도 400만 원 이상 34명으로 20.7%인 것으로 조사되어 고소득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두 대상지 방문객의 거주지는 전체의 약 30%에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도외 방문객이었고, 나머지의 거의 대부분이 절물의 경우는 제주시민 이었으나,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제주시민과 서귀포시민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직업별로는 사무직, 전문기술직, 공무원의 방문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주부, 사무직, 자영업의 방문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개인적 시간유용이 자유로운 방문객들이 서귀포자연휴양림을 더 많이 찾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방문행태는 가족 및 친구(연인)동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방문객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구(연인)와 함께 소그룹으로 개별방문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 자연휴양림을 포함한 자연휴양림 방문횟수를 두 자연휴양림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회 이상 자연휴양림을 방문했다는 응답이 절물과 서귀포 각각 136명(83.4%)과

123명(75.0%)로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에 자연휴양림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었다. 또한, 조사가 이루어진 자연휴양림을 최근 5년간 방문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로도 절물 자연휴양림 조사응답자 중 62.4%, 서귀포 자연휴양림 응답자 중 59.1%인 것

으로 조사되어 제주지역 자연휴양림의 경우 재방문객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연휴양림까지 이용한 교통수단은 대중 교통수단이 아닌 자가용과 렌트카의 이용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수단 이용행태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일반 관광지와는 달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이용증가가 교통수단 이용행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주로 가족(친구)과 시간을 보내고 혼잡함에서 벗어나 긴장과 피로를 풀기 위하여 두 대상지를 방문하였고, 주로 행한 여가활동 유형은 산책, 휴식, 동행자와 대화 등이었다. 즉 제주지역 내 자연휴양림의 방문객의 경우 휴양, 휴식을 위주로 한 정적인 활동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관광지에서 나타났던 먹고 즐기기 위주의 관광행태에서 정신적인 휴식과 안정을 도모하는 관광행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가 및 관광활동에 대한 방문객들의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광지 속성이 두 자연휴양림의 방문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증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태·환경 속성요인 중 산림경관, 한적한 분위기, 시설물과 자연의 조화 항목이 두 자연휴양림의 방문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의 쾌적성은 두 자연휴양림 방문객 모두가 방문선택요소로서 긍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분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공간(연못, 약수터) 항목의 경우 절물자연휴양림 방문객들에게는 방문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의 방문선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은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의 방문선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두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방문선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속성은 생태환경의 쾌적함으로 나타났고, 한적한 분위기, 수려한 산림경관, 시설물과 자연의 조화의 순서로 선택속성으로서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속성요인의 세부항목인 숙박시설, 편의시설, 산책로, 휴식시설, 체육·놀이시설 중에서 휴식시설, 산책로(등산로)는 절물 자연휴양림의 방문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교육시설은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의 방문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시설은 두 자연휴양림 방문객 모두가 방문선택요소로서 부정적인 응답이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교육

시설이 자연휴양림 방문 시 선택속성항목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귀포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은 휴식시설(68.9%)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설물 항목은 자연휴양림을 방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객들에게 시설물요소는 자연휴양림 방문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자연휴양림 방문객이 방문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속성은 휴식시설 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속성요인 중에서는 산림욕활동, 자연경관 감상, 자연학습, 취미활동 항목의 순으로 두 자연휴양림의 방문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두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의 방문선택에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두 대상지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산림욕활동 항목과 자연경관감상 항목이 방문객 대부분으로부터 자연휴양림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연에서의 활동이 자연휴양림을 찾는 요인임을 재확인시켜줬다.

접근 및 이용체계 속성요인이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방문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절물자연휴양림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많은 항목은 교통의 편리성, 인근관광지와 거리, 정보취득의 용이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숙박 등의 예약체계 항목은 선택속성으로서 영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서귀포자연휴양림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즉, 절물 자연휴양림에서는 접근 및 이용체계 속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로나마 휴양림 방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이러한 속성들이 선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휴양림의 방문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속성요인별 중요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두 대상지의 조사 대상자가 항목별 우선순위를 유사한 비율로 평가하고 있었다. 선택속성요인별 세부항목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절물과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 모두 수려한 산림경관, 다양한 체험활동, 교통의 편리성, 숙박시설 항목의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고, 산림욕활동, 동·식물의 다양성, 체육·놀이시설, 숙박 등의 예약체계 항목의 순으로 속성의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선택속성요인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생태·환경, 체험활동, 시설물, 접근 및 이용체계 요인의 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절물과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의 선택속성은 대상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선택속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출된 항

목에 따라 요인별 우선순위는 문항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나, 세 문항 공통으로 생태·환경, 체험활동 요인과 그 세부항목이 자연휴양림의 선택속성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고, 접근 및 이용체계와 시설물 요인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은 자연휴양림에서 생태·환경적 요소에 크게 매력을 느끼고 있고, 휴식공간(평상, 벤치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시설물과 자연의 조화 등에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자연과 함께하는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가족·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유익한 대화를 할 수 있음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서귀포 자연휴양림 방문객 또한 절물 자연휴양림의 방문객과 마찬가지로 잘 정비된 산책로가 아름답고 코스가 좋아 삼림욕을 즐기며 산책하기에 좋고, 공기가 맑고 깨끗하다 등의 훼손되지 않은 환경과 자연생태환경 요소에 크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선택속성의 상대적 우선순위의 결과에 비춰봤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선택속성요인에 대해 많은 응답자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을 종합한 결과, 두 자연휴양림 모두 생태환경과 체험에 관한 의견으로,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시설, 생태환경 학습 프로그램, 전문 생태환경 해설사가 있어서 교육적 기능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교차분석 결과에서는 자연휴양림에서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에게 선택속성으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자연휴양림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거나 홍보의 부족 등으로 방문객들이 프로그램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선택속성의 상대적 우선순위 조사와 개별면접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속성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자연휴양림에서 즐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지역 자연휴양림의 경우, 방문객의 다양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과 기술혁신에 따른 고도 산업사회로의 변천은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하는 여가에 대한 인식과 여가활동의 변화이다. 여가의 의미 또한 노동시간과 생활필수시간을 제외한 시간적 차원의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차원의 여가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윤지환, 2002).

김문겸(2002)은 여가의 상업화가 증대되고, 단순했던 여가형태가 도시생활로부터의 일탈을 위한 자연친화형 및 휴양체제형 여가형태와 자아실현 및 계발추구형 여가형태, 가족동반형 여가형태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며, 이러한 변화는 개별적 양상보다는 종합적 양상을 띠며 전개된다고 하였고, 하경량(2003)은 이러한 여가활동의 변화로 인해, 산림휴양 수요(등산 휴양 수요, 체재형 휴양수요, 모험형 휴양 수요, 학습 체험형 휴양 수요, 산촌 녹색관광 수요 등)의 절대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 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증가로 인해 관광은 현대인의 소비문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개인생활의 확산,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등의 사회변화는 관광의 대중화 현상을 확산시켜, 관광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관광산업은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산업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관광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방문객의 행태적 패턴을 조사·분석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자연휴양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휴양림의 계획·개발 시 정책적 시책을 수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제주지역 대표적인 자연휴양림인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로 구

분하여 설정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연구이론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관광지선택속성, 자연휴양림의 개념 및 분류, 자연휴양림에 관한 선행연구, 자연휴양림 속성에 관련된 논문·저서 및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연구의 준거로 삼았다.

둘째, 하나의 관광지로서 자연휴양림의 계획·개발 및 관리·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선택속성이 방문객 선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과 우선순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2차례에 걸친 예비조사를 통해 도구화된 설문지를 도출하였다. 작성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으로 응답케 하는 설문지법(questionnaire)을 사용하였다.

본조사의 조사기간은 2008년 4월 16일부터 2008년 5월 15일까지였으며, 설문지 360부를 배포하여 이중 미회수 및 자료부실 등 33부를 제외한 총 327부를 유효 표본으로 하였다.

설문결과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 Window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별면접을 통해 제주지역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광행태, 그리고 자연휴양림의 속성 중 생태·환경, 시설물, 체험활동, 접근 및 이용체계 요인이 방문객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와 선택속성 간의 상대적 우선순위, 방문객의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은 비교적 고소득층이 많았고,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가족동반이나 친구(연인)동반 형태의 소그룹 개별방문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주로 동행자와 시간을 보내고 혼잡함에서 벗어나 긴장과 피로를 풀기 위하여 자연휴양림을 방문하여 산책, 휴식, 동행자와 대화 등의 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객들의 여가 및 관광활동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관광지에서 나타났던 먹고 즐기 위주의 관광행태에서 정신적인 휴식과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사 대상지 방문객들의 타 자연휴양림을 포함한 자연휴양림 방문횟수 및 최근 5년간 조사 대상 자연휴양림의 방문횟수에 대한 분석을 보면, 전체의 70-80%가 자연휴양림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60% 내외의 응답자들이 해당 대상지를 최근 5년간 2회 이상 재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이 현재의 자연휴양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하

는 새로운 관광형태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자연휴양림의 계획·운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두 조사대상지까지 방문객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대중 교통수단이 아닌 자가용과 렌트카의 이용비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수단 이용행태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일반 관광지와는 달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이용증가가 교통수단 이용행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자연휴양림의 속성 중 생태·환경, 시설물, 체험활동, 접근 및 이용체계 요인이 방문객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 생태환경의 쾌적함, 한적한 분위기, 수려한 산림경관 등의 생태·환경 속성요인이 방문객의 선택에 가장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산림욕활동과 자연경관 감상활동 등의 자연에서의 활동이 선택속성으로서 방문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설물 속성은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점은 ‘산림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즉 울창한 숲,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경관 등의 모든 기능을 살려 산림 내에서 휴양과 휴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만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국민 휴식공간’이라는 자연휴양림의 기본 목적과 방문객들의 인식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선택속성 간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추출된 항목에 따라 요인별 우선순위는 문항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나, 세 문항 공통으로 생태·환경, 체험활동 요인과 그 세부항목이 자연휴양림의 선택속성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고, 접근 및 이용체계와 시설물 요인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설물보다도 자연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방문객의 선호도는 제주지역에도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여 생태관광의 뿌리가 서서히 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의견 분석을 토대로 자연휴양림의 생태·환경적 요소와 자연 속에서 즐기는 정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선요구사항으로 다양한 동·식물 관찰을 비롯한 체험프로그램과 시설, 생태환경 학습 프로그램 등의 체험적·교육적 기능을 요구하고 있어 자연휴양림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 욕구가 현재로서는 충족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자연휴양림의 선택속성으로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속성의 영향정도가 낮지만, 앞으로 운영자 혹

은 공급자의 공급과 홍보에 따라 변동의 가능성이 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연구지역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행태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지 이용행태와는 차별화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관광’ 또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격과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휴양림은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자원 중심형 관광지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생태관광지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환경 요인의 대부분의 속성이 방문객의 선택속성으로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다른 속성들과의 상대적 우선순위에서도 최상위에 위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연휴양림의 개발·계획에 있어 생태·환경의 보전과 유지는 가장 우선시 되는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한계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2008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시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물들이 다른 계절의 방문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계절별 방문객의 선택속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도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지를 제주지역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자연휴양림 이용행태 및 선택속성을 설명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타 지역의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여 일반화가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자연휴양림의 지속가능성 발전과 자연휴양림의 계획·개발 시 정책적 시책을 수립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1. 국내문헌

- 강미희·김남조·최승담(2002). "대중관광객과의 비교를 통한 생태관광객의 차별적 특성 규명," 여행 동기 및 태도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17(2), pp. 157-175.
- 강주훈·정석중(1998), "관광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 관광학연구, 21(2), pp. 237-248.
- 고동우(1998), "관광의 심리적 체험과 만족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고재용(1994). "휴양림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경영연구 95(2), pp.77-99.
- 곽노엽(1998). "관광지속성의 선호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용우·정태홍·김선희(1995). "관광과 여가," 한울.
- 권정택(2001). "관광이벤트의 방문동기와 사후 이미지가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욱(2004).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만족이 호텔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장성수·부창산(2008). "최신 관광법규 해설," 대왕사.
- 김세천(1993), "지리산 국립공원의 관리개선을 위한 이용자 행태분석", 韓國庭園學會誌, 11(2), pp. 63-75.
- 김이향(2006), "방한 중국인의 한류태도, 관광목적지 이미지, 관광지 선택속성, 만족",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재준·유리화·윤은용·박찬우(2003). "산림휴양공간별 방문선택 영향요인분석," 산림과학논문집, 67, pp. 82-90.
- 김주미(1992), "안면도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창완(2002), "관광지 선택속성과 개발요인이 관광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産經研究, Vol.19 pp. 41-56.
- 류돈상(1993),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성중(2006). “지역축제 이벤트평가를 위한 축제속성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모형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문수·안기완·전경수·박종민(2002). “자연휴양림의 이용 실태 :서부지방 산림관리청  
관할 휴양림을 중심으로,” 한국휴양산림학회지, 6(3), pp. 87-94.
- 박봉우 외 7인(1998). “경북지역 자연휴양림 평가 : 청옥산, 통고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  
연구, 2(1), pp. 5-16.
- 박봉우·이주희(1999).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의 생태교육장 활용방안,” 산림휴양연구, 3(1),  
pp. 63-69.
- 박석희(1997), “관광과 환경의 공생을 위한 관광환경 관리전략,” 경기관광연구, pp.  
85-104.
- 박석희(2002). “신관광자원론,” 대왕사.
- 박수완·한승엽(1998). “관광동기와 관광지 매력속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  
연구, 7(2), pp. 35-51.
- 박시영(1995), “자연휴양림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종성(2001). 이용자 평가에 기초한 자연휴양림 유형별 만족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주환·최현상·전형석(2003). “도시근교형 자연휴양림 이용형태와 만족도 분석,” 한국조  
경학회지, 30(6), pp. 57-65.
- 서철현·송은주·이상돈(2003),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이용 후 평가에 관한 연구”, 문화  
관광연구, 5(2), pp. 169-188.
- 송은주(2003). “자연휴양림의 이용특성과 여가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양덕희(2007).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자원지속성 지각이 만족과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윤정(2003), “생태관광지로서의 자연휴양림에 관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관광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여정태(1993). “관광지 개발계획을 위한 설계환경의 평가에 관한 제언,” 경기대학교 논문  
집 32, pp.359-382.

- 연평식·신원섭(2001).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방문동기 :속리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장용산 자연휴양림,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5(3), pp. 59-66.
- 우문호·주현식(2000). “방문동기가 자연휴양림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3(4), pp. 13-32.
- 유리화·김재준(2003), “도시림 이용자의 방문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원휴양학회지 5(1) pp. 31-41.
- 윤길진(1990). “국립공원 관광지에 대한 인지와 선호에 관한 분석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지환·김수진(2003),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의 행태분석”, 관광학연구 27(3), pp. 61-77.
- 이경하·문혜영·김홍범(2002). “관광지 속성과 공간마찰변수가 관광지선택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17(2), pp. 1-22.
- 이애주(1988). “관광지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관광객의 지각 및 선호도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락·김상운(2001). “도시근교형 자연휴양림의 이용 특성 및 산림휴양문화의 인식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5(3), pp. 19-26.
- 이진희(1996). “동계형 리조트의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진희(1999).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적제안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13, pp. 496-516.
- 이철우·박순호·최정수(1998). “통고산 자연휴양림 이용행태와 개발전략,”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0(1), pp.131-151.
- 이창현(2001),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자의 휴양 만족도에 관한 연구”, 韓國庭園學會誌, 19(1), pp. 96-103.
- 이형민(1994).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조성과의 이용,” 숲과 문화 연구회, 2, pp. 45-49.
- 장병문(2000).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휴양림의 자원요소, 산림휴양연구, 4(3), 27-41.
- 장병문·배민기(2002), “자연공원의 자원과 이용 만족도간의 관계에 관한 인과모형”, 韓國造景學會誌, 30(3), pp. 12-24.

- 장성수(1999). "관광지 개발잠재력 평가요인과 투자결정경로에 대한 구조분석,"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운수(1997), "자연휴양림의 潛在的要素에 관한 연구", 學術誌, 41(2), 191-203.
- 정일휘(1997), "국립공원 북한산 매력속성에 대한 탐방자의 태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주형(1995). "도시근교형 자연휴양림의 이용만족도 조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선형(1993), "사유휴양림 개발여건 분석과 개발방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현식·여호근 (2000). "자연휴양림 방문동기가 관광지 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15(2), pp. 185-200.
- 진향선·강건우(1996). "자연휴양림의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4(1), pp. 93-117.
- 최관(1990), "산림휴양지의 최적 이용자수 결정에 관한 연구", 韓國林學會誌, 79(3), pp. 231-244.
- 최용복·부창산(2007). "지역축제의 만족속성이 방문객 만족도와 재방문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법과정책, 13(2), pp. 269-288.
- 최설매(2003). "IP분석에 의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지 선택속성과 만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경량(2002). "자연휴양림의 성격과 형성과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1), pp. 105-119.
- 하경량(2003). "자연휴양림의 입지 특성과 이용객의 행태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상열·이주희·서응철·김범수(2000). "도시자연녹지의 이용실태와 효율적 활용방안을 위한 Greenway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89(5), pp. 576-584.

## 2. 해외문헌

- Backman et al.(1995). Event tourism: an examination of motivations and activities,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3(1).
- Buckley, R, (1994). "Framework for Ecotourism", Annuals of Tourism Research 21.

- Clawson, M and Knetsch, J.L,(1966). *Economics of Outdoor Recreation*.
- Weaver, D. G, "Magnitude of Ecotourism in Costarica and Kenya",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4).
- Kim, Hong-bum(1998). "Perceived Attractiveness of Korean Destinations, "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 pp. 340-361.
- Fumito Yokoyama(1991). *Casual Modeling of Tourist Satisfaction: Application to Michigan's Northwestern Costal Tourism Region*, Ph. 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E. J. Mayo(1973). *Regional Image and Regional Travel Development*, Travel and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Proceeding.
- J. R. Brent(1978). "Culture as Determinant Attractiveness of an Tourism Reg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pp. 252-266.
- A. J. Haahti(1986). "Finland's Competitive Position as a Destin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3, pp. 11-35.
- E. F. Ferrario(1986). "Black and White Holidays: The Future of the Local Tourist Industry in South Africa," *Annals of Tourism Research*, 13, pp. 331-348.
- J. L. Crompton and P. K. Ankomah(1993), "Choice Set Propositions in Destination Decis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 pp. 461-476.
- E. Inskeep(1991), *Tourism Planning: An Integra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pp. 25-34.
- J. N. Goodrich(1997), "Benefit Bindle Analysis: An Empirical Study of International Travels, " *Journal of Travel Research*, 16, pp. 1-3.
- Goodrich, J.N,(1978). "The relationship between preference for and perceptions of Vacation Destinations: Applcation of a Choice model," *Journal of ravel Research*, 9, pp. 8-13.
- Clawson, M and Knetsch, J.L,(1966). *Economics of Outdoor Recre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 Rajotte, F,(1975). "The Different Travel Patterns and Special Framework of Recreation and Tourism" in *Tourism as a Factor in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 자연휴양림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자연휴양림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순수 통계 처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귀하의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 04.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지도교수 : 최 용 복

연구자 : 김 인 정

064)754-3104 E-mail: cancer9@naver.com

I. 다음은 자연휴양림 방문에 관한 일반적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1. 자연휴양림에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① 혼자    ② 가족동반    ③ 친구(연인)동반    ④ 단체모임    ⑤ 기타(    )
2. 지금까지 자연휴양림을 몇 회 이용하셨습니다? (다른 자연휴양림 포함)  
 ① 1회(처음)    ② 2~3회    ③ 4~5회    ④ 6회 이상
3. 자연휴양림을 오시기 위해 이용하신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    ② 대중교통    ③ 관광/전세버스    ④ 렌트카    ⑤기타 (    )
4. 자연휴양림에서 얼마동안 머무르실 예정입니까(머무르셨습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2시간    ③ 2~4시간    ④ 당일    ⑤ 1박 2일 이상
5. 자연휴양림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① 주변사람의 소개    ② 언론매체    ③ 휴양림 홍보 책자  
 ④ 인터넷    ⑤ 기타 (    )
6. 자연휴양림을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혼잡함에서 벗어나 긴장과 피로를 풀기 위해    ②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③ 야외활동(등산, 야영 등)에 참여하기 위해    ④ 가족(친구)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⑤ 야생 동·식물관찰 등 자연에 대한 지식함양    ⑥ 기타 (    )
7. 귀하께서는 최근 5년간 이 자연휴양림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다?  
 ① 1회(처음)    ② 2~3회    ③ 4~5회    ④ 6회 이상

II. 다음의 항목들이 자연휴양림 방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정도에 따라 V표시를 해 주십시오. (단, 1점부터 5점까지 다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생태·환경**

	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산림경관이 수려한 곳이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	분위기가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3	다양한 야생 동·식물을 볼 수 있으므로	①	②	③	④	⑤
4	수공간(연못, 약수터 등)이 잘 되어 있으므로	①	②	③	④	⑤
5	생태환경이 쾌적한 곳이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6	시설물과 자연이 잘 조화된 곳이므로	①	②	③	④	⑤

**시설물**

	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8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이 잘 되어 있으므로	①	②	③	④	⑤
9	교육시설(자연학습장, 전시관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0	산책로(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므로	①	②	③	④	⑤
11	휴식시설(벤치, 야외평상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2	체육·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 므로	①	②	③	④	⑤
14	취미활동(사진촬영, 그림그리기 등)을 할 수 있으므로	①	②	③	④	⑤
15	삼림욕활동(도보, 등산)을 할 수 있으므로	①	②	③	④	⑤
16	자연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7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접근 및 이용체계**

	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9	주변 인근 관광지와 가깝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0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1	안내체계(안내표시판, 이정표, 안내소)가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2	숙박 등의 예약체계가 용이하므로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선택속성별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보  
기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예시>와 같이 순위를 매겨 주  
십시오.

	① 수려한 산림경관	( 2 )
	② 숙박시설	( 3 )
	③ 다양한 체험활동	( 1 )
<예시>	④ 교통의 편리함	( 4 )

1.

① 수려한 산림경관	( )
② 숙박시설	( )
③ 다양한 체험활동	( )
④ 교통의 편리함	( )

2.

①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 )
② 체육·놀이시설	( )
③ 삼림욕활동(산책, 등산 등)	( )
④ 숙박 등의 예약체계	( )

3.

① 생태·환경	( )
② 시설물	( )
③ 체험활동	( )
④ 접근 및 이용체계	( )

IV. 다음의 보기 중 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하여 경험하신 주요 여가활동을 선택하여 V 표시를 해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① 산책 ( )	② 동행자와 대화 ( )	③ 등산 ( )
④ 야영 ( )	⑤ 취미활동(사진, 그림 등) ( )	⑥ 단체모임( )
⑦ 휴식 ( )	⑧ 자연관찰 및 자연학습 ( )	⑨ 체육·놀이시설 ( )
⑩ 피크닉 ( )	⑪ 기타 ( )	

1. 이번 방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매력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

2. 이번 방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  
-----

V.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성      ② 여 성

2. 귀하의 연령은?

-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이하      ② 대재/대졸(전문대포함)      ③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월평균 가계소득(가구전체 소득)은?

- ① 150만원 미만      ② 150~200만원 미만      ③ 200~250만원 미만  
④ 250~300만원 미만    ⑤ 300~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이상

5. 귀하의 거주지는? ( )도/시 ( )시/구

6. 귀하의 직업은?

- ① 학생    ② 자영업    ③ 주부    ④ 사무직    ⑤ 전문기술직    ⑥ 공무원    ⑦ 기타(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Choice Attributes of the Recreational Forest

- Focused on 2 sites of Recreational Forest in Jeju -

Kim, In Jung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ts of recreational forest and to suggest the basic information to help planning,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recreational forest by studying the choice attributes of the recreational forest as one of the tourist site.

The research results lead us to the follows.

First, the income of visitors is comparatively high, and most of them are high educated and came to Recreational Forest in a small group with family or friend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preferring activity in Recreational Forest shows that most of visitors prefer to walk forest and take rest in peace with their companions. It is interpreted that the tourism pattern is changed to the purpose of mental rest and spiritual stability from the pattern of simple consumption shown in previous tourism site.

Second, regarding the survey on the frequency of visit and intention to re-visit, about 70-80% of total visitors have visited any recreational forest, and about 60% of total visitors have re-visited the recreational forest in Jeju more than twice within 5 years. This shows that the visitors of Recreational Forest are responding

to the positive reaction to present natural forest, and it may be estimated that the new pattern of tour focusing on natural forest is rapidly spread. Thus, this change has to be reflected in the main body of planning or operating the Recreational Forest.

Third, in terms of the means of transportation used to visit Recreational Forest, the rate of using private vehicles is much higher than that of using public transportation. Because of the increase in the use of Recreational Forest where the accessibility by public transport is relatively low, it is closely correlated with the changes in the pattern of the use of public transport.

Forth, as the result of analyzing degree of affecting visitors' choice among the attributes of Recreational Forest(the ecology · environment, facilities, activities, accessibility and user system), the ecology · environment of Recreational Forest is the most positively influencing attribute to visitors' choice.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visitors are not influenced by facilities to choice to come to Recreational Forest.

Fifth, according to analysis of the comparative priority order among the choice attributes, the ecology · environment, activities and their particular items are estimated importantly as the choice attributes of the Recreational Forest. Comparatively facilities and accessibility and user system are not importantly estimated.

Sixth, according to analysis of questionnaire for subjective opinions, it is shown that visitors were positively impressed by the ecology · environment and statical activities of the Recreational Forest. However, many of visitors wanted to be able to observe various animals and plants and to experience varied dynamic activities and programs for education such as classes for learning ecology and environment.

In conclusion, it is shown that the visitors' behaviour of Recreational Forest in research area is already different from the past pattern of visitors'. Especially it is in considerable accord with eco-tourism and sustainable tourism which are being rapidly spreaded in recent days. Also, it is estimated that the ecology ·

environment of Recreational Forest is the most positively influencing attribute to visitors' choice and the most important attribute according to analysis of the comparative priority order. Thus, on planning and developing Recreational Forest, it has to put priority on the value of sustaining the ecology and environment in Recreational Forest.



## 감사의 글

‘과연 내가 이걸 끝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과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미려한 의지 사이를 셀 수 없이 오락가락 하는 동안 어느새 봄이 지나고 오지 않을 것만 같던 여름이 되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미천하고 작은 결과물이라 그저 부끄러운 마음뿐이지만, 그 과정만큼은 저 스스로를 훌쩍 키워가는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었기에 험난했던 이 여정이 비교적 만족스럽습니다.

처음해보는 논문작업은 역시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논문을 준비하는 내내 주변 많은 분들에게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주셨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광학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교류수학 1년의 경험뿐인 저를 지도학생으로 받아주시고 GIS센터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최용복 교수님께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걱정해주시고 여러모로 배려해주시는 임화순 교수님, 논문의 체계를 바로 잡아주시고 열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셨던 장성수 교수님과 세밀하게 읽어봐 주시고 꼼꼼하게 지적해주신 이진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학원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만나, 연고도 하나 없는 제주에서 가족과 같은 끈끈한 인연이 되어준 소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병행해준 스승 같은 선배 창산오빠, 힘들 때마다 큰 웃음 가져다 준 곰의 탈을 쓴 재일오빠,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아 준 중기오빠, 앞으로도 오랫동안 베스트 프렌드로 남아 줄 은경언니, 내 짜증과 스트레스를 아무 말 없이 다 들어준 재선이, 사랑스런 나의 동기 지은이, 민구, 어려운 부탁임에도 흔쾌히 설문을 도와준 웃음바이러스 경보와 ‘유럽여행 인연’ 영민이, 소영이, 보향이, 그리고 너무 참한 혜숙이에게 가슴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들이 있어 제주에 온전히 마음 붙이고 힘든 시간에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문에 도움을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절물 자연휴양림 김덕홍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서귀포 자연휴양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려 무엇보다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지켜봐주신 부모님과 하나뿐인 동생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 가족의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기쁨과 성취 또한 저만의 것일 수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분들께 소중한 인연과 배움을 잊지 않고 더욱 큰 사람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2008년 7월

김 인 정

